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창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정보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는 피부!
(주)씨 티 · 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명예회장 노대원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4월 1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23 호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김 종 심

자비로 세상을 보면 모두가 내몸처럼 귀하며, 부처 아닌 것이 없다고 했던가. 생각하면 내 어머니의 일생이 그러했다. 내가 자란 곳은 관음절이다. 절은 없어지고 이름만 남아 동네이름이 된 곳이다. 마을 뒤 세살고개를 넘으면 학가산 기슭의 덕진골이다. 어머니는 초파일이면 꼭 나를 데리고 거기 가서 불공을 드렸다. 왜 절도 아닌 곳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는 정성들여 미련한 음식을 골짜기 바위 밑에 차려 놓고, 촛불을 밝힌 후 두 손을 모아 무엇을 간절히 빌었다. 어린 나는 그런 어머니의 뜻을 알지 못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집안과 가족들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기구일 거라는 막연한 짐작으로 어머니가 하는대로 따라 했다. 그 곳에는 인근 동네의 많은 사람들도 와서 모두 그렇게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근처에 있는 애련사와 광흥사를 차례로 들렀다. 몸이 약하셔서 운신이 불편하실 때도 어머니는 법당에만 들면 백팔배를 거뜬히 올리셨다. 그것이 모두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한 어머니의 정성이셨다.

어머니는 늘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소변이 시원찮다고 했다. 우리가 걱정을 하면 여자는 누구나 그런 증세가 있다며 병이 아니라고 했다. 삶을 따라 고향을 떠난 나는 어머니의 건강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냈다. 그렇던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 왔다.

요독증이었다. 경소 심장에 이상이 있었는데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숨겨 오신 것이었다. 의사는 때를 놓쳐서 어쩔 수 없다며 왜 이렇도록 두었느냐고 했다. 폐저린 회한이 무슨 소용이랴,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어머니는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편히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했다. 환청이 아니라 분명한 어머니의 음성이었다. 세상의 어느 어머니인들 다르랴마는 내 어머니는 자식사랑에 일관한 삶이었기에 나에게 있어서의 어머니는 서러운 추억이며 회한의 원류가 된 것이다.

어머니가 쏟은 희생과 봉사에 조금도 보답 못하고 일찌기 세상을 떠나시게 한 죄스러움이 못내 한이 된다. 참회를 해도 영원히 갚을 길이 없을 것 같다.

〈유석초등학교 교감 · 아동문학가협회장〉

뉘우쳐도 갚을길 없으니

북동포 돕기 '한마음'

교계 30여단체·한끼굶기·바자회 등…17일 '단일창구' 발족

북한동포에 대한 불교계의 관심이 타종교에 비해 저조한 것(불교 61.2% 개신교 72.8% 가톨릭 78.5%)으로 밝혀진 가운데 30여 신행단체들이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동포돕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북한돕기운동 단일창구로 '(가칭)북녘돕기불교기구' 준비위원회를 17일 발족시켜 자비동체의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각 단체별로 모금법회 바자회 캠페인과 '한주 한끼 굶기 운동' 등 북한동포돕기 행사일정이 줄을 잇고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는 6월 8일까지 2차 옥수수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모금운동을 편다. 또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17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를 북한동포돕기운동기간으로 선포하고 1억 모금활동에 나선다.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도 하안거결제 전까지 2천만원 모금을 결의했다. 불교문화원(원장 홍무흡)은 5월3일~7일 조계사 경내에서 생활한복바자회를 연다.

이에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비롯 종교 사회 각계인사들은 지난 12일 '북한의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사회각계 인사모임'에서 한주 한끼굶기 운동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것을 호소했다. 또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40여개 통일운동단체로 구성된 민족회의도 10일 서울역 앞에서 '겨레사랑북녘동포돕기 범국민운동' 선포식을 갖고 북한 식량난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도필선 기자〉



첫 OP 점등…"북녘에 자비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북녘의 동포에게 자비를 비춰줄 평화통일기원 OP 연등이 8일 첫 점등됐다. 임진강건너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서부전선 까치봉에서 '우리의 소원'이 합창되는 가운데 불을 밝혔다.〈파주=고영배 기자〉

대북식량 직접 전달 논의

조계종-조불련 13일 북경서 실무회의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13일 북경 오주호텔에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 · 이하 조불련)과 실무회의를 갖고 대북식량 직접 전달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대북식량지원에 따른 전달방법, 시기, 월주총무원장의 방북문제 등 남북간 불교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조불련은 3일 "월주스님이 제기한 기증문제와 평양방문에 동의한다"며 "4월중 북경에서 실무협의를 갖자"고 제의해 왔다. 이에따라 조계종은 자비의 탁발과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성금 가운데 일정액을 오는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남북실무회의에는 능관스님(조계종 사회부장)과 심상련서기장(조선불교도 연맹)을 비롯 양측 실무자 각 1인이 참석한다.



봉축 포스터 보급

봉축위원회는 8일부터 아기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각 사찰과 지방 봉축위원회에 보급하고 있다.

"종단개혁 멈출 수 없는 법륜"

4 · 10 승려 대회 3주년

조계종 4 · 10승려대회 3주년 기념법회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석주스님은 "종단의 개혁은 멈출 수 없는 법륜(法輪)과 같다"며 "개혁하고자 하는 이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심(下心)하기를 바란다"고 법어했다.

이에앞서 월주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일고 있는 '개혁정신의 퇴색'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하여 제2의 개혁불사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를 주관한 94년 개혁 당시 범종추소속 10개 단체는 개혁불사의 흐름을 역행하는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종무행정 파행" 성명

9일 종회의원들의 모임

조계종 종회의원들의 모임(공동대표 정우 종광 성문 지원 현소)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 개혁과 관련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종정스님 사퇴 총무원 집행부 불신 △종단개혁 상실 △직영사찰 등 파행적 종무행정 등이 골자다. 〈관련기사 3면〉

'문화비전 2000' 준비

문체부, 특별운영위 구성

문화체육부는 8일 2천년대의 도래를 1천일 앞둔 시점에서 '문화비전 2000'을 준비하기로 하고 사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4월중 구성될 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비전 2000'을 성안해 10월20일 문화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비전 2000'은 문화 예술 관광 청소년 체육 등 문화복지 시설의 확충과 전통문화의 보존 유지 계승 및 우수성을 전수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교계와 관련있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현대적 개화는 전국토에 산재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문화도시및 전통문화마을조성 및 무형문화재 기법을 세계화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지난 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다시한번 세계에 알린 세계적인 성보 석굴암본존불(국보 제24호)은 한국의 대표적 불상입니다. 현대의 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완벽한 조화미의 석굴암의 구조는 신비함을 더해줍니다.

탑골 미륵골 부처골 냄골 등 40여개의 골짜기와 산줄기로 이루어진 경주 남산은 석불 90여체(軀), 석탑 80여기, 115곳의 절터가 있고, 보물 사적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만도 35점에 이르는, 말 그대로 노천박물관입니다. 곳곳에 모셔놓은 부처님과 석탑, 절터들 사이를 걷다보면 여기가 그대로 불국정토라고 느껴집니다.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돌부처님들이 우리 민족의 얼굴을 꼭 닮았다는데, 정말 그런지 함께 답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의 얼굴—석굴암과 남산 부처님

4월 테마여행—석굴암 · 남산

■ 참가 안내

◇출발: 4월 26일(토) 저녁 10시 · 조계사 앞
◇안내: 정병국연구원(동국대 경주캠퍼스 박물관)
◇회비: 4만원(조식 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입금후 현대불교신문사로 연락바랍니다.

5월 25일 대흥사—해 남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6월 29일 부석사—한국 목조건축의 아름다움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영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주)일양약품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 · 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장애인의 날'에 만난 남강스님 19면
불법에 경제침체 해법있다 14면
기획좌담—"대장경에 새 생명을" 15면

신도 등록 및 교무금 납부 안내

신도증! 참다운 불자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불자들은 일관된 법문과 교육과 수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찰을 재적사찰로 정하여 신도등록을 하고 법회 참석, 신도회 활동, 기도 동참 등의 정기적인 신행활동과 지속적인 수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화합시다. 신도등록을 하시려면 다음의 서류를 재적 사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 비 서 류 : 1. 신도등록서 1부 (사찰에 있음)
2. 사진 3매 (칼라 증명사진이나 반명함판 사진)
3. 교무금 (성인 10,000원 · 18세 미만자 5,000원 · 생활보호대상자 무료)

등록신도에게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회원자격이 주어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신도의 권리 : 1. 관람료 징수 사찰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2. 각종 종단 시설을 무료 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하나의 사찰에 등록하여도 다른 사찰에서 자유로이 기도, 참배할 수 있습니다.

신도등록은 교무금 납부로 완성됩니다.

교무금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포교활동을 위하여 매년 한 번씩 납부하는 조계종 신도의 성스러운 보시금입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모금된 교무금은 재적 사찰의 포교와 신도교육은 물론이고 종단의 포교, 사회, 복지, 문화사업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것입니다.

작년까지 신도등록을 마치신 분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금년도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도등록을 하신 재적 사찰에 본인 신도증을 제시하시고 금년도 교무금 1만원을 납부하신 후 종단 발행 교무금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 교무금 납부에 관한 법 제6조에 의거하여 모든 신도는 금년도 교무금을 6월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람료 사찰을 무료 입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표소에서 본인의 신도증과 금년도 교무금 영수증을 동시에 제시하셔야 합니다.

2541. 4.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포교원

사 설

한국의 '나란다대학' 만들자

중앙승가대가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인되고 숙원이던 김포학사로 이전하게 되었다. 안암동의 학사는 명실상부한 종단의 중심교육기관이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 좁은 공간에 열악한 시설로는, 또 불교학과와 사회복지학과 2개로는 불교를 맡아 이끌어갈 다양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훈련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부대중의 뜻이 결집되어 94년 교육부로부터 승가대 이전승인을 받아냈다.

그 이후 관계자들은 부지를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와 설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원력과 율력의 결과, 3월21일 이전의 첫 삽을 뜬 것이다. 중앙승가대는 2천년까지 학사이전을 마치고 유아관련학과와 종무행정관련학과 등을 증설하며, 대학원과정과 각종 연구소를 확장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 옛날 인도 나란다대학의 명성과 위광을 한국에서 재현하겠다는 건학불사에 뿌듯한 감회와 벅찬 기대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시작인지라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풀어야 할 문제가 겹겹이다. 우선 현실적인 예산문제이다. 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신축기부금 및 후원회비는 거의 다 쓴 상태이다. 종단의 사찰분담금은 약속한 일부만 지원되었을 뿐이고, 두 차례 후원법회에서 약속된 후원금도 거의 들어오지 않은 형편이라 재정은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다. 공사비만 해도 280여억원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참으로 걱정이다.

이번 착공을 계기로 범불교인의 수희동참(隨喜同參)과 무량희사(無量喜捨)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승가대는 14일 후원대법회를 비롯하여 꾸준히 의의를 홍보하며, 다양한 수익사업을 도모해야 할 줄로 안다. 종단 집행부는 이 사업이 우리 불교의 백년대계를 위한 관건임을 자각하고 예산과 인력을 과감하게 투여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근본 문제는 승가대의 청사진이다. 캠퍼스는 교육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계통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지어져야 한다. 승가대 또한 일반대학의 특성은 살리되, 조계종단의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플랜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불교학 외에 문화재학이나 한의학 등 인접학문을 접목할 수 있어야 하고, 종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종무행정을 전담하는 학과도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팔만사천 법문을 뉴미디어시대에 맞추어 정리하고 조직하며 제공하는 관련학과도 필요하다. 즉 장경과 전적을 데이타베이스로 구축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이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도 키워야 한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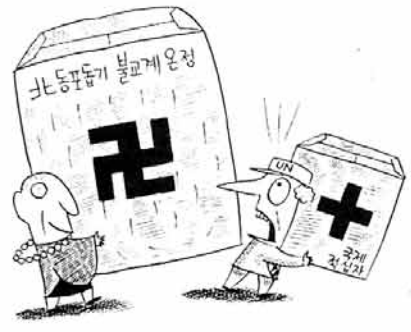
불교는 역사상 어떤 조직이나 체계보다 오래 지속된 보편의 유산이다.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서 소승의 각 부파로, 부파에서 대승의 포용으로, 대승에서 선의 직절과 파격으로 이어지는 불교의 역사는 창조와 혁신을 통한 자기혁신으로 점철되어 있다. 불교는 역설적이게도 기존의 형식과 교리를 묵수함으로써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진취하는 새로운 틀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

지금 불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응전할 지적 제도적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이다. 그 인프라의 중심은 '사람'이다. 중앙승가대는 전통의 정신을 지키며 시대적 사명과 요청에 부응하는 인물을 키우는 큰 도량이 되어야 한다. 대학 재단 이사(理事)와 내외(內外)의 결집된 공력이 절실한 때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이쯤은 되어야…

열린마당

장애인에 관심을

4월 20일은 제17회 장애인의 날이다. '95년 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1백5만3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사회가 산업화 되면서 재해나 사고에 의한 장애인도 날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돕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다. 교계의 장애자 포교현황과 장애인불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장애인의 목소리

"차별대우가 더 불편합니다"
"절에도 경사로 설치했으면"

●앙재원계장(조계종포교원·2급뇌성마비장애)—장애인하면 복지와 연관짓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본다. 복지개념은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는 공동체 의식과 평등정신이 중요하다. 장애인이라하여 결코 차이를 느끼게 한다거나 스스로 느끼는 것은 잘못이다.

장애인포교도 포교대상으로서 중생제도의 의무감으로 했을때 동일한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개성이나 다양성으로 장애자들을 동등하게 인정했으면 한다.

●조대용씨(원심회 회원·청각장애)—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었으면 한다. 특히 직장에서의 차별은 일의 성과에 관계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보다 보수가 미약하는 등 사회적인 평등권이 박탈되고 있다. 복리후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설 수 없다.

그리고 사찰에서도 장애인이 왔다고 우대한다거나 비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의 행동양식이 서있는 만큼 똑같이 대해줬으면 한다.

●임춘빌(혜광맹인불자회)—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들은 오직 감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장애자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사찰을 가기란 힘겨운 일이다. 사회에서는 맹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맹인용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는데 절에서도 장애인불자들을 위해 법당문턱을 낮춘다든지 경사로설치, 방향인도장치 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환(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장애인들을 특수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불성을 지닌 동등한 포교대상으로 대해줬으면 하는 희망이다. 또 불자들도 자선이나 동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단과 각 사찰에서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투자와 포교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앞장서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진철(서울 녹번동·지체장애)—일반 불자들은 부처님이 그리워서 오지만 장애인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모인다. 종단차원에서 장애인을 위한 법회를 개설하면 참석률은 대단할 것이다. 사회와 국가에 우롱당하는 장애인들을 불교계가 어루만져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준영(서울 미아동·뇌성장애)—불교계의 실질적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장애인 불교종합회관을 건립하여 취직, 결혼상담소 설치 의료 재활교육 장애인포교사 육성 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장애인 전용법당 「도봉포교원」



◇작지만 소중한 공간으로 알려진 장애자 전용법당 도봉포교원서 장애인들이 선진스님의 법문을 듣고있다.

운불련-장애인불자회 매달 법회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에 보시행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곳.'

지체장애인 전용법당 도봉포교원(원장 선진·서울 도봉구 도봉 1동 613-1)은 95년 12월 개원하여 매달 1~2회 법륜장애인불자회(회장 유봉근) 80여명과 운불련법륜회(회장 이영균) 30여명의 회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도움을 주고받으며 법회를 보는 공간이다.

운불련 불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장애인불자들을 태우고 법당에 들어오면 도봉포교원 법당은 금새 환해진다. 선진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불법의 진리를 밝히는 도봉포교원은 20평 규모로 작지만 소중한 공간이다.

또 4월 22일 용인 한국민속촌에서 있을 봄맞이 야외법회를 준비하느라 요즘은 법회 열기가 더욱 고조돼 있다.

이곳의 불자들은 △정신혁명을 위한 독경 전법 참회생활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등 참생명을 위한 기도 △남북통일 지역감정해소를 위한 한민족 하나됨을 기도 △지구 환경보호를 위한 기도 △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기도 등 5대 실천강령을 실천하기도 한다. 이런 실천행은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큰 보시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봉포교원 선진스님은 "장애인을 하나의 존엄한 가치로 인식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법회를 볼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며 "앞으로 지체장애인이 편하게 들어 갈 수 있는 1층 법당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원〉

장애인 포교현황

천마재활원 등 시설·단체 25곳
점자불경·시청각교재 마련 시급

"불교계에도 장애인을 받아줍니까?" 인천 정립회관의 한 장애인은 불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불신을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장애인 포교대책은 예산및 프로그램의 부재와 인식부족 등 대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

현재 교계의 장애인시설은 소쩍새마을 천마재활원 치자마을 주몽재활원 룸비니특수아동조기교실 등 16곳이 있으며 단체는 원심회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 혜광맹인불자회 광림사농아포교회 법륜장애인불자회 대광맹인불자회 부산 대한불교장애인 복지협의회 등이 어렵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활동이 가장 활발한 조계사 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최근 청각·시각장애인 포교를 위해 비디오와 슬라이드를 이용한 영상물과 각종 교재제작에 나섰다. 불교문화와 부처님생애를 담은 '산사의 하루' '출가, 새로운 탄생' '우리들의 부처님' 등 3종류의 비디오테이프 6백개를 제작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부족으로 늦어지고 있다.

대한불교장애인포교회(회장 김철환)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회원들이 매주 모여 불경이나 단행본을 점역준비중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사 1명도 상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91년 창립한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는 운영비를 후원금과 회비로 충당하지 못하고 회원들이 대구 갓바위에서 모금한 보시금으로 근근히 충당하고 있다.

대전 연화사(주지 종실)에서 매주 목요일 운영중인 아나율법회는 점자경전을 펴내바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보급은 중단된 상태다.

또한 룸비니특수아동조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계현실은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1회성 법회행사에 그치는 것이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않다. 95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인구가 총 1백5만3천여명이며 이들 가운데 92%가 재해 사고 등으로 발생한 후천적 장애인들로 나타났다.

맹인과 농아 소아마비 등 신체가 부자유한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인식변화와 재활교육 취직 결혼 등이다.

그러나 인적·경제적인 지원이 없는 교계는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은 고사하고 편안한 법회공간,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장애인중 기독교인이 60~7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불교계에 만연돼 있는 장애인을 자비의 마음보다는 전생의 업장때문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에 대한 재해석과 이를 통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92%가 후천적인 장애인점을 감안한다면 다변화 사회에서 장애인 포교의 중요성은 실로 중대하다는 것이 장애인포교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교계에서는 천태종(총무원장 운덕)과 금산사(주지 도영)가 음성과 전주에 설립중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연내 설립될 예정이어서 지역 장애인포교는 좀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원우 기자

축

취 임

변 밀운 스님의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봉선사 대중 일동
봉선사 문도 일동
봉선사 말사 주지 및 대중 일동
봉선사 교구종회 의원 일동
제25교구 신도회원 일동
봉선사 신도회원 일동
봉선사 거사림 회원 이동
봉선사 합창단원 일동
봉선사 청년회원 일동
봉선사 청년회원 일동
봉선사 학생회원 일동

불기 2541년 4월 일
경기도 남양주지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 就任 인사 말씀 ●

歸依 三寶하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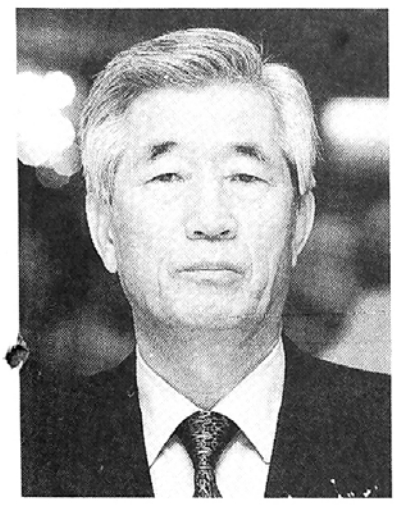
平素 山僧을 아껴 주신 元老스님과 四部大衆께 法體 淸安 하시길 祈願합니다.
山僧이 지난 3月 7日중 總會에서 第25敎區 本寺 奉先寺 住持로 選出되어 3月 18日字로 任命을 받았습니다.
山僧이 宜當 格法한 절차로 인사를 드려야 함이 道理인줄 아오나 前後事情이 如意치 않아 晉山式을 省略하고 簡素하게나마 敎界 言論과 紙面을 通해 就任인사를 드립니다.
山僧은 앞으로 本寺의 先代 祖師와 耘虛 큰스님의 遺志를 받들어 門徒의 和合과 敎區 및 宗團의 發展에 精進할 것을 約束드리오니 변함없는 마음으로 배전의 指導와 鞭撻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山僧과 함께 일 할 소임자를 紹介드리면서 就任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소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副 住 持 : 義正(月庵)
總務局長 : 西蓂(和庵)
企劃局長 : 法海
敎務局長 : 普仁(庵)
財務局長 : 修行
布敎局長 : 浮蓂(和禪)
社會局長 : 法空(彌燈)
護法局長 : 惠林
總務課長 : 知幻
護法課長 : 定印
事 務 長 : 姜魯植

佛紀 2541年 4月 日
京畿道 南楊州市 榛接邑 富平里 255番地

大韓佛敎曹溪宗
제 25敎區 本寺 奉先寺 住持 部林 密 耘 拜禮

"농지법 개정 다음회기 꼭 통과"



수요 인터뷰

국회정각회장 서석재 의원

2월 18일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전통사찰의 환경보존과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의 자주권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특히 조계종총무원과 국회정각회 문체부와의 협조, 여야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이 이뤄져 이후 불교관계 입법활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석재 국회정각회장을 만나 이후의 불교관계 입법활동과 정각회 운영 방침 등을 들었다. 〈편집자 주〉

민족유산보존차원 해인골프장 반대
"초발심 자세로 바른정치 구현 노력"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의 통과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많았습니다.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2천만 불자와 불교계의 오랜 숙원인 전사법 개정을 원만성취하게 되어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정각회가 총무원과 합심으로 법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내에 자연공원법과 농지법 개정이 안되어 아쉽습니다. 다음 회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데….

▲농림수산해양위와 내무위에 계류중인 농지법과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만, 대부분의 전국 사찰들이 민족문화의 유산인만큼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전통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을 해당위원회의 위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무난하게 통과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해인골프장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전사법 개정취지가 문화재보호와 더불어 사찰환경보존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욱이 해인사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과 관전이 있는 곳 아닙니까? 개발로 인해 만에 하나라도 세계문화유산에 악영향을 준다면 법논리만을 앞세워 이 일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불교계뿐만 아니라 학계, 국민들조차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식과 세계인의 이목을 감안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각회가 여당 위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평가하신다면.

▲불교계의 숙원이었던 전사법개정이 초당적인 여야의원들의 합심이 없었다면 가능했는지 되묻고 싶어요. 이것만 보아도 여야 불자의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활동하고 있다는 실증이 아니겠습니까? 정각회원 모두가 불교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당을 떠나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서로의 중지를 모아나가려 했습니다. 여야의 구분논리로 정각회를 바라보지 마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신앙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신념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올해, '명정행 현정로(明正行 顯正露)'를 화두로 시작했습니다. 30여년의 정치일생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바른 수행이 바른 깨달음의 길'이라는 자세로 오늘에 임해왔습니다. 최근의 국민적인 정치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초발심의 자세로 바른 정치를 위해 열심히 뛴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 정치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성운 기자

진상규명 최우선 과제

BBS 새 경영진 구성…의혹 여전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종하스님과 조해형사장의 사퇴,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직무대리에 영담스님(상임이사), 불교방송 사장 직무대리에 서돈각 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전무에 권오현국장(대한불교진흥원) 선임이 지난 4일 열린 불교방송 긴급이사회의 결과였다.

이사회에 이어 불교방송은 후속인사로 지난 8일 영배스님(前 심의실장)을 관리총괄 상무에, 김종기씨(前 기술관리국장)를 방송총괄상무로 승진임명했다.

겉모양새로만 보면 이번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과 관련된 경영진의 퇴진이라는 소득을 얻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선수습 후문책을 내세워온 재단이사회의 논리대로라면 '선수습의 명제'는 미결로 남겨둔채 경영진의 사퇴로 사건을 일단락지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근 구속중인 김현안씨가 검찰에 제출한 탄원서에 따르면 '회사발전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경영진과 김선도의 지시만 따랐을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난 2월초 베트남을 다녀온 김선도씨의 부인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열쇠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김선도씨의 녹취테이프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검찰이 이에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사조치 임시방편책 여론
검찰 관련자 적극수사 절실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공금횡령사건의 확실한 진상규명이 없는 경영진의 사퇴와 새 경영진의 구성은 임시방편적이고 미봉적이라는 지적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교계의 여론이다.

사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무능한 이사진에 대한 전면개편의 목소리가 높았다. 개국이후 95년까지 방송국 결손금이 70억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번도 이에대해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교부산방송 개국성금 관련 5억원 증발 의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방송국비자금과 관련한 외환은행 당좌개설과 용도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다.

방송국 감사기간 동안에도 불교청주방송(4억6천만원)과 불교대구방송(3억5천만원)의 컴퓨터회계기록이 조작되고, 대구지국으로 송금된 8억5천만원등 경리회계 관련문서 위조 변조의 사실도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불자의 성금이 포함된 수십억원의 손실금액을 찾기 위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8일 열린 '불교방송바로세우기 공청회'가 불교방송공금횡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범불교도대책위원회 구성을 대안으로 내세워 이에대한 본격적인 구성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교와 방송의 결합이라는 불교방송의 특수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이번 사건을 전불교계로 공론화시켜 철저히 규명하자는 것이다. 불교방송 새 경영진은 규명을 통한 정상화에 나서야한다는 여론이다.

이은자 기자

"조계종 분위기 심상치 않다"

종회의원 연대 집행부 비판성명 발표
"개혁의지 퇴색"…15일 종회 시선집중



◇조계종 4·10 승려대회 3주년 기념법회가 1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조계종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종단개혁 3년만에 도출된 분위기는 그동안 총무원의 개혁종단운영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종회의원들이 모임을 결성 했다. 더구나 일부 본사주지들도 중앙집권 체제로 교구자율권이 위축돼 시대에 역행하는 흐름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공동대표 정우 종광 성문 지원 현소)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말로만 내세우며 독단과 전횡을 자행하는 현 집행부는 종단개혁의 완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중앙종회는 불교개혁과 발전을 위해 현 집행부의 부당성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20여명의 종회의원으로 결성된 이 모임은 앞으로 공개질의서 등을 비롯 현 집행부의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공개지적할 것임을 밝혀 종단 기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종회의원모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조계종 불화의 진원지는 △종정사퇴 △개혁의지 퇴색 △ 선본사 직영사찰 논란 △종단예산 집행 등이지만 무엇보다 총무원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는 점으로 분석된다. 가장 첨예한 현안인 종정사표를 두고 해석이 상반되는 것에서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총무원은 1백25회 종회에서 총무원장이 밝힌대로 종정스님의 뜻을 잘 받들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종정사표는 총무원에 대한 불만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종회의원모임'은 종정스님이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제도개선과 보완을 집행부에 강조했으나 현 집행부는 개혁종단을 표방하면서 종정의 교시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정스님의 사퇴는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불씨는 개혁의지의 퇴색이라는 점이다. 개혁불사로 창출된 집행부가 그 의지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94년 개혁당시 주체세력이던 단체들이 개혁의 새원칙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한데 이어서 발생해 총무원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회의원모임은 "이같은 종무행정의 파행운영등으로 인해 종단개혁이 무너지고 있다"고 천명했다.

이에대해 총무원측은 "종단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단 일부에서 개인과 사중의 이해에 집착하여 월하종정스님의 사퇴와 선본사의 운영을 자의적으로 해석 유포하여 종단 개혁불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종회의원들이 연대해 총무원을 비판하고 나선만큼 15일 126회 임시종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중근 기자

목어

불교와 '문화비전 2000'

새로운 천년의 막을 여는 21세기는 우리민족에게 어떤 세기가 될 것인가.

"국제화 세계화 속에서 한국문화는 가장 인간적인 문화가 될 것이다. 삶을 존중하는 인간적인 문화이기에 세계적일 수 있다."

최정호교수(연세대)는 지난해 열린 '한국 근대화 100년-21세기를 지향하며' 국제학술회의에서 이렇게 전망했다.

지난 6일 지구촌 곳곳에서는 2000년 1월 1일을 거꾸로 세어가는 'D-1000일'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21세기 새 역사 맞이에 들어간 셈이다.

한국도 뒤늦게 나섰다. 문화체육부는 6일 2000년대 우리문화의 방향과 역할을 제시하는 '문화비전 2000' 구상을 발표했다. 이달중에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문화의 날인 10월 20일까지 '문화비전 2000' 계획을 만든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체부에 꼭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 관계분야의 석학들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불교계 인사들이 빠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노파심이라 하겠지만 88올림픽때 문화축전을 위한 위원회 명단을 재구성했던 기억이 있어서다.

'문화의 세기' 21세기를 준비하는 한국의 문화마당에서 불교의 자리는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민족의 삶속에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불교정신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화비전 2000'의 5가지 목표와 과제(삶의 질 향상, 전통문화 보존과 현대적 개화, 국가의 문화 이미지 일류화 등)를 이루려면 불교문화를 주목해야만 한다. 한국인의 얼굴·한국인의 마음으로 상징되는 불교는 삶을 존중하는 문화,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 인간적인 문화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업이 더 큰 선(善)을 낳듯 문화도 윤회를 한다면 찬란한 문화를 상속받은 오늘 우리는 석굴암 본존불, 팔만대장경, 그리고 반가사유상등 숱한 문화유산을 21세기 성보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

희망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코 한가할 수도 불화(不和)할 수도 없다. 특히 '문화비전 2000'을 주도해야할 불교는 더더욱 그렇다.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

'문화비전 2000' 캐치프레이즈가 곧 전광판에 떠오를 것이다. 역사의 전환점을 향해 하루씩 지워나가면서 무엇을 생각 하시렵니까.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총괄표 불기 2541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모든 행사가 원만히 회향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주관행사	법요식	5. 14 (수) 오전 10시	조계사	
	연등축제	5. 11 (일) 오후 2시	동대문운동장▶종로▶조계사	
	봉축의 밤	5. 9 (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봉축위원회 중앙신도회
	시청앞 점등식	5. 2 (금) 오후 7시	시청앞 광장	
문화예술행사	봉축음악회	4. 9 오후 7시 30분	KBS 홀	보명사
	만등만화공양법회	4. 12 오후 3시	장충체육관	연화정사
	부처님 오시는 소리	4. 21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	수국사
	시낭송회	4. 26 오후 5시	조계사 문화교육관	현대불교문학회
	봉축음악회	4. 29 오후 6시	소공텔 엠버서더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불교판화전	4. 30~5. 6	단성갤러리	한국불교문화원
	이차돈의 하늘	5. 1~5. 6	국립극장	국립극장·조계종총무원
	봉축사진전	5. 6~5. 14	조계사	대한민국 불교사진연합회
	영산대재	5. 12 오후 3시	일산 호수공원	고양시 사암연합회
	고려연등의식재연 (다례부문)	5. 18 오후 1시	덕수궁	차생활예절연구원

구분	행사명	일시	장소	집행처
경축행사	애기봉 OP 점등식	4. 24 오후 6시 30분	애기봉	해병 청룡사
	전방 OP 점등식		백암, 아산, 을지전망대, 백석, 통일전망대, 도라, 멸공, 필승, 종각, 태풍전망대	종단협 군승단
	건강가족 마라톤대회	5. 5 오전 10시	목동 청소년회관	목동 청소년회관
	불교웅변대회	5. 11 오후 1시	조계사	불교웅변대회
어린이청소년행사	연꽃노래잔치	5. 4 오후 1시	동국대 중강당	서울불청
	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	5. 5 오전 10시	목아불교박물관	월간 '불광'
	청소년탑돌이한마당	5. 10 오후 6시	탑골공원	파라미타
	참나청소년 통일환경문화예술대전	5. 18 오전 9시 30분	보라매공원	한국불교청년회
	청소년 종합예술경연대회	5. 25 오후 2시	동국대 중강당	청교련
학술행사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고찰	5. 2 오후 1시	동국대 학술문화관	성보문화재연구원
	민족통일과 불교	5. 6 오후 4시	대불청 만해교육관	전국불교운동연합
	한국청소년문제의 실태와 불교 청소년 복지의 방안	5. 8 오전 10시	중앙승가대 정진관대강당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
	불교의 시각에서 본 생명복제	5. 9 오후 1시30분	동국대 90주년 기념문화관	동국대불교문화원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5. 24 오후 2시	불교회관 1층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송 월 주

"임기내 박물관·교육관·영탑 건립"

봉선사 새주지 밀운스님



"21세기 종합불사 계획을 수립, 봉선사가 미래불교를 펼 수 있는 포교, 교육 등의 중심도량이 되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봉선사 주지로 취임한 밀운스님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물관·교육관·영탑 건립 등을 최우선 사업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 "봉선사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교종본찰"이라며 "앞으로 주말수련, 각종 연수, 사회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관을 설립해 승·속이 함께 신심을 다지고 미래불교를 펼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스님은 임기동안 Δ10년 복원불사 추진 Δ봉일을 대비한 불교중흥의 전진기지 조성 Δ종무행정강화(총무과장, 호법과장 신설) 등의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편 스님은 현 개혁종단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종도들의 뜻에 의한 개혁종단이라면 그동안 징계된 스님들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 해야 한다"며 "만약 감정적으로 징계된 부분이 있다면 사면해야 마땅하고 이것이 바로 개혁종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천명했다. 밀운스님은 1954년 대오스님을 은사로 득도, 총무원 부원장, 중앙종회의원 및 부의장, 봉은사주지 등 종단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중근 기자

"20년 연기 토대 불교영화 만들 터"

출가한 탤런트 보월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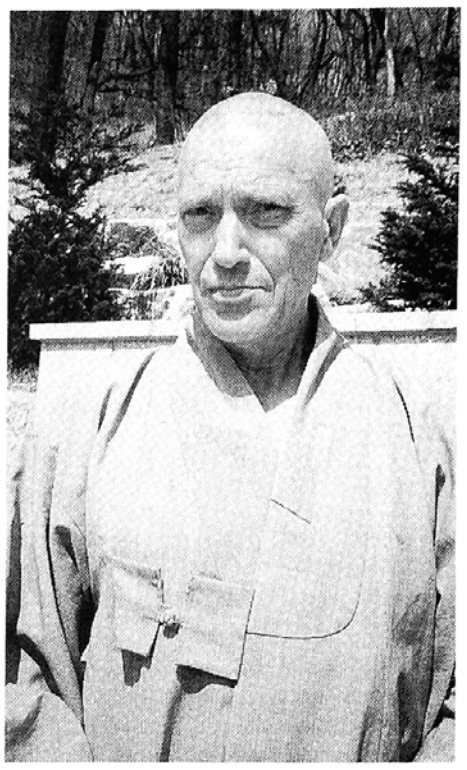


"수행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제 출가했으니 참다운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법을 포교하고 수행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적색지대'(KBS) '아들의 여자'(MBC) '슈팅'(KBS) 등의 드라마에서 개성강한 연기를 보여줬던 탤런트 김영일씨(46세)가 보월(普月)스님으로 불가에 귀의했다.

지난 96년 8월에 소세포성 폐암이 발병해 '슈팅' 출연도 중도하차한 보월스님은 인천 흥륜사 법륜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행자로서의 생활에 임해왔다. "살아오는 동안 출가의 기회가 세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암과 싸우면서 병만 치유된다면 부처님께 모든 것을 바치리라 결심했습니다"고 말하는 스님은 암선고를 받은지 8개월만에 완쾌됐다. 앞으로 경기도내에 3천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대정사'를 건립할 계획인 스님은 지난 20여년 연기경험을 토대로 불교영화를 만들겠다는 원력도 세우고 있다.

강지연 기자



59세의 러시아 행자

Focus

6일 직지사에서 회향된 조계종 행자교육에서 가장 눈길을 끈 행자는 러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불교에 귀의한 명공스님(59, 맥시모프 바실리).

모스크바대학에서 생물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모스크바대학 환경연구소 연구원과 어업연구소 원장 등을 지낸 명공스님이 한국불교에 귀의하게 된 인연은 지난 91년 리투아니아에서 숭산스님을 만나면서부터다. 스님은 96년 10월부터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교차로

정각원서 '불교수행…' 법문



도원 파계사 회주스님은 15일 동국대 정각원(원장 법산스님)의 고승초청법회에서 '불교수행의 핵심'이란 주제로 법문했다.

서울구치소 진관스님 위로



월탄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스님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조계종 종회의원 진관스님을 면회하고 위로했다.

파라미타 충북지부 발족



성타(사)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조계종포교원장)는 26일 오후3시 청주 흥덕사지에서 충북지부 발대식을 갖는다.

中 하남 '황제대제' 참석



도문 대각사 조실스님은 9일 중국 하남성 신정시에서 열린 황제대제(黃帝大祭)에 참석했다.

대만불교와 업무교류



태응 불교TV 사장스님은 9일 심정스님(대만 불광사), 영문스님(불교교육사회센터 관장) 등의 내방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교류 추진을 약속했다.

고금당선원 3년불사 회향



법조 고운사 주지는 18일 고금당선원 3년결사회향법회를 봉행한다.

우국지사 48위 천도재



성우 파계사 주지는 11일 러시아에서 숨진 우국지사 48위의 영가천도재를 봉행했다.

회엄십선계 수계법회



도법 실상사 주지는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을 증명법사로 화엄십선계 수계법회를 연다.

향승 보수교육·세미나



동성 경남 향토예비군 법사단장스님은 5월 8~9일 향토사단 정신교육관에서 향승 보수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한다. 한편 법사단에서는 신규향승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0551)93-3434

서울대 병원에 입원



김지견 전 통불교연구원장은 지난달말 폐렴증세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가료중이다. 병실은 내과병동 11층 203호. (02)708-1549

'서양인의 불교관' 특강



박성배 동국대 석좌교수는 '서양인의 불교관'을 주제로 15일 동국대학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세미나실에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4·19 이야기' 출판기념회



안동일 재가연합 상임대표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4·19-안동일 변호사가 들려주는 4·19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대한민국사진전 입선

옥명수 불교부산방송 사진가회 회장은 제16회 대한민국 사진전람회에서 '동자승'을 출품해 입선했다.

제1회 농아 볼링대회

이태원씨(조계사 원심회원)는 5일 천호동 매카볼링장에서 열린 제1회 농아 볼링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내년 덴마크에서 열리는 세계장애인올림픽대회 예선을 통과했다.

"재적사찰 갖기등 조직강화"

조계종 대구 동화사 신도회장 최동원보살



"지역불자들의 마음을 결집해서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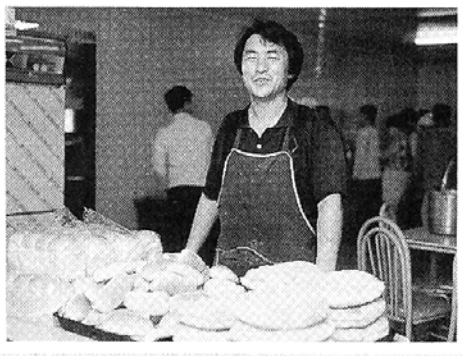
73세로 조계종 최연장 교구 신도회장에 취임한 최동원보살(법장행·제9교구 동화사 초대신도회장)은 화합된 모습을 일궈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당면과제는 느슨해진 조직의 재정비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재적사찰갖기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동화사 통일대불조성 추진위원회 전형위원, 대구상공회의소 여성경영자회장을 17년간 역임한 최회장이 다른 거물급 인사들을 제치고 신도회장에 추대된 것도 조직관리에 대한 탁월한 능력이 인정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최회장은 지난 87년 선덕여왕숭모회를 창립, 회장을 맡고있다. 선덕여왕숭모회는 21일 대구부인사에서 선덕여왕숭모제를 봉행한다.

대구=이윤호 기자



'소쩍새'들이 기다리는 '자비의 빵'

박태영씨 보시행 1년

장애인, 고아, 무의탁노인들이 모여사는 원주 소쩍새마을은 그 어느 날보다 매월 첫째 일요일을 제일 좋아한다. 박태영씨(44·서울 박태영제과점 대표)가 와서 케익·카스테라·팥빵 등 한아름의 빵을 구워주는 날이기 때문이다. 소쩍새 원생들은 이날 그 달에 들어있는 생일을 모아 합동생일잔치도 연다.

우연히 방송을 듣고 소쩍새마을을 도울 길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1년전 빵굽는 일을 하게 됐다는 박씨는 빵을 기다리는 소쩍새 가족들의 티없는 얼굴이 빨리 보고싶어 한달 내내 원주 갈 날을 기다린다고.

〈사진제공=한북스님〉

게시판

♣ 알림



봉축카드판매=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봉축위원회의 후원으로 봉축카드를 제작, 판매한다. 〈사진〉

봉축카드는 봉축캐릭터와 연꽃을 기본디자인으로 5종류가 있으며 장당 6~7백원이다.

카드판매 수익금은 전액 대한불교청년회 만해회관 건립기금으로 쓰여진다.(02)738-3385

혜창스님 초청법회=서울 대각사 용성일요법회는 20일 오후2시 조계종총무원 총무부장 혜창스님을 초청 '부처님오신날과 연등축제'를 주제로 법문을 듣는다.

혜담스님 초청법회=혜담스님(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초청 4월 다보법회가 23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개최된다. (02)703-0108

봄나들이 물품후원=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은 생활보호대상자 무의탁노인들을 위한 봄나들이 행사에 물품(간식, 빵)후원을 받는다. (02)203-3677

정기산행=대구불교산악회(회장 김장근)는 20일 정기산행을 실시한다. 장소는 대전 대둔산이며 동신초등학교 앞에서 오전7시에 출발한다. 회비 1만5천원.

(053)743-2554

의약품보시=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벋산스님)은 생활보호대상자 80세대를 대상으로 '의약품상자 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정내에 항상 비치하여 응급시에 즉시 대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날짜는 17일.

(051)893-5034

♣ 강좌

수화·점자 기초교실=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5월 22일 개강하는 3개월과정의 수화·점자 기초교실 수강자를 모집한다. (02)720-4528

천태사교의=원효사상연구원(원장 심재열)은 18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11시 기신론원효소, 오후2시 천태사교의 강좌를 연다. (02)3672-9097

♣ 모집

물리치료 자원봉사자=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은 노인 및 장애인에게 찜질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325-2161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캠페인 1,455,420원 △서울대지질해양학과 교내 캠페인 1,731,910원 △조계종방생법회 136,000원 △청양신문사 등 8개단체 8,539,000원 △밥 한 공기 나누기 2,487,500원 △이경희 1,000,000원 △윤태임 1,000,000원 △서민숙 300,000원 △한종한 200,000원 △김승진 200,000원 △차혜영 200,000원 △성하성 140,000원 △김기숙 100,000원 △이혜성 100,000원 △김이권 100,000원 △박경학 100,000원 외 86명 〈2일 현재 총182,797,763원〉

- 후원금 접수(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

종정예하의 사퇴는 총무원 집행부의 불신을 의미합니다.

현재 종단의 집행부는 출범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이시며 한국불교의 상징이신 종정예하께서 사퇴를 표명하시어 전종도와 2천만 불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집행부는 이에 대해 종정예하의 참뜻을 받들고자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퇴를 번복하셨다'는 등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일관하여 한국불교의 상징이신 종정예하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결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께서는 개혁불사이후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제도개선과 보완을 집행부에 수차례 강조하시며 개혁불사에 앞장 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스스로 개혁종단임을 표방하면서 이러한 종정예하의 교시를 무시하고 전횡을 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종정예하의 사퇴는 이러한 현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 집행부는 종정예하의 사퇴에 대해 형식적인 방문으로 일관하였으며,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총무원장 송월주스님은 종정예하의 친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다 전종도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뒤늦게 친견을 하려다 거절을 당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부대중의 자주적역량으로 이루어진 종단개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도가 한마음 한 뜻으로 개혁불사를 이룬 것은 불교교단이 화합대중의 전통적 위상을 되찾고 나아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불교의 초석을 다지자는 공통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현재 종단이 송월주총무원 집행부와 몇몇 개인에 의해 전횡적 운영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보게 되니 사부대중과 함께 안타까움과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의 집행부는 우리가 개혁하고자 했던 뜻과 달리 무원칙한 비민주적 종단운영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부패한 과거종단이 보여주었던 비자주성, 부도덕성, 부패상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종단개혁을 열망하는 사부대중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종단예산은 과거보다 10여배 늘어난 200억여원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이 과시형 대규모행사 및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어 교육, 포교, 역경, 사회복지, 문화 등 종단의 발전을 위한 목적사업에는 지원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현 집행부는 직영사찰등 종무행정을 파행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정예하의 사퇴와 종단개혁의 실종에 까지 이른 오늘의 사태는 현 집행부의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종단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선본사등 직영사찰의 파행운영입니다. 직영사찰은 사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의 음성적 자금조성을 막자는 차원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직영사찰은 파행운영으로 인하여 선심성 종권유지자금 및 음성적 자금의 본원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총무원의 예산은 예산회계법등 일련의 종법규정상 종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선본사의 경우 아무런 통제나 규정을 받지 않고 수십억의 삼보정재를 변칙적으로 지출하였을 뿐만아니라 총무원 회계장부에도 기재되지 않았음이 이번 재정분과위원회의 결산검사보고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식적 직영사찰 분담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정이 집행부의 측근이나 송월주원장스님과 관련된 단체에 임의로 지원되었으며 종회의 추경예산결의나 승인을 받지않고 심지어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변태지출까지 드러나 공금유용 및 횡령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직영사찰이 이제 다시 송월주원장스님과 일부 승려의 부정한 사금고 역할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사부대중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진 종단개혁불사가 무너지는 것을 우려가 방관할 수 없습니다.

중앙종회는 반개혁적 집행부에 의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는 이런 반개혁적인 행위는 직영사찰파행운영뿐만이 아니라 종헌종법 위반, 직권남용등 종무행정 전반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불교방송의 대규모 부정사건의 방관 및 은폐로 불교계의 위신이 다시 한번 추락되었습니다. 겸직 금지를 천명한 종헌을 위반까지 하면서 불교방송이사를 맡은 총무원장 송월주스님과 집행부는 불교방송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무관하다는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집행부는 종헌종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무원칙한 주지인사를 하는등 비민주적인 종무행정을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한국불교의 중대한 위기를 자초하는 문제로서 현 종단의 종회의원들은 중앙종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종회는 상정된 안건 20여개중 두 번째 안건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유회를 거듭한 끝에 자동폐회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번종회의 유회가 송월주 집행부의 권위적인 종무행정의 전횡을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어졌다는 분석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중앙종회의원이 나서서 개혁정신을 살려야합니다.

중앙종회는 주요 종책을 결정하고, 종단의 이익을 대표하고 조정하며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종헌상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바로 종회의원스님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종회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전종도와 종회의원스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의 개혁은 구호에 그쳐서는 않됩니다. 말로만 개혁을 내세우며 다시금 독단과 전횡을 자행하는 현 송월주총무원장 집행부는 종단개혁의 완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중앙종회 의원스님들은 진정으로 불교개혁과 발전을 원하는 대다수 종도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중앙종회에서 산적한 현안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진지하게 토론하여 현 집행부의 부당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종회에서 거론될 사항과 현 집행부의 문제점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에게 다시한번 개혁의 불사에 동참하여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계종단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종회의원들의 모임

공동대표 : 이정우 주종광 이성문 최지원 박현소
연 락 처 :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중앙종회사무처

전화 : 중앙종회 사무처 735-5860 · 749-4878
팩스 : 749-4879

탐방 지하철법우회



◇ '지하철 봉축연등달기' 준비에 바쁜 법우회원과 부인들.

"365일 무사고 서원합니다"

매달 2회 가족동참 법회
역사마다 봉축연등 달기
영아원등 방문 자비실천

"1천만 서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날마다 서원합니다."

서울시 지하철공사 직원들의 신행모임인 지하철법우회(회장 신철호·57)의 가장 큰 서원은 지하철의 365일 무사고 운행이다. 3백여명의 회원들은 항상 개방되어 있는 세계유일의 지하법당에 수시로 들러 안전운행과 개인적인 성불을 발원한다.

요즘에는 5월1일부터 15일까지 65개 지하철 역사(驛舍)에 달 봉축연등 만들기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 회원들이 일곱 3조 2교대, 4조 3교대 등 힘든 근무조건이라 부인들이 10여명씩 교대로 나와 연등을 만들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처럼 각종 행사나 법회에 가족들이 항상 함께 참여하는 것이 다른 직장법회와 다른 독특한 점.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108배 정진법회에는 회원들보다 부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참석한다. 또한 매월 둘째주 화요일 오후 7시, 넷째주 토요일 오전 11시 정기법회에는 부부와 아이들도 함께 하는 가족법회가 된다. 법회가 끝나면 다과회를 연 가운데 유정립 사무국장이 회원들의 동정과 인사이동, 경조사 등을 알려 희노애락을 함께 한다.

법우회가 창립된 것은 90년대 중반. 91년 5월 구룡사에서 창립법회(초대회장 심길섭·당시 지도법사 성초스님)를 갖고 사당역 지하3층에 조그만 법당을 마련하기까지는 봉은사 등 주위 각 사찰을 전전하면서 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92년 10월에는 불자인 김진호사장의 도움으로 지금의 종합운동장역사에 30여평 가량의 법당을 새로 마련, 아미타부처님과 후불탱화를 모셔 번듯한 도량을 갖추고 본격적인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 실시하는 지하철 연등달기 행사와 봄·가을 성지순례로 신심을 다지고, 분기별로 왕십리 영아원과 상계동 노인의 집으로 보살행을 펼치는 등 꾸준한 활동으로 직장법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도법사인 화안스님(봉선사 총무국장)은 "음지에서 시민의 발이 되어온 법우회원들은 개인적인 정진과 함께 이웃의 행복을 기원하는 지장보살 같다"고 추켜세운다.

김재경 기자

현직검사가 부처님 말씀 강의

대구지검 김성렬검사 '능엄경' 매주 열강



한때 입산 운허스님 문하 법조인 특유의 통찰력 발휘

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에서는 3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3개월간 현직검사에 의한 능엄경 강의가 시작됐다. 강사는 대구지검 형사2부에 재직중인 김성렬검사(39). 김검사는 "〈반야경〉이 다소 추상적인데 비해 〈능엄경〉은 우주와 중생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번 강의는 현직검사의 경전강의라는 점과 강의교재가 승가에서도 어렵게 여겨지는 〈능엄경〉이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고교졸업후 봉선사로 입산한 김검사는 운허스님 문하에서 약 3년동안 〈능엄경〉과 〈반야경〉 등 소의경전을 두루 섭렵했다. 당시에 받은 법명은 의능(義能). 이후 속가로 돌아온 김씨는 단국대 법학과에 입학하여 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능엄경〉 자체가 나에게는 하나의 큰 화두"라는 김씨는 "〈능엄경〉은 망상을 제거하고 진여로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강조한다.

공부에서 얻은 기쁨을 혼자서만 누리기 아까워 강의를 수락하게 됐다는 김검사는 법조인 특유의 예리한 통찰력에 바탕을 둔 강의를 펼치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장애인의 날' 행사 다채

기념법회·시낭송·걷기대회 등

4월20일 제1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계 장애인단체는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다.

원심회 조계사 원심회(회장 덕신스님)는 20일 오후 1시 조계사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1부 조계사법당 기념법회에 이어 2부에서는 장애인들의 시낭송 악기연주 수화노래와 초청가수 권진원씨의 노래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대한장애인포교회 대한장애인포교회(회장 김철환)는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가 종각역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오후 1시 개최하는 실업과 장애인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걷기행사에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1부 길놀이 노래배우기 수화노래발표 등 문화공연에 이어 제일은행 본점에서 종묘공원까지 가두행진 한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스님)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일 6백32명의 지역장애인들이 평소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선정한 4개 기관을 지역내 명사와 함께 답사한다. 이번 일일체험은 속초KBS 등에서 열린다.



종교계지도자 과소비추방 다짐

종교지도자들은 9일 서울필동 한국의집에서 송태호 문체부장관 초청으로 오찬을 갖고 사치풍조 추방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왼쪽부터 조정근 원불교교정원장, 최근덕 성균관장, 김재중 천도교교령, 월주 총무원장, 송태호 문체부장관, 유호준 한국교회선교단체협의회장, 김옥균 천주교서울대교구총대리주교,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녹원스님 고희기념 논총 봉정법회

영허(暎虛) 녹원스님(직지사회주·동국학원 이사장)의 고희기념 논총봉정 및 축하법회가 10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봉행됐다. 간행위원장인 송석구 동대총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불교의 좌표를 분명하게 제시한 스님의 업적을 치하했다. 이날 법회에는 관응스님을 비롯, 설정(중앙종회 의장) 태응(불교TV 이사장) 녹원스님문도회, 서돈각박사, 이의근 경북지사, 황명수 前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6백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육군 불무리부대 호국황룡사 기공식

육군 불무리부대 신교대 법당으로 사용될 호국황룡사(주지 문무왕법사) 기공식이 8일 불무리부대 헬기 강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불무리 부대장, 석정포교원장 석정, 송암사주지 선명스님, 군불자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6천여만원이 투입되어 오는 6월10일 완공될 호국황룡사는 건평 6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조성된다.



청교련 탑골공원 봄맞이 대청소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5일 탑골공원에서 봄맞이 대청소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1백50여명의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 탑골공원의 독립선언문 비문, 손병희선생 동상, 한용운시비, 3·1절 독립운동기념부조관 등을 청소했다. 또 청소년들은 원각사10층석탑 주변을 청소하며 성보보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동국대 물자절약운동 솔선

물아껴쓰기등 8대강령 선포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가 7일 오후 본관 불상 앞에서 교수·교직원·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아껴쓰기 운동' 선포식을 갖고 물자절약운동을 외치고 나섰다.

"국가현실은 지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회복의 불씨를 대학의 광장에서 점화합시다."

김익기 동국대 교수회장의 '국가경제 비상의 불을 지피자'는 선언문 낭독에 이어 '물을 아껴씁시다' 등 8개항의 행동강령이 제창되고, 행동강령 스티커가 도서관 출입구에 붙여졌다.

송총장 등 교수 및 교직원, 학생들은 선포식이 끝난 직후 여학생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알뜰장터'를 둘러보는 자리에서 헌옷 등을 기증했다(사진). 동국대는 여유공간이 확보되는대로 알뜰장터에 물물교환 정보게시판을 마련, 학생들의 절약정신을 고취해 나가기로 했다.

동국대는 이밖에도 화장실 수압밸브 조절 등을 통해 물사용량을 15% 줄이기로 하는 한편 차량 10부제를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물자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우〉

우리 모임에선

운불련 정총 및 수련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23, 24일 수덕사에서 제2차 정기총회 및 수련대회를 갖는다.

전국 14개 지역 2천여명의 회원중 1백여명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첫째날 총회는 예·결산 등 주요안건의 심의와 사업계획 확정, 유공자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둘째날 수련대회에서는 새벽예불 및 참선, 간월암 방생법회 등으로 심신을 정화하고 전법자로서의 긍지를 다질 예정이다.

MBC불교硏 수덕사 순례

MBC불교연구회(회장 우희근)는 지난 3월 29, 30일 예산 수덕사에서 제4차 명찰순례 법회를 가졌다. 회원 30여명이 동참한 이번 법회는 주지 법장스님의 법문, 참선, 산행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同회는 오는 6월 14, 15일 봉선사에서 창립1주년기념및 수계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교련 진주지부 체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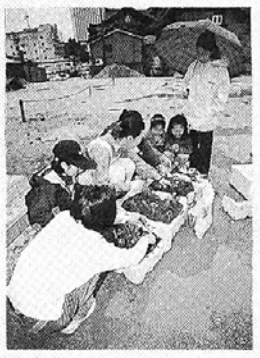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진주지부(지부장 김기원)는 20일 오전 9시 진주 봉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진주지역 불자청소년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을 개최한다.

신입생환영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서는 진주지역 3백여 불교학생회 회원들이 배구 피구 릴레이 2인3각 등의 운동경기와 음악마당을 통해 단합을 도모한다. 또 모범청소년시상식도 갖는다.

해남지역 불자 등산대회

전남 해남지역 불자가족은 10일 두륜산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등산대회를 가졌다.

대둔사 신도회(회장 김재현)소속 회원 등 해남지역 불자 2천여명은 산내 암자인 북암까지 자연보호운동을 펼친후 법회를 열고 청정국토의 완성을 다짐했다.



꽃모종 심는 고사리손

조계사(주지 현근) 마당에 어린이불자들의 고사리 손으로 일군 '룸비니동산'이 조성됐다. 조계사어린이회(지도간사 박성희) 회원 80여명은 6일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과 덕왕전, 조계종교육원 마당에 해바라기 채송화 봉숭아 모종을 심어 화단을 꾸몄다.

공 동 결 의 문

조계종개혁불사의 도도한 흐름이 시작된지도 어언 3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3년전 오늘, 조계종 전종도와 사부대중은 바른 법과 바른 교단과 바른 실천을 위해이곳에 모였습니다. 다급했던 3·29 구종법회와 4·10 승려대회의 험난한 여정에서도 종단의 민주적 운영과 불교의 자주성을 만천하에 천명하는 두가지 원칙만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우리가 '개혁'을 부르짖은 것은 단순히 교단만을 정화하자는 것은 아니었으며, 종단의 외형적인 구조 변화만을 지향하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뼈를 깍고 피를 토하는 비원의 결의로 우리가 외쳤던 '개혁'은 바로 이 세계에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삶의 질서를 제시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이 사바세계를 청정한 불국정토로 만들기 위한 시대선언이요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994년 '종단개혁불사'는 한 낱 교훈의 의미로 남아 있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한국불교의 오늘을 지탱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삶의 과제인 것입니다.

종단개혁과 한국불교 현대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4·10승려대회 3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에게 다시금 개혁의 원칙과 지향점을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종단내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종단내부적으로는 종단개혁의 근본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정경유착의 부패상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민족적으로는 한반도 이북의 우리 동포들이 식량이 없어 떼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넌마치 얽혀있는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994년 종단개혁을 선언했던 초발심으로 돌아가 종단개혁의 원칙과 대의와 포부를 새롭게 결의해야 합니다.

먼저 최근 종도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요구', '종헌개정 특위구성' 등의 주장은 종단개혁의 원칙과 원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종단개혁의 핵심적인 성과이자 종단의 주요 제도적·물적 기반인 종헌과 선본사 등에 대한 논쟁은 개혁에 동참했던 많은 대중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개혁 3주년을 맞이하여 이곳에 다시모인 우리들은 어떠한 연유에서든 개혁불사의 도도한 흐름을 침해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우리는 전 종도들의 전폭적인 동참과 합의에 의해 이룩한 개혁의 성과와 상징들이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현 총무원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총무원은 1994년 개혁불사에 대한 종도들의 염원을 수렴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총무원은 개혁의 원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불교방송 사태, 선본사 문제, 종헌개정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현 총무원이 개혁의 원칙을 가지고 책임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종단 외부적으로는, 현재 한반도 이북의 우리 동포들의 처해 있는 고통에 대해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민족종교의 종교인으로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식량이 없어서 하루하루 사선을 넘나들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잠시라도 주저해서는 않됩니다. 만약 우리의 안이한 판단으로 인하여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한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민족은 지울 수 없는 아픔에 신음해야 할 것 입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기아문제에 대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같은 동포인 남한이 쌀 풍년인데도 북한 돕기에 나서지 않는데 어느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않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종단차원에서, 종교계 차원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동포 돕기에 적극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 3년동안 전종도들의 염원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던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더불어 개혁 3주년을 맞으면서 3년전 오늘, 구종의 일념으로 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우리들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불사'의 숭고한 이름 앞에서는 여기있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있는 누구도 '개혁불사'를 위해 자신의 할 일을 다했노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시금 3년전의 우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맹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3년간의 '개혁불사'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원칙들을 되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껏 보였던 각 단체간의 작은 차이를 다시금 '개혁지속'이라는 큰틀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이 행사가 단순히 3주년을 의례적으로 기념하는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며, '개혁불사'의 숭고한 정신만을 강변하는 자리만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작금의 엄중한 시기를 함께 인식하는 자리가 되고, 앞으로의 일정을 다시한번 공동으로 모아나갈 수 있는 실천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종도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의와 실천을 기원합니다.

불기 2541(1997)년 4월 10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선우도량,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중앙승가대 학생회, 중앙승가대 동문회, 동국대 석림회, 동국대 석림동문회, 대한불교청년회, 전국 불교운동연합,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법회안내

선혜정사(0636)52-3508



◇주지 성원스님

정기법회 매월 초하루(음) 오전10시(3일간)
신도회거사법회 셋째주 일요일 오후2시(격월간)

실상선원(02)499-4442



◇주지 정현스님

화엄신중기도 매월 1~3일(음) 오전10시30분
조상공양 지장기도 매월 15~17일(음) 오전10시30분
감사기도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강좌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오후8시
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토요참아수행법회 매월 둘째주 토요일 21시~익일 4시

직지사 수성구포교원(053)754-8629



◇주지 도일스님

정기법회 매주 목요일 오전10시30분
직지불교대학(초급반) 매주 수요일 오전10시30분
신중기도법회 매월 1~3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동원정사(0346)593-7584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자비행·거사회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9시30분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30분

성흥사(02)336-2052

일반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8시30분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학생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청년법회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7시

법림사(062)234-2207

신중기도 매월 1일(음) 오전10시
마야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 우주는 한집 중생은 한가족

오는 20일은 제17회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도 예년처럼 1백만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겠지만 일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지속적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그들의 자활의지를 돕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 매표소 민원창구 등에서 차례를 양보하는 일에서부터 공공장소에 장애인 주차장·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일까지 불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왜 이들을 도와야 하는지 경전의 말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온갖 중생의 생명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도움을 주려는 자애의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화엄경〉

○… 보살은 자심(慈心)을 지녀서 시방의 사람들과 심지어 벌레의 부류까지도 가없이 여기되 갓난애같이 보아 다 해탈케 해야 한다. 〈태지쇄호경〉

○…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응당 중생을 해치지 않으며, 중생을 애호(愛護)하되 제 몸과 같이 해야 한다. 〈보살행변화경〉

○… 설사 나에게 공양하거나 과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더라도 나에게 베푼 복덕은 병든 사람을 돌본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증일이함경〉

○… 세존이시여, 저는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을 벗어나도록 저의 재산을 다 쓰고, 그들이 행복해지고 나면 물러날 것입니다. 〈승만경〉

○… 병들어 고통받는 환자를 만나거든 부처님 공양하듯 정성껏 간호하세. 하고많은 공덕중에 8공덕이 으뜸이고 그 중에 간호 공덕 최승의 복이라네. 〈범망경〉

○… 현재(現在)라는 나라가 있었다. 한 장로 비구가 위중한 병을 얻고 현재국의 한 절에 누워 있었는데, 역한 냄새 때문에 아무도 돌보려 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손수 그의 몸을 씻어주며 말씀하셨다. "여래가 세상에 온 것은 이와같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에게 공양하면 그 복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될 것이다." 〈법구비유경〉

○… 모든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나 역시 병들었으며, 모든 중생의 병이 없어진다면 내 병도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생사(미혹의 세계)에 들기 때문이다. 미혹의 세계가 있다면 병도 있게 마련이다. 만약 중생들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보살도 병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의 병은 대비심(大悲心)에서 일어난다. 〈유마경〉

○…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를 행하라. 위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와 원한과 적의가 없는 자비를 행하라. 〈숫타니파타〉

○… 우주는 한집 중생은 한 가족. 이래서 우리 중생 아득한 옛적부터 부모 형제 아님이 없네. 〈대승본생심지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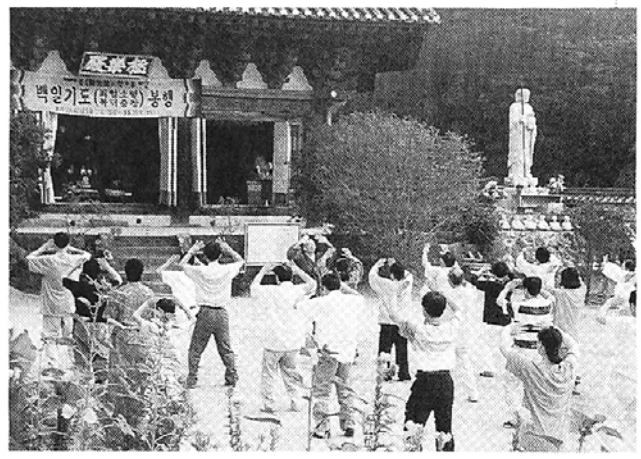
○… 이보오 길손이여, 대비심 일으키어 가여운 중생들을 힘따라 구제하세. 끝없는 육도윤회 영원히 벗으려면 이러한 구호중생 최상의 길이라네. 〈대방광불화엄경〉

○… 불심(佛心)이란 큰 자비심이다.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으로써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이다. 〈관무량수경〉

〈관련기사 2·19면〉

신행수첩

◇보성 천봉산 대원사 정토수련회에서는 매주말마다 주지 현장스님의 지도로 선체조를 익히고 있다.



죽음대비한 수행법 지도

죽음 이후의 삶을 배우고 준비하기 위한 수련을 해보자.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스님)는 수행과 포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수련 프로그램과 '죽기 위한 가르침'이라는 주제로 정토수련회를 열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2시까지 계속되는 수련회에서는 정토수행법, 염불명상법, 자비관, 수식관, 관정기도, 선체조, 육근참회, 맨발산행, 향공(香功) 등 다양한 수행법이 현장스님의 지도로 진행된다.

대원사는 또한 10일이상~30일 미만의 시한부 출가자도 모집하고 있다. 천봉산 대원사는 광주에서 50분, 송광사에서 20분 거리에 있다. (0694)52-1755.

파도소리 관하며 관음기도

고려시대 보조국사의 정혜쌍수 결사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고흥 송광암(주지 일선스님) 봄 수련회.

진리의 섬 거문도에서 파도소리를 관(觀)하며 세속에 찌든 번뇌를 떨쳐 반야의 지혜를 얻고자 마련된 이번 수련회는 좌선의를 비롯 선체조, 용두봉 산행, 관음기도 등으로 이루어진다. 기간은 매주 금~일요일(2박3일)이며, 회비는 없음. (0666)843-8488.

'손짓사랑회' 수화교실

손끝으로 표현되는 언어와 세계를 통해 말못하는 아픔을 공유한다면 우리 사회는 외톨지만은 않을 것이다.

광림사 연화복지원(원장 해성스님)은 동국대 수화동아리 '손짓사랑회' 주최로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27일부터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수화교실은 언어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인연의 장(場)이 될 것이다. 수강료 1만원. (02)202-5831.

소년가장돕기 '작은음악회'

꽃향기가 은은히 퍼지는 봄날. 한편의 고운 선율은 소년소녀가장들을 따뜻한 불음(佛音)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다. 안산불교연합합창단(단장 이영진)에서는 제1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작은음악회를 19일 오후 3시·7시에 성포동 선아유치원 4층에서 안산불교연합회, 안산신문사, 선아유치원 후원으로 개최한다. 또한 이날 참석자 전원에게 찬불가 테이프 1개씩을 증정한다. (0345)84-3095

관악산 자연보호 활동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린 것일 뿐.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맑고향기롭게 운동본부(회주 법정스님)는 20일 관악산에서 매립 쓰레기 수거작업을 벌인다. 이번 행사에는 맑고향기롭게 회원 8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대 입구 주차장에서 오전 9시 출발. (02)741-4696.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며 상상력과 창의력 배양을 위한 글짓기 행사가 있다.

대둔사(주지 천운스님)는 18일 대둔사 유물관 앞에서 해남군 소재 초·중·고, 일반인 대상으로 서산대사 탄신 477주년 제3회 나라사랑 글짓기대회를 개최한다.

'친구와 싸운 일'과 같이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글감을 대상에 따라 세분화시켜 줄 예정이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애향정신 함양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634)34-5502.

구룡사 부처님 오신날 경로잔치 열어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직은 차가운 봄바람이 시린 우리 이웃의 노인들. 사랑으로 마련하는 웃어른 공경의 자리는 부처님의 자비를 더욱 따뜻하게 느끼게 한다.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스님)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95년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인 경로잔치를 준비한다.

서초구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경로잔치는 따뜻한 이웃과 한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다. 27일 오전 11시 구룡사 1층회관에서 열린다. (02)575-7766

나의 수행일기



진성태

청담스님 인과법문 신심 밑거름

의사불자회 동참 … 보현십대행 발원



어린시절 철들기전 가끔 어머님따라 부산 금정산(金井山) 옥천암(玉泉庵)에 따라가서 먹은 절밥이 너무 맛이 있었고 절에만 가면 뭔지 마음이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대학예과때 무척이나 궁핍한 생활을 하며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찾아간 부산 대각사의 일요법회에서 처음 만난 〈반야심경〉은 나에게 무한한 위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주었고 묘한 법열도 느끼게 하였다. 뒤이어 불교청년회에서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공부하면서 초발심을 내게 된 것이 나에겐 본격적인 불교입문이었다고나 할까? 그뒤 불교관계 서적을 닥치는 대로 독파하였고 조석으로 〈천수경〉 〈금강경〉을 독송한 것이 나의 전공인 의학공부에 일심으로 매진할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다.

의대 6년간 그야말로 일심불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오로지 학업에 열중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없었으면 불가능 했으리라. 졸업후 인턴 수련과정중 서울 도선사의 토요정진회에서 일년간 주말마다 한 철야정진은 불교에 대한 나의 신심을 굳건이 하는 큰 계기가 되었고 그뒤 전공과목의 선택에서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정신의학을 택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당시 만난 청담스님의 인과법문과 마음에 관한 진솔한 대화, 그리고 조계사에서 설하신 금강경강의는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다.

도미유학중에는 비록 책으로 만났지만 에릭 프롬, D.J.스즈끼, 크리스마스 험프리 등의 영문서적은 서구의 현대심리학 내지 정신의학자들보다 더 친근감과 매력을 느끼게 했다. 또한 이들의 저서가 다른 동양사상에 관한 서적과 더불어 서구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든든함을 느꼈다.

특히 유학기간중 틈사이 방문한 대도시의 선센터에서 만난 서구인들의 선과 불교에 대한 이해와 수준은 생각보다 높았고 특히 정신의학자들의 관심은 대단하여서 향후의 발전과 전망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

귀국후 이미 타계하신 김종해(金鍾海)선생과 에릭 프릭슨(Erik Frickson)의 인간발달이론(자아발달이론)과 불교의 대승사상과의 접목을 같이 연구했고 선차요법(禪茶療法), 영상요법(影像療法)-불상의 나열(만다라 조성)을 통한 환자의 자각유도 그리고 갈등, 번뇌의 극복·선의 정신의학적 접근 등을 시도하였다.

1970년대 당시 우리 정신의학계는 아직도 서구 심리학에 바탕을 둔 정신의학만을 고집하는 경향이었으나 서서히 동양정신 특히 대승불교와 노장사상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데 한차원 높은 이론을 제공하고 상호보완 내지 궁극적인 목표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고 볼수있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직장법우회 창립, 각종신행단체에의 가입, 불교대학 수학, 의사불자회 창립 및 운영, 불교신도회 참여 등 양적인 발전은 있었으나 향후는 질적인 향상을 추구하면서 전공분야에서의 본격적인 불교사상의 도입과 실천을 위하여 불교사회복지시설, 불교문화회관, 불교병원 등의 설립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겠다. 타종교단체는 이미 사회복지차원에서 월씬 앞서서 나아가고 있지만 불교계는 차제에 각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참여가 요망된다.

화엄사상의 내용이 자비, 무애 및 평등의 정신이라고 볼때 이러한 삼대정신으로 보현보살의 십대행, 즉 예경제불, 칭찬여래,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희공덕, 청전법륜, 제불경세, 상수불학, 항순중생 및 보개회향의 십대원을 세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본인을 포함한 모든 불자의 최종목표가 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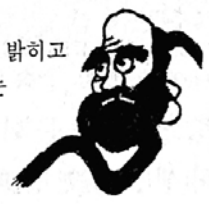
〈진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생활 속의 禪수행을 위한 **참사람결사 학술세미나**

"필경에 어떠한 것이 차별 없는 참사람인고?"

과학문명이 첨단으로 발달하고
물질의 풍요를 구가하는 시대에도
인간이 불안과 갈등, 소외에 시달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보와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회의와 공포는 왜 계속되는가?
환경오염을 비롯한 현대사회의 온갖 병통 -
그 근본은 무엇이며,
근본적인 치유책은 무엇인가?

무명과 법집(法執)으로부터 해방된
본래의 차별없는 참사람!
선·교 양쪽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현대사회에서 참사람을 찾는
수행의 방향을 모색한다.



참사람 結社는
참사람을 자각하고 생활 속에서 함께 수행하는 결사입니다. 삶의 방향과 수행방법을 모색하는 참사람 학술 세미나에 뜻있는 불자 여러분과 각계의 동참을 바랍니다.

○ 법문 :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 주제 발표 :
선에서 본 참사람
- 성본 스님(동국대 불교대 교수)
경전에서 본 참사람
- 전재성 교수(빠알리 성전협회 한국대표)
현대사회에서 참사람의 수행방향
- 김지견 박사(전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토론 : 최성열 교수(조선대 철학과),
고광표 법사(대구 여래포교원장),
김용관 선생(KBS PD, 임제사상 연구)
일수 스님(운문선원)

● 일 시 : 4월 19일(토) 오후 2시~6시
● 장 소 : **고불총림 백양사**
● 문의처 : 백양사 ☎ (0685) 92-7502

● 대한불교조계종 ●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요강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온 어산(범패)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실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어산과 : ○○명
습의과 : ○○명

■ 교육내용
어산과 :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욕, 시식, 상주권공 등 작법(바라무, 착복무동)
습의과 : 불전의식(일용의식, 상용의식, 제반의식)일반
일용의식 - 도량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욕, 시다림, 점안, 방생 등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 교육기간
어산과 : 2년(4학기)
습의과 : 1년(2학기)
본 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 응시자격
○ 종헌,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비구(니), 사미(니)로서
○ 은사스님이나 각 본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서류전형과 면접
■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1통
2) 승적증명서 1통
3) 추천서(은사스님, 또는 본사의 추천)
4) 반명함판 사진 5매

■ 문 의 처 : 02)921-3425
■ 접수일자 : 1997. 4. 9 ~ 4.30(우편접수도 가함)
■ 면접일자 : 1997. 5. 9 (금) 오후2시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개강일자 : 1997. 5월 中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중앙승가대학교 내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교학처 (921-3425)

■ 교육시간표

'97학년도 1학기 시간표		
요일/과정	습의(習儀)과정	어산(魚山)과정
월요일	14:00~15:30(연구원강의실)	19:00~20:30(연구원강의실)
수요일		19:00~20:30(연구원강의실)/작법
금요일	14:00~15:30(연구원강의실)	19:00~20:30(연구원강의실)
	16:00~18:00(정진관 301호)/전체 이론 특강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불자 세상보기

한보청문회 "참회도 진실도 없었다"



◇7일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한보특위청문회에서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이 신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있다.

국회 한보국정조사특위가 7일부터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과 김현철씨 등 41명의 증인과 참고인 1명을 상대로 청문회 활동에 들어갔다. 한보청문회가 시작된 첫날 국민들의 눈과 귀는 청문회를 생중계하는 TV와 라디오로 쏠렸다.

그러나 증인들은 특위위원들의 질문에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재판에 계류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위원들의 자료준비와 질문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동료의원이나 상대정당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담긴 발언을 해 위원들끼리 티격태격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

물론 이런 가운데서도 일부 위원들은

"정경유착 환부 도려내라" 국민여망 무시
30일까지 현철씨등 관련증인 41명 신문

성실한 준비와 설득력있는 논리로 증인을 몰아붙여 여야 중진정치인 정치자금 제공, 정씨의 추가은닉 재산, 전정와대 경제수석 접촉 등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얻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경유착비리인 한보사건의 실체가 어디까지 밝혀질 지 궁금해하면서도 여야지도부 등 국회의원 다수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점을 감안, 실망을 금치 못했다. 청문회 생중계 시청률이 오히려 정규 프로그램보다 낮게 나타났음이 이를 반증한다.

그러면서도 이번 한보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날카롭다. 청문회를 정략적인 요식행위로 넘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정치권은 '결국 시간은 국민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청문회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15일까지는 정씨를 비롯해 홍인길 정재철 황병태 권노갑의원 등 재소자 12명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한다. 이어 30일까지 김현철 박태중씨와 박경식 G남성클리닉원장 등 29명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많은 증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어느 한 사람이 거짓을 말해도 서로 연관을 지니고 있어 앞뒤 안맞는 모순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정치·경제적 지도층 인사들인 증인들에게 국민들은 참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정태수씨에게는 다시 참회의 기회가 주어졌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 깊이 뉘우쳐 숨김없이 고백하라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과를 여러 사람들 앞에 숨김없이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참(懺)이라 하고, 그 죄과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사과하는 것을 회(悔)라 한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참회라 부른다. 참회는 다시 '희망의 사회'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고준환 하나로포럼 공동대표(경기대교수)는 한보사건은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부처님이 가르친 소욕지족(少慾之足)의 삶의 자세가 절실하다. 선을 통해 자각을 일깨우고 참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시 이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화엄경 보현행원품 참회게〉

시론

궤변과 왜곡의 말들

정법의 칼은 어디에 있는가. 지혜의 금강저는 다 녹슬었는가.

참으로 잔인한 세월이고, 질긴 악의 뿌리다.

먼 시대는 젖혀두고 해방 이후만 보아도 악과 거짓은 매시대를 뒤덮었다. 독재와 부패는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었다. 게다가 교만과 무능은 이 시대 권력의 또 다른 얼굴이다.

그런 사이에 오늘, 애써 일군 번영은 속 빈 강정임이 드러나고, 우리의 한 쪽은 주린 배를 움켜쥔 채 쓰러져가고 있다.

부패사슬 어떻게 끊나

탐욕의 입이 있다. 부패한 권력과 짝자꿍이 되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회한 기업가의 입이다. 한번 다물어진 입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그 입가에는 때때로 얄궂은 미소마저 피어올랐다. 진실의 힘을 비웃고 있었다.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 암살부터 광주의 피비린내까지 저들의 입은 철옹성처럼 단단했다. 안두희는 몽둥이에 맞아 쓰러지는 절명(絶命)의 순간을 거짓의 입으로 맞이했다. 학살자의 입은 변명으로 일관하다 이 시간도 철창에 갇혀 있다.



성 낙 주
〈창동중교사·소설가〉

저들 중 누구도 자신들의 과오를 스스로 시인한 경우가 없었다. 이따금 눈물을 흘렸지만 값싼 동정을 구하는 '악어의 눈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에 바쳐진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늘도 수많은 입이 TV 화면에 등장한다. 권력의 입에서 궤변과 왜곡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천민자본주의 입들은 냉소를 흘리고 있다. 참으로 유구한 악과 거짓의 입이다. 저들의 입을 바르게 열게 할 정법의 칼은 어디에 있는가.

저들은 정재(淨財)를 모른다. 보시(布施)의 기쁨도 알지 못한다. 탐욕의 성(城)에 재물을 쌓는 것 밖에 모른다. 그 재물이면 북녘 겨레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비행(慈悲行)도 모른다. 인과(因果)의 법칙도 알지 못한다. 교만의 성(城)에 갇혀 연꽃을 뽑아버리는 것밖에 모른다.

북녘 동포를 향해 미움의 화살을 날리는 것밖에 알지 못한다. 나라와 겨레가 결딴나는 데도 뒷거래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그리 낯선 풍경도 아니다. 10년전에도 그 자리에는 이 나라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이 번갈아 앉아 있었다. 그때도 진실은 멀리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진실의 허약함만은 아니었다. '역사의 힘'이라는 것도 아울러 목격했다. 아수라 같던 '저들'을 역사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끌어냈던 것이다.

올봄도 마찬가지다. 저 오만한 권력이 결국 고개를 꺾었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저들'을 그 자리에 세웠다. 정법과 자비를 유린하던 권력도, 탐욕에 찬 천민자본주의도 함께 끌려나왔다. 저들은 응보(應報)의 심판대에 서서 초췌한 모습을 거짓 미소로 감추고 있다.

미흡한 대로 이것은 역사의 진보이다.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작은 걸음이다. 여기서 지혜를 보태어 한 걸음 더 내딛어야 한다. 일시적인 흥분, 맹목적인 적개심, 체념은 금물이다. 감정적인 '청문회 무용론'이 아니라, 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패의 사슬을 끊도록 해야 한다. 더욱 치밀한 그물망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겨레의 남쪽에선 분노의 한숨이 거리를 휩쓴다. 북쪽에선 기아의 탄식이 하늘로 뻗쳐오른다. 그러나, 그러나……. 체념은 이르다. 약속이 없는 땅에도 봄날이 찾아옴을 보아야 한다. 믿어야 한다. 가지마다 영롱한 꽃그늘이 강언덕에는 투명한 빛과 빛이 어우러진다. 정말 겨울 너머 저 끝에서 아무런 기약도 없었는데 말이다.

지혜의 금강저를 갈자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 진흙의 늪에서 솟아나는 연꽃의 인욕바라밀(忍辱波羅蜜)을 배워야 한다. 지혜의 금강저로 미망의 군상들을 제도해야 한다. 석굴암의 인왕역사(仁王力士)처럼 눈을 부릅뜨고 연말의 대선에서 우선 그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라의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기 위해 또 백성들을 징발하고자 할 때 의상대사가 오만한 권력을 향해 던진 다음의 일갈이다.

"왕의 정치가 밝다면 비록 풀언덕에 금을 그어서 성이라고 하여도 백성들이 감히 넘지못하고 재앙을 씻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밝지 못하다면 비록 장성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재앙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계 금주 파계

산악인 남북교류 청신호

●…아시아산악연맹이 7일 열린 이사국 예비회의에서 북한의 회원국 가입을 승인함에 따라 남북간 산악인 교류전망이 밝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악마라톤이나 암벽등반경기대회의 북한 개최 제안도 나왔으며 오는 11월 테헤란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북한측이 암벽등반대회를 수용할 경우 50년만에 처음으로 산악인 남북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산재병원 개원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직업병 피해보상금을 갹출해 설립한 직업병 전문의료기관 '원진의원'이 8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개원했다. 일반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4개 진료과목을 갖춘 이 병원의 개원으로 640여명의 원진레이온 피해노동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

용산구 '장례도우미' 운영

●…용산구는 지난 1일부터 '장례도우미' 제도를 운영, 생활이 어렵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이나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도와주고 있다. 구는 연고자가 없을 경우 장례를 대행하고 장례비와 조향세트도 지원한다. 종로구도 이달부터 혼자 사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을 위한 '이사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검소복장 방송출연 결의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는 황수경씨 등 KBS아나운서 78명은 7일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 검소한 복장으로 방송에 출연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KBS아나운서실에서 모임을 갖고 앞으로 출연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화려한 의상과 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 지역문화제 지원

●…LG전자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진도 영등제와 진해 군항제, 남원 춘향제, 진주 개천예술제, 충주 우륵문화제 등 5개 지역문화제를 지원키로 했다. LG전자는 지난 90년부터 매년 2억~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문화행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위스키 수입증가율 세계1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스카치위스키 수입증가율이 44%로 세계최고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억6백만달러를 수입해 세계 4위의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대한무역진흥공사는 4일 영국 주류전문잡지 '드링크스 인터내셔널 불레틴' 최근호를 인용, 지난해 주요수입국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여행객 씀씀이 1위

●…뉴질랜드를 찾는 외국인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루 씀씀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질랜드관광국 한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뉴질랜드를 다녀간 한국인 12만 7천여명이 쓴 경비는 1인 1일 평균 3백45뉴질랜드달러(우리돈 20만7천원)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 산악자전거 사고위험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최근 국산자전거 2개와 부품을 수입해 조립한 자전거 4개 등 산악용 자전거 6개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 조립제품이 안전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립제품인 'BITEC City MAN'은 제동력이 떨어져 내리막길 등에서 사고위험이 높았고, 또 'ALTON 300LE'는 넘어지거나 충돌할 염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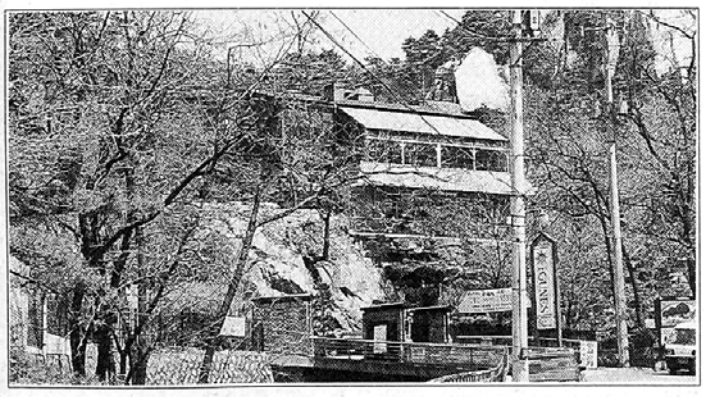
韓銀 임직원 '특혜대출'

●…감사원은 한국은행에 대한 일반감사에서 개인당 1억5천만원 이상을 여러 은행으로부터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은 임직원 30여명을 확인, 이들이 은행에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체조사토록 한국은행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대출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KAL 낙동강에 폐수방출

●…대한항공이 고농도의 페놀류가 포함된 폐수를 김해평야의 농수원인 서낙동강으로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부산지역내 폐수배출업체를 단속한 결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내 대한항공이 항공기 기준치 3PPM을 초과한 페놀류 농도 5,473PPM의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급 선원·포교당 최적지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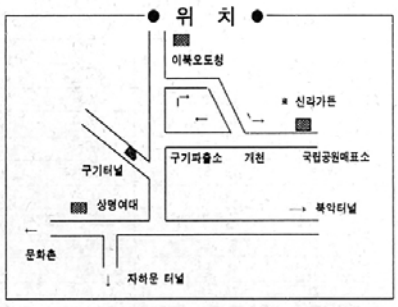




■ 소유토지내역

지 번	지목		평수
종로구 구기동 8번지	대지	878㎡	266평
종로구 구기동 8-1번지	대지	84㎡	25평
종로구 구기동 172-3번지	대지	496㎡	150평
종로구 구기동 172-9번지	대지	496㎡	150평
종로구 구기동 172-4번지	전	331㎡	100평
종로구 구기동 172-7번지	전	1,081㎡	327평
종로구 구기동 172-1번지	전	3,236㎡	979평
종로구 구기동 172-5번지	도	83㎡	25평
계		6,685㎡	2,022평

● 위 치 ●



1. 172-1번지 979 평은 그린벨트임
2. 북한산국립공원 구기분소(매표소)와 붙어있음
3. 정원수 많이 있음
4. 건평은 약 230평(지하1층 및 1, 2, 3층 그리고 펜트하우스)

문의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8번지 연락처 : 02)394-1864/5

● 인 사 말 씀 ●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道賢精舍 會主 閒翁堂 道賢禪師께서 佛紀2541年 3月26日(음2월 18일 지장재일) 오후 1시 17분에 道賢精舍에서 歲壽 87歲 法納 37歲로 入寂하셔서 佛紀 2541년 3월 28일(음2월 20일) 晉州市立茶毘場에서 玉泉寺葬으로 永訣式과 茶毘式을 엄숙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間 多忙하심에도 불구하시고 閒翁堂道賢禪師 榮挽式과 茶毘式에 參禮하여 주신 敎界 元老, 大德스님을 위시하여 四部大衆및 各界 人士諸賢께 眞心으로 感謝의 人事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옵고 人事드림이 道理인줄 아오나 慌忙中 優先 紙面으로 深甚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四十九齊 案內

97년 4월 29일 (음 3월 23일 10시)
48절 및 사찰 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5재에
부도 제막식 및 천도재를 도현정사에서 모십니다.

追 慕 齊

1. 97년 5월 6일(음 6월 30일 오전10시) 삼천포 모충사
2. 97년 5월 13일(음 4월초 7일 오전10시) 삼천포 모충사

百日 追慕齊

97년 7월2일(음5월28일 오전10시) 고성 옥천사 청연암

도현정사 전화 (0595)82-5431
옥 천 사 전화 청연암 (0556)72-0078/73-5741
모 충 사 전화 (0593)34-3450/3380. 전송 34-3850

불기 2541년 3월 일

上佐 承旭. 白山. 墨和. 南一.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③

趙州의 개

趙州和尙因僧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無.

無門曰, 參禪須透祖師關, 妙悟要窮心路絶. 祖關不透, 心路不絶, 盡是依草附木精靈. 且道, 如何是祖關. 只者一箇無字, 乃宗門一關也. 遂目之曰禪宗無門關. 透得過者, 非但親見趙州, 便可與歷代祖師, 把手共行, 眉毛廝結, 同一眼見, 同一耳聞, 豈不慶快. 莫有要透關底麼. 將三百六十骨節, 八万四千毫竅, 通身起箇疑團, 參箇無字. 晝夜提廝, 莫作虛無會, 莫作有無會. 如吞了箇熱鐵丸相似, 吐又吐不出, 滿盡從前惡知惡覺, 久久純熟, 自然內外打成一片. 如啞子得夢, 只許自知. 驀然打發, 驚天動地, 如奪得關將軍大刀入手, 逢佛殺佛, 逢祖殺祖, 於生死岸頭, 得大自在, 向六道四生中, 遊戲三昧. 且作麼生提撕. 盡平生氣力擧箇無字. 若不間斷, 好似法燭, 一点便著. 曰, 狗子佛性, 全提正令. 纔涉有無, 喪身失命.



*어느 승이 조주에게 물었다.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없다!"

*나 혜개가 말한다. "선을 공부하자면 조사가 세워놓은 관문을 뚫어야 하고, 깨달음을 얻자면 모든 생각의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조사의 관문이 뚫리지 않고, 생각의 길목이 차단되지 않으면, 너는 풀잎이나 덤불에 기생하는 허깨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자유를 얻고, 삼의 여섯 도정(六途)과 생명의 네 형태(四生)를 유유히 자적하는 기쁨(遊戲三昧)을 얻는다.

그럼, 대체 '없다'로 어떻게 훈련해야 하나. 심신의 기력을 끌어모아 이 '없다'에 집중하여 흐트러지거나 끊기는 법이 없으면, 촛불에 문득 불이 켜지듯 그렇게 소식은 찾아올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개의 불성, 온전한 제시 분명한 가르침이라, '있다'와 '없다'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네 목숨은 간데 없다.

무문관의 각 칙(則)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 1. 깨달음의 기연이 된 고금의 사례(case). 2. 이를 둘러싼 혜개의 논평과 해설(評唱). 3. 그런 다음 사설을 덧고 노래로 마무리(頌). 이 가운데 2와 3이 순수 혜개의 작품이라 할 것인데 그는 선사답게 되도록 말을 아낀다.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의 분량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제1칙만은 예외이다. 사례 부분을 한 줄로 처리하고, 나머지 공간을 온통 자신의 입설로 감당했다. 혜개는 무자(無字) 화두를 통해 일대사 인연을 마친 사람이니 애정과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도 글에 힘이 있고, 간절하며, 또한 친절하다.

'없다' 이 한마디로 훈련하라

"미물도 불성을…" "허깨비에 홀려있기에…"

나 다름없다. 그럼, 대체 조사의 관문이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없다' 이 한마디가 바로 선의 제일 관문이다. 그래서 선종무문관이다. 이 문을 뚫고 나가면 조주를 직접 만나보는 것은 물론, 역대의 여러 조사들과 손에 손잡고 한 자리에 어울려, 그들이 보는 것을 너도 보고, 그들이 듣는 것을 너도 들을 것이니 이 어찌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니랴.

이 관문을 뚫고 싶지 않은가. 삼백 육십 혼신의 뼈마디와 괄만 사천 혼신의 털구멍을 의문의 덩어리로 뭉쳐, '없다' 이 한마디에 매달리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성성(惺惺)히 여일(如一)하게. '없다'를 공허나 결림으로 여기거나, 또 유(有)와 무(無)의 상대적 공간에서 읽으려 들지 말라. 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삼킨 것처럼, 아무리 토하고 뱉아도 나오지 않는 (의문의) 불덩이로 그동안의 그릇된 지식, 잘못된 공부를 말끔히 떨쳐내라. 이 훈련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너의 마음은 점점 익어 어느날 안과 밖이 하나로 합쳐지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그것은 흡사 벙어리가 꾼 꿈과 같다. 스스로는 알되 다른 사람에게는 전해줄 수 없는 그것. 그 소식이 터지면, 하늘을 놀래키고 땅을 울리며, 관우장군의 청룡언월도를 뺏아 쥔 듯, 부처가 막아서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막아서면 조사를 죽인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

다.

이번 칙(則)의 주인공 조주(趙州 778-897)는 백년을 무르익은 선장이라 고불(古佛)로 불린다.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싱싱하고 새로운 것, 그래서 당신 자신은 이 호칭을 그리 탐탁해 하지 않은 듯하다. 본분 소식의 부사의(不思議)를 깨우쳐주기 위해 고양이 목을 치기까지 한 남전(南泉普願 748-834)을 스승으로 삼고 법을 깨쳤다. 천촌만락 여러 선장들을 심방하며 성태(聖胎)를 장양(長養)타가 늘그막에 조주의 관음원(觀音院)에서 학인들을 제접한다. 〈조주록(趙州錄)〉은 〈임제록(臨濟錄)〉과 달리 차분하고 일상적이어서, 별다른 기벽이나 기특(奇特)을 느낄 수 없다. 그의 성품과 기질 탓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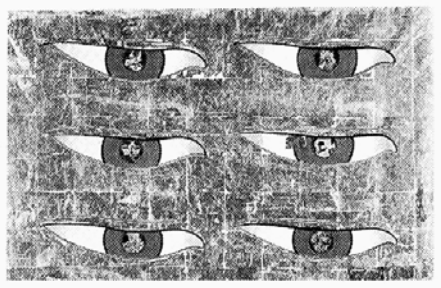
토를 달 공간이 많지 않다. 사례가 너무 간략하여 갈피를 못 잡고 어마지두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혹 도움이 될까 하여 〈조주록〉에 실린 후반부만 덧붙여 주기로 한다. "아니 스님, 부처님께서는 '무릇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은 미물이라 해도 다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셨는데 '없다'니오" 그러자 조주는, "네가 딱하게도 '불성'이라는 허깨비에 홀려 있기에 내가 정신차리라고 뒤통수를 친 거지." (僧云, 蠢動含靈皆有佛性, 狗子因甚麼無. 師云, 爲他有業識性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삼성(三性)

法數로 배우는 불교

〈13〉



◇손연칠 作 '천수천안관세음'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

분별·집착·망상 참모습 보는눈가려

시골의 논둑이나 밭 길을 걷다보면 풀섶사이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에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을 치는 수가 있다.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알고 크게 놀랐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하는 수가 있다.

보이는 물건이나 들리는 소리를 잘못 알아 오해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불교유식사상에서는 이렇게 있는 사물을 잘못 보거나 잘못 판단하는 일에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 의타기성(依他起性), 원성실성(圓成實性)의 삼성(三性)이 있다고 한다. 편계소집성은 존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어 분별하는 잘못된 마음의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썩은 새끼줄이 염주로도 보일 수 있을 터이고 나뭇가지로도 보일 수 있을 터인데 어째서 꼭 뱀으로만 보였을까.

두가지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흔한 대답으로는 "그야 당연히 새끼줄이 뱀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하는 경우이다. 부연하면 썩은 새끼줄이 뱀으로 보인 이유는 새끼줄 자체가 염주나 나뭇가지 보다는 뱀의 모습과 더 가까우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그런데 다음의 대답은 이와는 좀 색다르다.

새끼줄이 뱀인줄 착각한 이유는 "뱀이 새끼줄을 닮아서가 아니라 그 새끼줄을 보고 뒤로 도망친 사람이 뱀을 마음속에 미리부터 저장해 놓았기 때문이다"는 경우다.

이말을 다시하면 아무리 썩은 새끼줄이 뱀을 닮았더라도 그 새끼줄을 바로 본 사람이 뱀이라는 이름도 알지 못하고 뱀이라는 형상도 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두가지 대답중에 불교는 역시 뒤에 나오는 대답을 지지한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중생들이 알으키는 모든 잘못된 판단은 다 자신의 마음속에 저장해 두었던 경험이나 지식에 의지해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뱀은 없고 항상 염주를 그리워 했다면 그 새끼줄을 염주인줄 알고 오히려 집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중생들이 내리는 판단은 늘 그 판단 이전에 자신의 마음이 조건이 되어 일어나는데 마음의 이러한 속성을 의타기성(依他起性)이라고 한다.

의타기성은 물질과 현상 등의 나타남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저장되었던 온갖 가치들의 반영에 의지해서 성립되는 것이다. 새끼줄을 뱀으로 본 것이나 염주로 본 것이나 이것은 모두 제 마음의 그림자며 소산이다.

그러나 새끼줄이 뱀인줄 알고 놀라 물러섰던 사람이 눈을 부비고 다시 보니 이번에는 새끼줄이 뱀이 아니고 새끼줄이었을 때 그는 자신의 착각에 의해 놀랐던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고는 걸음을 계속했다고 하자. 잘못을 잘못인줄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발견한 마음, 새끼줄을 뱀으로도 염주로도 보지 않고 새끼줄이라는 사실 그자체로 보는 마음을 원성실성(圓成實性)이라고 한다.

원성실성은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아 일체존재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마음이요, 해탈의 마음이다. 중생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진실을 가리는 아견과 집착 무지 등에 의해서이다.

의타기성에서 일어난 편계소집성의 잘못을 완전히 알고 원성실성을 회복하는 공부는 사바세계를 극락정토로 만드는 일이며 중생의 삶을 보살의 삶으로 바꾸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불자는 자기가 지닌 어떠한 생각도 고정화시키거나 절대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⑥

석가모니의 수감각

김 용 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⑫



부처님 티끌·먼지등도 수로 표시

'지수' 이용 數의 무한사상 나타내

부처님의 생애를 설명한 설화에는 그의 수감각을 엿볼 수 있는 글이 많이 남겨져 있다. 젊은 싯달타 왕자는 단다비니 왕국의 공주 고바에게 구혼했다.

이때 경쟁 상대가 5명이 있어서 선발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시험 과목은 쓰기, 씨름, 궁술, 달리기, 수영 그리고 수학이었다. 당연히 모든 과목에서 일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시험하는데 대수학자 알세니와의 수학문답이었다.

이때의 문제중의 하나가 "百고티(Koti)(=10^2=10억)보다 큰 수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것이다.

그는$(10^9)\times(10^9)$

$(10^9\times10^9)\times(10^9\times10^9)\cdots\cdots$

라는 식으로 10^{121}즉, 1 뒤에 0이 421개 붙는 수를 생각했다.

다음 문제는 "입자 7개가 극미인 진(塵)이 되고 이 진을 7개 모아(7^2), 그것을 또 7개 모아 날아가는 정도의 애(埃)(7^3), 그것을 7개 모아 토끼의 발자국 한 개 정도의 크기(7^4)……"

이런 식으로

$4\times10^3\times4\times2\times12\times7^{10}$

……

물론 싯달타 왕자는 최고의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 받았다.

수를 안다는 것은 '일, 이, 삼, 사…' 수와 '100은 10의 10개'라는 식의 수들과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을 뜻한다. 어린이들은 물건을 보고 한 개, 두 개 셈하다가도 어느 정도 이상의 수에 대해서는 '많다'고 표현하고 그 이상은 '무지무지하게 많이'라는 식으로 되풀이 한다.

지금도 아프리카, 남미 오지의 원주민 사이에서는 '하나, 둘, 많다'는 수밖에 모르는 부족이 있다. 삼 이상의 수에 대한 이름(수사)도 이들 수의 관계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고대 문명국에서는 얼마 정도의 수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수의 범위는 현실적인 쓰임새의 범위와 관계가 있으며 고대 문명의 정상을 누린 희랍에서는 '만'정도 까지의 수를 알고 있었다. '만'정도의 수도 상당한 상상력을 필요로 한다.

인류 사상 최고의 천재 희랍의 아르키메데스는 전세계 모래알의 수를 셈하는 것을 시도하고 엄청난 수사와 수를 밝혔다.

아르키메데스는 1만의 1만배,

$10000\times10000=100000000=10^8$

즉, 1부터 1억 미만까지의 수를 최초의 '오크타드의 수'(number of the first 'octad')라고 불렀다. 제 2의 '오크타드의 수'는 1억부터 $10^8\times10^8=10^{16}$

미만까지의 수가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는

$10^{8^{8^{8^{8^{8^{8^{8}}}}}}}$

이라는 수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1에서 이 $10^{8^{8^{8^{8^{8^{8^{8}}}}}}}$까지의 수를 최초의 '페리오드의 수'(number of the first 'period')라고 불렀다. 또 $10^{8^{8^{8^{8^{8^{8^{8}}}}}}}$을 바탕으로 제2의 '페리오드의 수'($=10^8\cdot10^{8^{8^{8^{8^{8^{8^{8}}}}}}}$), 제3의 '페리오드의 수'($=10^{16}\cdot10^{8^{8^{8^{8^{8^{8^{8}}}}}}}$), …와 같이 얼마든지 큰 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의 크기를 차례로 나타내어 감으로써 전세계에 흩어진 모래알의 수는 최초의 페리오드 중의 제 7의 오크타드의 1000단위와 같은 수, 즉 10^{21}보다 적음을 아르키메데스는 밝혀낸 것이다.

석가모니의 수 계산 방법도 본질적으로는 지수를 이용한 아르키메데스와 같다. 여기에는 수의 무한이라는 사상이 깃들여 있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수의 명칭, 즉 수사를 새로이 만드는 데 지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명칭이 있는 수는 구성이 가능하며, 따라서 그 존재가 보장받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기호문자는 수열의 무한성이라는 것을 뚜렷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 천재는 '무한'이라는 낱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아니, 일부러 사용을 피했다. 그러나 이 사고는 무한과 유한이 분명히 구별되고 그 사고방식의 연장선상에 무한에 도달될 것임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공식지정업체

최첨단 고품질의 전사방식!

봉축현수막

부처님오신날

2541.5.14 사월초파일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 봉축위원회에서 지정한 현수막입니다.



2541년 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부처님
그 깊은 자비심을 더욱 뜻깊게 전하려는 불교계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봉축위원회 공식지정업체인 불교이벤트하우스가
행사용품에 세심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행사를 위해, 고품질의 전사방식으로 인쇄한 봉축현수막,
품위있는 불교스티커, 등꼬리표, 만불기 등을 봉축위원회가 제정한 EIP에 의거하여
제작보급하고 있습니다.

- 불교이벤트하우스에 지금 바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행사용 아취, 탑 등의 구조물은 상담바랍니다.

■ 봉축행사용품가격표

품 명	규 격	가 격
현 수 막	90×600Cm	40,000원
	90×800Cm	50,000원
	90×1,000Cm	60,000원
	90×1,200Cm	80,000원
플 배 너	A SET(2종)	40,000원(거치대별매)
	B SET(4종)	80,000원(거치대별매)
만불기형 배너	1SET(5개/2m)	20,000원
깃 발	50개 30,000원 · 100개 50,000원	
어 깨 띠	9.5×180Cm	2,000원
스 티 커	1SET(15종)	1,500원
차량용 스티커	개 당	300원
등꼬리표	100개(소 20Cm)	1,000원
	100개(대 30Cm)	1,500원
버 튼	개 당	300원
타이슬링	개 당	1,500원
풍 선	개 당	300원
셔 츠	종류별	6,000원/8,000원/10,000원
점 퍼	벌 당	35,000원
조 끼	벌 당	30,000원
모 자	개 당	3,000원

● 현수막제작시 단체명 또는 사찰명을 삽입해 드립니다.
● 주문일로부터 7일이내에 모든응품이 납품가능합니다.

불교이벤트하우스에서는
이런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교내의 각종 행사의 기획 및 시행
- 각종 종교행사 이벤트 기획 시행
- 서화전등 행사 기획 시행
2) 각종 홍보물 기획 및 제작
- 사찰별 EIP 기획/제작
- 캐릭터 개발
- 사찰 이미지 부각 공익 광고물 기획 /제작
(신도신문/잡지의 기획제작, 사찰용 각종 인쇄물 기획제작)
- 봉축현수막, 행사용 각종 현수막, 배너, 대형 괘불탱화 제작
- 옥내 · 외 광고물 기획 제작 관리,
- 신문 잡지광고 제작 및 포스터 카탈로그 제작
3) 불교 서적 출판
- 불교서적 편집 출판
- 불교관련 전자서적 제작 (CD-ROM TITLE, VCR)
4) 컨설팅
- 사찰의 법률 관련 컨설팅 (불교전문 법률고문 위임)
- 사찰의 세무/회계 관련 컨설팅
(불교전문 세무/회계고문 위임)
- 사찰의 건축 관련 컨설팅 (불교전문 건축고문 위임)

불교이벤트하우스
불교계 Total Consulting Group

본사: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4-22 삼림빌딩 3층 TEL: (02)3785-3381~4 FAX: (02)3785-3385 인사동지사: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3 성지빌딩 503호 TEL: (02)733-4277 FAX: (02)733-4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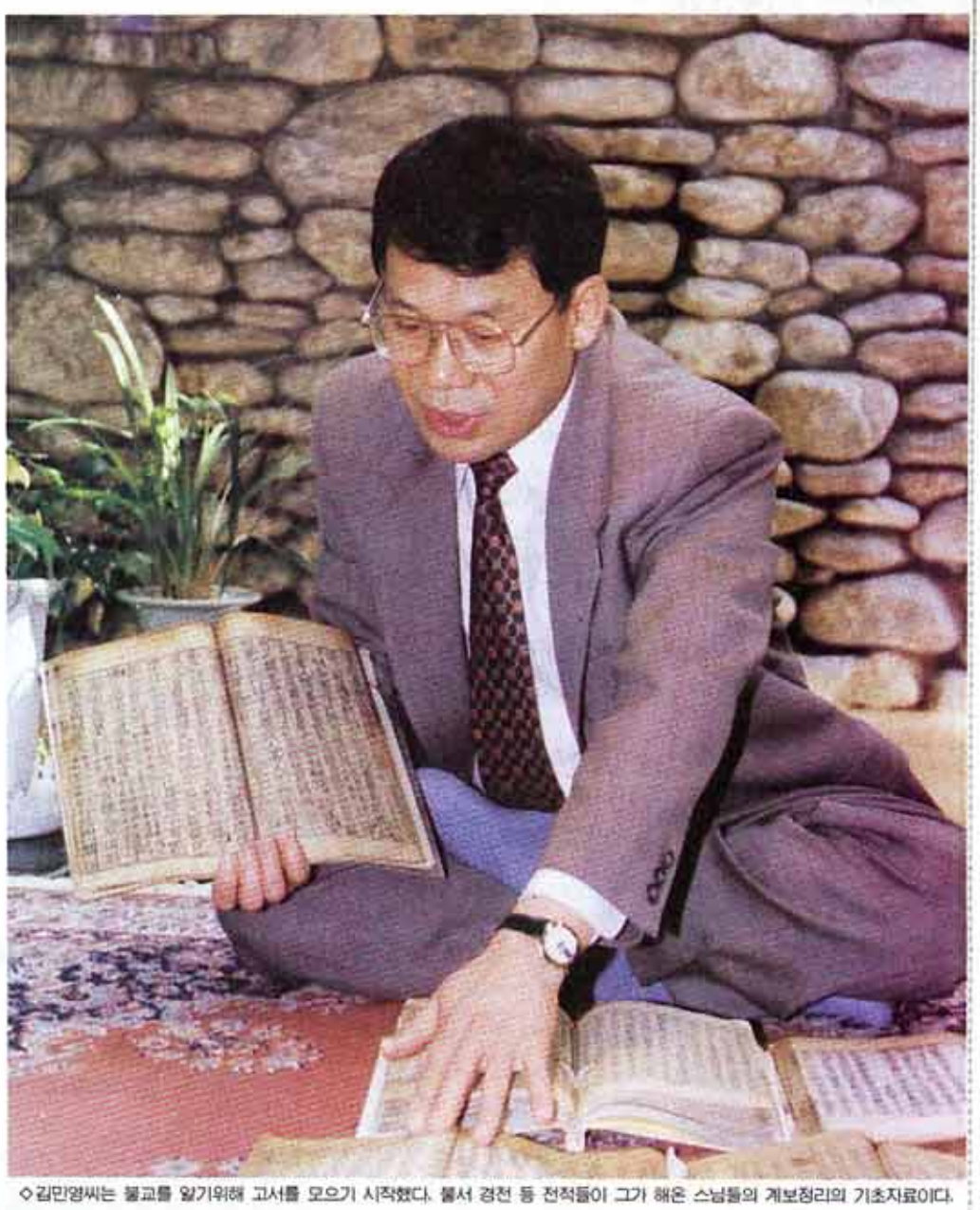
문의 및 주문처:3785-3381(代)

시방세계

해외여행. 항공권. 여권비자 수속
불교성지 순례 전문
(주) 혜초 여행사
인사동 포시즌(조계사옆) 종로구 수송동 91-1 동일빌딩 8층
전화 : 02)733-3900

"1만여 스님 계보 정리했어요"

이·런·사·람 재야 서지학자 김민영씨



◇김민영씨는 불교를 알기위해 고서를 모으기 시작했다. 물서 경전 등 전적들이 그가 해온 스님들의 계보정리의 기초자료이다.

불교관련 고서 3천여권 수집
자료간 상충내용 출처 밝혀
"30년 작업 10년내 완성 목표"

"조선조 억불정책에도 불교를 앞으킨 문정왕후는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면서(1550년) 봉은사에 선종판사로 허응보우(虛應普雨, 1515~1565))스님을 또 봉선사에 교종판사로 천칙(天則)스님을 위촉합니다. 보우스님은 잘 알려진 반면, 천칙스님은 교종을 대표하는 인물임에도 아는 사람은 몇 안될 것입니다. 또 한국불교가 금과옥조로 삼고있는 〈육조단경〉의 서문을 쓴 몽산덕이(蒙山德異)스님, 휴정서산스님에게 법을 전한 조선불교의 정통을 이루게 한 부용영관(芙蓉靈觀)스님, 그밖에 단순히 생멸연대 미상 등의 기록으로만 남겨져 불법을 전등해온 많은 스님들이 역사속으로 사라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대 교류했던 스님들이나 종파들을 비교해 살피면 그 스님들의 자리가 잡아지고 어떤 사회상에서 어떤 위치였는가 확연히 알 수 있게됩니다."

이렇게 시대 종파와 연관해 스님들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는 김민영씨(52. 부산상호신용금고 부회장. 불명·법안). 그는 재야 서지학 연구자로 30년을 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으로부터 인도 28조사 중국6조사 등 33조사를 열거하고 6조 혜능에서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선종법맥을 중심으로 삼아 그 방계 및 문파와 그 밖의 종파의 법맥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 현재 1800년대까지 정리된 것만 1만여명에 달하는 스님(중국 3천5백여명, 한국 6천5백여명)이 등장했다.

스님들의 계보는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졌던 방식대로 모자이크식으로 이어붙여 전체를 한눈에 볼수 있게 작업되고 있다. 전지 10여장을 짜붙인 화선지에 깨알 같은 글자로 스님들의 법호법명이 씌여있다.

그가 직업과는 동떨어진 이 일에 30년을 매달린 것은 순전히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발심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때 용성스님의 제자이던 현공(호호) 윤주일(尹柱逸)씨에게 불교를 배우면서 불문에 들었다. 그리고 불교를 제대로 알기위해서 한문을 알아야한다는 것을 깨닫고 고3 수험생활기간을 꼬박 한문공부로 보냈다.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다시 사학과로 옮겨 더 다녔다. 60년대는 책이나 출판된 경전이 귀했던 때라 고서점을 뒤지는 것이 일과였다. 주로 불교관련 서적들을 삼삼이 살펴고 또 사서 모았다.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당시 '제행무상 시생멸법(諸行無常 是生滅法)'의 뒷 구절 '생멸멸이 적멸위락(生滅滅已 寂滅爲樂)'을 얻기 위해 배고프다는 야차에게 목숨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불법 전승을 위해 구절 한가지에도 목숨을 버릴정도였는데 경전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찢어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고서가 현재 3천여권. 고서들을 모으다보니 자연스레 서지학을 연구해야 했다. 또한 주로 수집된 경전및 불서류는 다른 책과 달리 간기(刊記)가 명시돼 있으며 책이 만들어질 당시 주관했던 스님들이 기록돼있다. 따라서 시대별 지역별로 출판연역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언급되지 않은 많은 스님명호를 접하면서 의문이 발동했다. 불서와 경전출판 과정에서 나타나 있는 스님들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환경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또 누구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 시대와 어떻게 관계지어지나를 풀어야 겠다는 원(願)이 선 것이다. 이때 부터 그의 '스님 역사 바로세우기'는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그에게 화두로 다가선 인물이 몽산덕이스님(123l~미상)이다. 1300년 혜감국사 만항(萬恒)스님에 의해 우리나라서 처음 출간된 덕이본〈육조단경〉의 발문에서 만난 스님은 중국 원나라 스님임에도 고려말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육조단경〉의 발문에는 "몽산스님이 내(혜갑국사)게 보낸 이 책이 너무 환희심이 나서 강화 선원사에서 출간한다"는 내용이 기록돼있다. 몽산스님은 또 일연스님의 제자인 보감국사 혼구스님에게 '무극(無極)도인'이라는 호를 지어준다. 이렇게 선종 구산선문 가운데 가지산파와 사굴산파의 두 거장과도 교류하며, 화엄종계 스님 진각국사 천희스님에게 한몽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불조3경〉(1286년 원본), 몽산덕이본 〈육조단경〉(1300년), 몽산스님의 저서 〈도덕경 직주〉(1527년 단속사중간본)과 〈유가어록〉(1267년 원판을 1300년경 복각본). 김씨가 소장하고 있는 귀한 서적이다.

했다는 기록도 전한다. 조선초 세조때는 〈몽산화상 법어약록〉〈몽산화상수심결〉〈몽산화상육도보살〉과 몽산스님의 스승 환산정응선사 등 네스님의 법어집 〈사법어〉를 간경도감에서 목판 언해본으로 출간한다. 나옹스님도 몽산스님을 찾았으나 입적해 친견하지 못했다는 기록도 나와있다. 이처럼 한국선종이 임제종을 중시하면서도 정작 '임제어록'은 목판으로 출간되지 않았음에도 몽산스님의 어록 저서는 많이 나왔던 것이다.

그가 하고있는 스님들의 계보정리는 일일이 수집한 고서가 기초자료이다. 그러나 "역사기록이란 시대에 의해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그는 바로 이런 점이 작업에 가장 큰 어려움이란다. 자료간의 상충된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일일이 출처를 밝혀 계보에 반영시키고 있다.

고서들을 통해 역사 속의 인물과 법의 정수를 만나 시공을 초월한 대화를 해온 그가 얻은 결론이 있다. 그것은 어느 시대건 자기 문화에 대한 투철한 자각을 통한 자긍심을 가질 때 비로소 문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역대 스님들은 다른 종파 심지어 사상, 문화도 존중하면서 함께 일으켜 왔다는 것이다. 시체말로 시너지의 창출이다. 그리고 법어집이든 경전 출간이든 자신의 것에 앞서 선대 은사스님 것을 먼저 내면서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그는 60세까지 직장일을 마치고 그 시점에서 스님들의 계보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몽산덕이스님에 대해 본격적인 논문을 쓰겠다고 밝힌다.

글: 위영란 사진: 고영배 기자



◇김민영씨가 30년동안 작업하고 있는 스님들의 계보정리표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도 중국의 3국 선종을 비롯한 각 종파 및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연표의 구실도 한다.

스님계보 연구자료



◇1764년(영조40년) 전주 종남산 송광사에서 찍어낸 해동불조원류 원본(사진 왼쪽)과 1978년 경운형준스님이 증보한 〈증보불조원류〉 상·하권(사진 가운데)과 다시 증보 색인까지 나온 〈해동불조원류〉 4권.

불교종파지도 불교선종의 종파에 따른 법맥을 기록한 책으로 조선초 무학대사가 만든 것과 조선 중기 원저 도안스님이 만든 것이있다. 전체가 도표로 되어있으며, 현존하는 것은 1688년(숙종14)묘향산 보현사에서 관각한 도안스님 것이 규장각 도서로 전해진다.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 7불(佛)로부터 시작하여 석가모니부처님으로 부터 인도 28 중국 6조사 등 33조사를 차례로 열거하고 6조 혜능으로부터 우리나라 나옹스님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중심으로 삼고있다.

혜능의 제6세때 임제가 나와서 임제종을 창설하였고 임제후 서산대사 휴정까지 기록됐다. 이 자료에 대해 학계에서 이론(異論)도 제기되고 있다.

해동불조원류 〈사역중화해동불조원류〉, 〈불조원류〉라고도 한다. 책 제목앞에 중화 서역이라 되어 있지만, 주로 해동(조선)의 전등을 서술하고 있다. 사암채영(思庵采永)스님이 1764년(영조4년) 전주 종남산 송광사에서 찍은 것으로 원본은 현재 김민영씨가 소장하고 있다. 본문에는 과거 7불부터 인도 중국의 33조사에서 조선 1760년대까지의 전등이 상세히 기록돼있다. 권말에 지공스님의 행적 무학스님의 탑명이 있다. 또 맨 앞에 당나라 대학자 태원왕발(太原王勃)의 '석가여래성도응화사적기설'도 있다.

〈해동불조원류〉는 이어 경운(耕雲)스님에 의해 1978년까지의 스님들이 더 추가돼 증보판 상·하권으로 나왔으며(불서보급사), 이를 다시 불조원류간행권찬위원회에서 색인 포함해 4권으로(원본복사본, 증보판 상·하권) 출판했다(불서출판사). 출판과정에서 누락된 스님과 오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단청문양 현수막 보급

부처님오신날에 전국 각 사암단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완벽한 디자인과 최고의 제품만을 보급합니다.

봉 불기 2541년 5월 14일 (음)사월 초파일 축
부 처 님 오 신 날
대한불교 조계종 불국사

■ 크기 90cm×6m, 가격 40,000원 / ■ 크기 90cm×8m, 가격 50,000 / ■ 크기 90cm×10m, 가격 60,000원

봉축 꽃 리본

◈ 5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색상은 다양합니다.
(분홍, 꽃분홍, 노랑)

봉축 어깨띠

◈ 100개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색상은 분홍, 노랑, 오렌지



감로기획 ☎(02)723-4306~7, 팩스:(02)738-8682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독신품(篤信品) ②

信使戒誠 신사계성
亦受智慧 역수지혜
在在能行 재재능행
處處見養 처처견양

믿음은 계행이 진실되게 하고
또한 그로써 지혜를 받나니
있는 곳 어디서나 능히 행하고
가는 곳 마다 기뤄진다

比方世利 비방세리
慧信爲明 혜신위명
是財上寶 시재상보
家產非常 가산비상

그것을 세상의 이익에 비하면
지혜와 믿음은 한층 밝으니
재물 중에도 으뜸 보배라
집 재산은 덧없는 것이다

欲見諦眞 욕견제진
樂聽講法 낙청강법
能捨慳垢 능사간구
此之爲信 차지위신

온갖 진리를 보려거든

현명한 이 지혜를 익혀
즐겨 맑은 흐름 우러르나니
솜씨 좋게 물을 긷는것 같아
생각이 들뜨지 않는도다

信不染他 신불염타
唯賢與人 유현여인
可好親學 가호즉학
非好親遠 비호즉원

믿음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어짐과 짝하게 하니
좋아할 만한 것은 배우고
좋지 않은 것은 멀리한다

信爲我舉 신위아여
莫知斯載 막지사재
如大象調 여대상조
自調最勝 자조최승

믿음을 나의 수레로 삼아라
거기 탈줄을 모르거든
마치 큰 코끼리를 다루듯이
스스로를 다루는게 가장 좋다

信財戒財 신재계재
慙愧亦財 참괴역재
聞財施財 문재시재

"믿음은 오로지 어짐과 짝하게 하니
진리 보려거든 간탐과 허물 버려라"

慧爲七財 혜위칠재

설법 듣기를 즐겨 하고
간탐과 허물을 능히 버려라
이를 믿음이라 하느니라

믿음의 재물, 계율의 재물
제부끄러움, 남부끄러움의 재물
들음의 재물, 베품의 재물
지혜의 재물이 일곱재물이니라

信能渡河 신능도하
其福雖每 기복난탈
能禁止盜 능금지도
野沙門樂 야사문락

從信守戒 종신수계
常淨觀法 상정관법
慧而利行 혜이리행
奉敬不忘 봉경부망

믿음은 능히 생사의 강을 건너게하고
그 복덕은 빼앗지 못하나니
잘 단속하여 도둑질을 그쳐라
그것이 소탈한 사문의 즐거움이다

믿음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법을 관해
지혜롭게 자리이타 행하고
가르침 받들어 언제나 잊지말라

無信不習 무신부습
好樂正言 호락정언
如拙取水 여졸취수
掘泉揚泥 굴천양니

生有此財 생유차재
不問男女 불문남녀
終以不貧 종이불빈
賢者識眞 현자식진

믿음이 없어 익히지 않고
가르침 핍박하길 좋아하면
서툰솜씨로 물을 얻으려다
진흙탕을 만드는 것과 같다

살아서 이러한 재물있으면
남녀를 물을 것도 없이
마침내 가난할 일 없으니
현명한 이는 진실을 잘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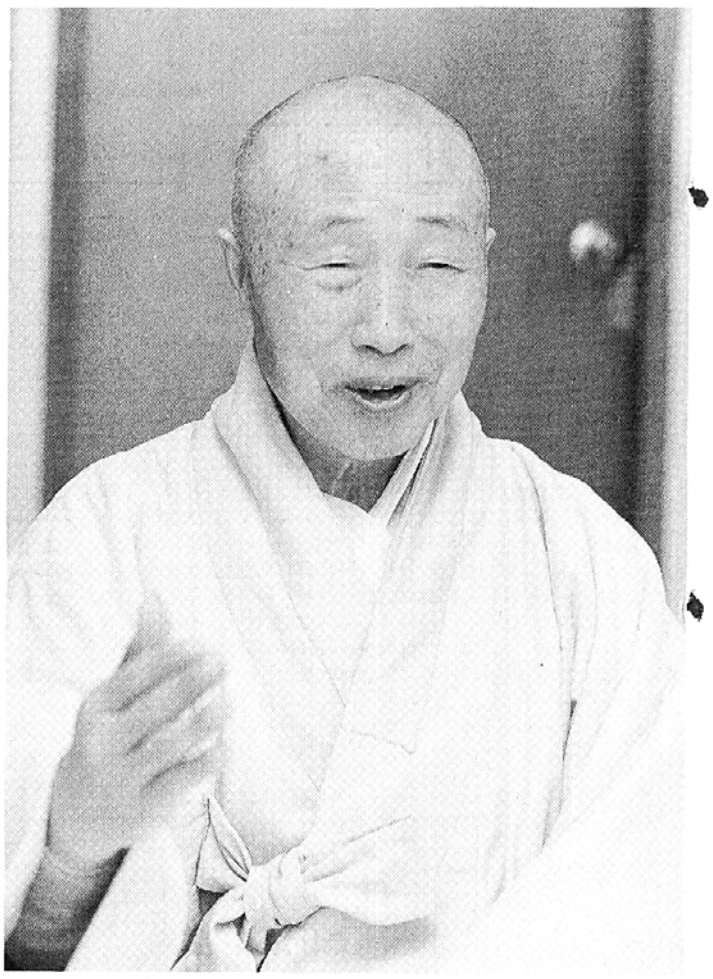
賢夫習智 현부습지
樂仰聖流 낙앙정류
如善取水 여선취수
思令不憂 사령불요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깨달음 향한 수행

성수스님 〈법수선원 조실〉



마음 문 열리면 만물이 禪이고
마음에 부딪치는 모두가 진리
눈 뜨고보면 나무도 道 알려줍니다

한평생 사자후를 토하며 좌우청촉(左右請囑:여러 곳에 청함)했던 성수스님. 20세의 젊은 나이에 의구심과 신념으로 달궈진 세치 혀로 효봉, 성철, 구산, 인곡, 청담스님 등 당대 쟁쟁한 선지식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성수스님은 일흔 다섯인 지금도 "선객(禪客)을 살찌우는 것은 담금질뿐"이라고 말한다.

나는 19살되던 해에 스스로 출가했어요. '스스로 출가했다'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은사스님인 성암스님이 머리를 깎아주기 전까지 전국 사암을 찾아다니며 선지식을 만나려고 노력했으니까 난 그때부터 출가한 것이라고 해야 할겁니다. 그러나 따지고보면 17살때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에서도 출가의 인연을 찾을 수 있어요. 당시 우리 마을에는 유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누가 제일 훌륭한 사람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하나같이 원효대사를 꼽았죠. 지금의 나 성수는 원효스님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원효스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은 유교적인 가풍에 눌려 발설조차 용납되지 않았죠. 2년후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나는 큰 형님에게 내 결심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끈질기게 형님을 설득해 결국 마을 어른들의 허락을 받아오면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10년안에 반드시 도인이 되어 돌아오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출가를 했지요.

집을 등지고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당연히 원효스님 같은 스승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사찰을 헤맸지만 정작 스승의 그림자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범어사에 이르러 나는 울화통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수년간의 만행으로 얻은 누더기를 걸치고 범어사 일주문을 지난 나는 "큰 중 나와라"라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국민의 생활여건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범어사와 같은 으리으리한 대가람에서 지내는 스님들의 모습에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한 스님이 나와 "왜 큰 중을 찾아왔소"하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다짜고짜 "국민 모두가 다 이런 고대광실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대로 된 큰 중이 있으면 당장에 나와 보라!"며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스님은 시종일관 말없이 서있을 따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스님이 바로 동산스님이었어요. 그렇게 인연맺은 동산스님은 내가 천성산 조계암에서 공부를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조계암은 바로 원효스님이 수행했던 토굴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 정식출가를 하지 않았던 나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생식과 면벽수행을 계속했습니다.

조계암 시절 나는 은사이신 성암스님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성암스님이 불러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사느냐"고 묻기에 "영웅이 되고자 여기에 왔는데 가르침을 줄만한 스승이 없어 고민스럽다"고 했죠. 그러자 성암스님은 "자고로 영웅치고 무식한 사람은 없으니 나한테 글이나 먼저 배우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글공부를 시작해 〈초발심자경문〉을 처음 배우게 되었죠. 내 기억으론 '초심'과 '발심'은 이틀동안 배우고 '자경문'은 삼일동안 배웠습니다. 성암스님이 〈초발심자경문〉을 모두 가르치자 내게 49일동안 10만독을 하라고 시켰어요. 말이 10만독이지, 한 책을 그렇게까지 읽은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겁니다. 성암스님의 권유에 따라 나는 40일만에 10만독을 해냈습니다. 십만독을 성취하고 나니까 무언가 어렴풋하게나마 개념이 잡혀가는 느낌이 들었죠. 그후에 천수경도 10만독을 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정성들여 원력을 세우면 하늘도 그만큼 감복하여 그 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자들이 이 마음을 알았으면 해요. 극(極)에 달(達)하도록 지극하면 반드시 원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부가 진전이 있다고 보셨는지 성암스님이 정식으로 출가를 권유해 그때 삭발했습니다. 정식출가한 후에도 조계암에서의 수행은 해방이후까지 계속됐죠. 사실 그때 공부에 얼마나 열을 올렸던지 조계암을 지나가던 약초캐는 사람에게 해방된 사실을 알게되었죠. 이듬해 성암스님이 해인사로 보내더군요.

당시 해인사에는 효봉·청담·구산·인곡스님 등이 계셨습니다. 성암스님의 서찰을 들고 해인사를 찾아가니 글쎄 나보고 공양간에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공부하러 왔다'며 선원에 들어가길 고집했습니다. 나는 결국 효봉스님에게 인계되었는데 스님의 첫 마디는 "요놈, 하심(下心)을 먼저 배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상심(上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심을 알겠습니까"라고 맞받아 쳤죠. 새파란 젊은 승의 당찬 기세를 잘 본 탓인지 결국 "도는 일주일

약력
- 1923년 경남 울산 生
- 1944년 성암스님 은사로 득도
- 범어사 해인사 조계사 주지 역임
- 1981년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
- 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합양소재 토굴에서 정진중

"초발심자경문 40일동안 10만독
천수경도 10만독 하고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생활 속의 불교 (118)

제 집 비워두고 남의 집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밖으로 지팡이를 삼는 게 있으면 절대로 근본이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이 아닌 것을 문이라고 생각해서 열려고 하기 때문이다. 밖으로 지팡이를 삼는 게 있으면 환상이 많이 보이고 누구는 어떻다, 내일은 어떻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다보면 잘못되기 십상이다.

또 밖으로 찾으려 하니까 좋은 이름 찾게 되고 높다는 자리 찾게 되고 훌륭하다는 사람 찾게 된다. 어디 영험한 도량은 없나, 어디 고명하다는 스님은 없나 하고 두리번 거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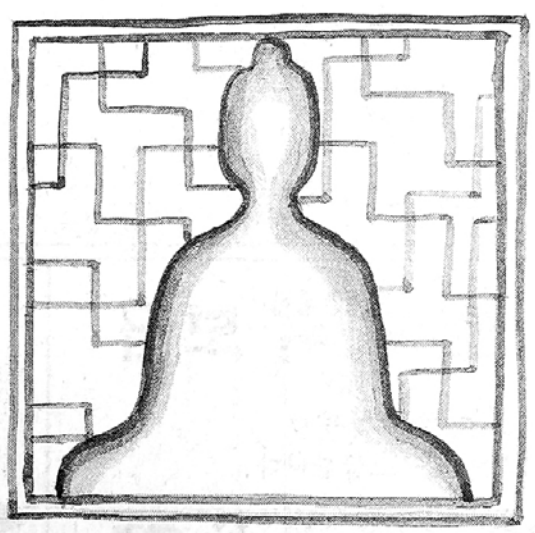
마치 오른 발 왼발이 따로 놀고 눈 귀가 따로 노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나를 섬기지 말고 자성부처에 귀의하라.' 하신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웬만한 불자라면 다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부처님 전에 엎드려 빌기를 멈추지 않는다. 법당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아상을 조복받는 하심의 실천이며 나아가 부처님께 자성부처에 귀의하겠다는 서원을 올리는 것인데도 그런 의미의 절이 아닌 기복의 절을 한다.

비는 것은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자성부처를 믿기는 커녕 그냥 '복이나 좀 내려주십시오'하는 것이니 어찌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하신 말씀에 합당하겠는가. 부처님을 경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근본은 본래 부처'임을 믿어 당당한 주체성을 가지라는 것이다. 바로 대장부의 신앙을 이름이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이다. 유전공학이 이제는 인간까지 복제하는 단계로 가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의 고귀한 삶을 바깥의 형상에 얽매여 놓는다면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번쯤 되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더욱 심한 경우는 점바치의 말이나 부적 따위에 의지하는 일이다. 제 생명 제 가족의 일을 남에게 묻는다는 것부터가 우수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돈 몇푼 벌어볼 요량으로 만들어 놓은 붉은 종이 쪽지에서 삶의 의지처를 찾는다는 것은 단지 외도나 미신에 불과한 일이다.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어찌 그러한 소극(笑劇)에 동참할 것인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의지하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절대신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강요하는 예도 있다. 그러나 어떤 류의 신이 되었든 대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빌고 의지하는 것은 제 집을 비워두고 남의 집에 가서 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남의 목장의 소를 세면서 그 소가 내 목장으로 넘어와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껍데기가 껍데기에게 비는 허수아비 놀음일 뿐이다.

오관을 출중하게 갖추고 태어난 인간으로서 무엇을 향해 떡 해놓고 빌고 밥 해놓고 빌 것인가.

불법을 만난 불자로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어서 부적 따위를 벽에 부치고 몸에 지니고 베개 속에 넣어 놓고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고 하겠는가.

그것은 떳떳한 인간이 아닌 노예의 삶일 것이니 살아서 노예로 지내면 죽어서도 노예, 다음 생애도 노예이기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어찌 인간답고 불자다운 삶이 이러해야 하겠는가.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다 보궁의 열쇠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하셨다. 고로 각자 마음의 능력을 계발해서 당당한 주인으로 살라고 하셨다. 허공을 쳐다보며 '나를 구원해주소서.' 해본들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메아리는 없으니 안으로 불을 밝혀 자기부처에 의지하고 자기부처를 만나라고 하셨다. 심지어는 부처님에게도 의지해선 안된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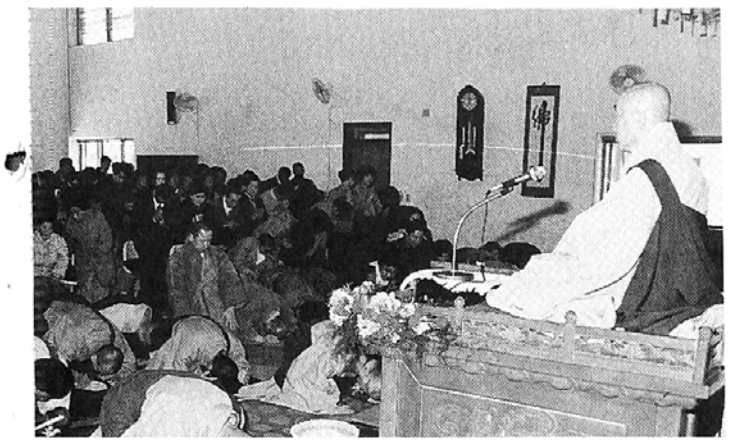
불법은 그렇게 당당하고 성스럽고 광대무변한 주체의 법이다. 밖으로 구원을 갈구하는 약한 법이 아니라 안으로 보궁의 문을 여는 떳떳한 법이다.

그런 불법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지말라. 아까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불법을 더럽히는 일에 뛰어들것인가. 그 업보를 어찌 감당하려고.

협찬 : 주 인 공

큰 스님 수행한담

下心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94년 해군사관학교 법당 호국사에서 법회에 참석한 생도가족들에게 법향을 전하고 있는 성수스님.

자연은 남의 탓 안하고
자기걱정만 하기 때문에
6개월만 살아도 오롯이 익고
사람은 60년을 살아도
제 역할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문수보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끊임없이 참구하세요

만에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효봉스님의 허락을 받고 상선원인 태극당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선방에서 주리를 튼지 6일만에 나는 '천하의 만물은 무비선이오 만상은 무비도'(無非禪 無非道)라는 개오를 얻고 효봉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효봉스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해버리더군요. 나는 '무비선 무비도'를 들고 하루에도 수차례 효봉스님의 경계를 넘나들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모름지기 근기있게 매달리는 근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차리는 '법거량'과는 다릅니다. 바로 부딪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도를 닦는다고 면벽을 하고 묵묵히 앉아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도를 깨우치는 데는 말과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이 척 열리고 보면 천하 만물이 선(禪) 아닌 것이 없고 세상의 만가지 일들이 다 도(道) 아닌게 없습니다. 는을 뜨고 보면 나무와 돌도 도(道)를 알려주고 밥솥도 도를 알려주며 발길에 차이는 게 모두 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부딪치는 모두가 진리요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것이 문수보살입니다. 귀찮은 사람이 없으면 내 정신력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초도 늦추지 말고 용기와 분심을 내어 수미산을 뛰어 넘어야 비로소 도(道) 맛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목수를 찾아야 하고 글을 배우려면 학자를 찾아야 하듯이, 도를 닦으려면 우선 명안종사(明眼宗師)를 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인사에서 어느 법회 때 일입니다. 효봉스님은 법석에 앉아 대중들에게 대뜸 "문수아! 부처를 고아 대중에게 공양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한참후 "대중은 부처를 곤 맛이 어떠냐"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법회장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효봉스님은 그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라고 호통쳤습니다. 대중맨 끝자리에 앉아 있던 나는 벌떡 일어나 "효봉은 무슨 맛인지 말해보라"고 반문했습니다.

효봉스님은 당시 대단한 선지식입니다. 이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식을 구하는 이는 모름지기 천길 낭떠러지를 뛰어내리고 만길 절벽을 오를 수 있는 기백을 가진 새끼 사자가 되야한다는 겁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려면 부처를 잡아 먹고 선지식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기상이 있어야 깨칠 수 있습니다.

선객(禪客)이 찾는 깨달음은 범부로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수도없는 고비를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조사가 간 길이 바로 이 고비입니다. 이 길은 갈수록 높아가고 깊어만 갑니다. 그러나 등이 휘고 간이 타는 구도의 장정에서 수행자는 거침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불조(佛祖)를 넝름 잡아 삼킬 수 있는 거침없는 사자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깨달음을 향해 내딛는 불같은 '기상'은 '하심'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효봉스님도 평상시에 늘 강조했습니다.

23세 남짓때 바랑을 걸치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꼬마가 "저기 중 봐라"라는 아이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지나치리만치 기고만장했어요. 조금만 끌어주면 금방이라도 깨칠 것 같은 자신감이 넘쳐났었지요.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한마디가 갑자기 내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나를 보라니 내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끓어 올라 안으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

고은 불교대하소설

쌀이 실려온 배



이제 우녀는 혼자만의 나날을 살고 있었다.

그동안의 처소들이야 다시 세울 수 없었으므로 그는 생각 끝에 섬 중턱의 그다지 깊이 들어가지 않은 바위굴에 널판과 낙엽 등속을 두껍게 깔고 그곳으로 침구나 옷가지 그리고 살림살이 도구들을 옮겨놓았다.

그 바위굴 서쪽 모퉁이에 단단한 참나무를 괴어서 해우소(解憂所)도 마련해 놓았다.

거기서는 저 아래쪽의 생활에서 보던 바다가 쑥 자라나 수평선이 훨씬 높이 올라와 있었다.

여름이 다하는 하늘은 마치 극약(劇藥)과도 같은 풍계구름을 여기저기 성대하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우녀는 그런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는 한편 그동안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마지막 매미소리 쓰르라미소리의 그 강렬한 소리를 실컷 듣는다는 실감에 쌓여 있었다.

"참 잘도 우는구나… 저것들도 세점(三點)이 있다가 그것을 버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틀림없지."

오랜만의 여유있는 독백이었다. 아니 그와 그 자신 사이의 대화였다.

'세 점'이라 한자 마음심(心)자에 있는 세 점을 뜻하므로 마음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고 언제가 인담이 알려준 적이 있다.

알음알이란 이렇게 학습보다는 들은 풍월 쪽이 더 또렷또렷 기억 속에서 돋아나오는 것인지 모른다.

매미소리는 그 소리에 어떤 뜻이 있든 없든 무작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소리는 마음이기보다 그 마음이 없는 경자에 가까운 노릇이기도 하였다. 무심(無心)이란 바람 한 점 없는 호수가 아니다. 비록 그런 호수 위로 솟아올랐다가 다시 들어가는 한 마리 고기의 첨벙! 하는 소리까지도 무심일 터이고 바람 불어 물결이 부산하게 이는 것도 무심일 터이다.

"그놈들 공부 잘한다… 나도 공부나 할 일이다."

우녀는 혼자 바위굴 안으로 들어가 어느새 점든 그 굴안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도 넣지 않고 앉아 있었다.

숨이 고르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였다. 숨이 곧 우주의 뜻이 아니던가.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은 여름 막바지의 사납기까지 한 매미소리는 굴안으로 그 일부분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를테면 그런 매미소리가 우녀의 식구이기도 하고 새삼스러운 무정(無情)의 도반이기도 하였다.

아니, 매미인들 어찌 무정의 생명만이겠는가. 그는 자난시절 예성강 벽란도나 루를 띄우는 동안에도 "너 같은 년은 매미가 아니라 매미 벌레처럼 차라리 땅속에 묻혀서 사는게 좋겠다"라는 봉노방 아낙네의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핀잔은 차라리 아낙네 자신의 기구한 삶과 우녀가 밥 한 덩어리를 구걸하는 일을 아울러 자조하는 뜻이기도 했던 것이다.

과연 매미는 그것이 아직 유충(幼蟲)일 때는 땅속에서 7년정도, 아니 어떤 매미 유충은 16년이나 17년까지도 보내다가 땅위에 나와 한 여름을 살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름 열마동안의 삶을 위해서 실로 길고 긴 인고(忍苦)의 시간을 지냄으로써 땅 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도 우렁찬 소리, 끈질긴 소리, 멈출줄 모르는 소리로 울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지진의 기운은 더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무욕도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섬 자체의 일상으로 들어가 있었다. 벌써 섬 전체의 나무잎새들과는 달리 햇볕이 강하게 내리꽂히는 언덕의 담쟁이 잎새나 옻나무 잎새는 붉은 빛깔을 띠고 있었다.

우녀는 시간을 정하는 생활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야말로 배가 고파서야 아주 적은 양의 생쌀 반중으로 배를 채워주는 일을 어렵사리 계속하게 되면 몸 속의 위장이나 소장 대장 따위도 그런 사정에 맞게 작아나 줄어들었는지 그만큼 공복감이 줄어들었다.

그는 그 자신의 몸에 저으기 고마워하였다.

부처님은 가야의 고행 당시 좁쌀 몇알을 하루의 끼니로 삼아 해골 형상이 되지 않았던가. 그런 고행에 견준다면 아직 쌀 반줌 미만이야 아주 넉넉한 밥이었다.

우녀는 차츰 소금도 삼가기 시작하였다.

소금은 파도지락이 흙어간 바위등성이에 하얗게 깔려있기도 하거니와 바닷물 자체가 소금이기도 하다. 그런 것을 몸속에 넣지 않게 되자 차츰 우녀의 몸은 가벼워졌다. 훨짝 개인 날의 새 날갯속 깃털처럼.

우녀는 낮과 밤의 운행에 따라 사는 일조차도 그것이 천지 우주의 이치라기보다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일, 즉 자연이 아니라 인위(人爲)의 일이라고 여겨졌다. 그 때문인지 그는 한낮에도 시원한 굴 속 아니 어둑어둑한 굴속에서 아주 잠자기 좋은 환경을 아깝게 허비하지 않는 것처럼 실컷 자기도 하였다.

그렇게 자고 나면 벌써 밖의 바다는 어둠이 어느 곳 하나 내버려두지 않고 골고루 그 어둠의 자비를 베풀고 있었다.

그런 잠 속에는 우녀의 정신상태가 치열한 수행의 지혜나 어리석은 지난 날의 범속이거나를 막론하고 이따금 꿈도 꾸는 것이었다.

그 자신이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몸으로 바뀌기도 하는 꿈을 꾼 뒤 깨어나서는 무심코 배꼽 아래에 손을 가져가보기도 하였다. 혼자 쓰겁게 웃었다. 꿈을 깬 뒤에는 여전히 여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화경)은 그 경전이 이루어진 후대의 사상을 담고 있어서인지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얼마든지 해탈의 힘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고대인도의 마누법전(法典)이 말하는 바, 여자는 아비에게 복종하고 시집가서는 지아비에게 복종하고 어미가 되어서는 자식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 철저한 성차별에 견주면 법화경의 해탈 취지는 놀라운 것이다.

하지만 이 경전도 그런 여자의 해탈은 그 여자가 남자의 몸으로 바꿔져야만 실현된다고 토를 달고 있으므로 아직도 마누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도대체 해고적 도계사회는 언제 사라졌단 말인가. 그런 모계사회가 가부장사회로 바뀐 것은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이 45년동안 말한 자비란 가부장의 것인가? 남성의 것인가? 아니다. 그렇다면 모성의 것이고 여성의 것인가?

부처님은 장차 올 세상은 이런 자비의 모성사회를 꿈꾸었는지 모른다.

우녀는 꿈 속에서 오랜만에 인담을 만날 수 있었다. 인담선사는 우녀에게 어떤 남자의 우위도 사양하고 거의 우녀를 스승으로까지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하심(下心)의 관행으로 무욕도의 수행을 아무 탈없이 이어갔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인담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녀의 손을 꼭 쥐고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 꿈은 길었다. 꿈 속에서 인담이 떠났다.

섬의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떠나는 광경이 꼭 생시 그대로 실감이 났다. 꿈을 깨어 인담이 쥐고 있던 손을 펴보니 그 손안에 쌀 한 줌이 있었다.

우녀는 바위굴로 처소를 옮겼다
무심한 그의 마음에
화두가 들어와 있었다



꿈은 꿈이 아니었던가 인담이 쥐고있던 우녀 손 안에 쌀 한줌이…

우녀는 북쪽 선착장 쪽을 보고나서 눈을 씻고 다시 보았다. 배 한척이 턱 하고 그곳에 매여 있지 않은가. 그것은 때배 따위가 아니라 어영한 한 폭짜리 돛배인데 돛은 내려져 있었다.

꿈 속의 인담이 타고 떠났던 그 배와 같았다.

우녀가 살펴보니 배는 닻이 내려져 있고 밧줄이 선착장의 뾰족한 돌에 매어져 고정되었다. 그것에 매던 말뚝은 지난번의 지진 때문이었는지 큰 비때문이었는지 어디론가 떠내려 나가고 없었다.

"어떤 배인지…."

그는 머뭇거리다가 그 배에 올라갔다. 배의 선창 안은 두꺼운 덮개가 의외려 있었다. 그 덮개를 조금 걷어보았다. 쌀이었다.

"이럴수가!"

우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덮개를 바로 덮어버렸다. 그런 다음 그 배에서 재빨리 내려섰다.

행여나 이 일대 수적들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굴안의 처소로 돌아와서도 배 생각 때문에 마음 속이 한가할 수 없었다.

그는 실컷 잠을 잔 뒤이기도 하지만 난데없는 쌀 싣은 배 때문에 그냥 굴안에만 있을 수 없었다.

벌써 별이란 별은 다 나타나 제 빛을 마음껏 빛내고 있었다. 어떤 별은 다른 별과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 진작 음력 칠월칠석은 지났으므로 견우성이나 직녀성의 그 절절한 만남은 없다.

그 견우성이나 직녀성의 별빛들도 서로 멀리서 빛의 이야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덮개를 조금 걷어보았다. 쌀이었다.

"이럴수가!"

우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덮개를 바로 덮어버렸다. 그런 다음 그 배에서 재빨리 내려섰다.

행여나 이 일대 수적들의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굴안의 처소로 돌아와서도 배 생각 때문에 마음 속이 한가할 수 없었다.

그는 실컷 잠을 잔 뒤이기도 하지만 난데없는 쌀 싣은 배 때문에 그냥 굴안에만 있을 수 없었다.

벌써 별이란 별은 다 나타나 제 빛을 마음껏 빛내고 있었다. 어떤 별은 다른 별과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 진작 음력 칠월칠석은 지났으므로 견우성이나 직녀성의 그 절절한 만남은 없다.

그 견우성이나 직녀성의 별빛들도 서로 멀리서 빛의 이야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다.

왜 하늘의 별에서는 애틋한 사랑을 말하는 일이 그렇게도 거룩하고 땅위의 사람들이 나누고자 하는 사랑은 더러움으로 말하는 것인가.

사랑 또는 애욕이란 과연 해탈의 장애인가? 그것을 단 한마디로 내쳐서 추이지 말 일이 아닌가.

옛 인도 밀교의 금강승파(金剛乘派)에서는 "요니에 링가를 집어넣고 부처님의 일체를 생각하라" "남녀 2근(二根)은 곧 보리열반의 진처(眞處)로다"라 하지 않았던가. 심지어 어느 종파에서는 남녀의 교접을 대락(大樂)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 정토발원의 대락이라는 뜻 말이다.

우녀는 이런 따위 생각보다는 꿈 속의 인담, 꿈 뒤의 쌀 싣은 배가 그의 화두없는 마음 속에 화두로 들어와 있었다.

그림 · 조향숙

하늘에 핀 연꽃
봉축행사의 대미를 이루는 축제의 장엄물

봉 축 등
■재 질 : 연질 고급 P · V · C
■규 격 : 약 250×830(m/m)

한번 구입으로 매해 사용하십시오!
독특한 구성, 화려한 색상, 섬세한디자인의 삼전기획등
운반 및 보관시 해체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출여지고
재사용시 원형대로 복원되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봉축등



●연등
선을 닦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순서를 소에 비유하여 10가지로 나타낸 십우도



●팔상등
싸오라마와 같은 부처님의 생애를 화려하게 표현한 불상성도의 광과형등(석가세존성도기)

●연꽃등
종전 연등과는 달리 연잎을 입체로 살리고 연잎속에 연밥을 넣어 실제 연꽃과 같은 감을 살린 공예등

●찬불등
불교기상징 오색(청·황·적·백·구황)으로 화려한 수실로 장식된 원통 주름등



贊佛 애드벌룬



●규 격 : 지름(280Cm) 길게(880Cm)
●현수막 : 기본 90Cm ×6m
선택 90Cm ×8m(20,000원 추가)
●보급가격 : ₩480,000(현수막 기본 Size포함)
전화주시면 설치하여 드립니다 (지방은 출장비 추가)

본 애드벌룬은 사용후 보관하셨다가 행사때마다 다시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봉축현수막



■단체휘장:크기 및 보급가격(90Cm×6m) ₩40,000/(90Cm×8m)₩50,000



■불교기(오색)휘장: 크기 및 보급가격(90Cm×6m)₩ 40,000/(90Cm×8m)₩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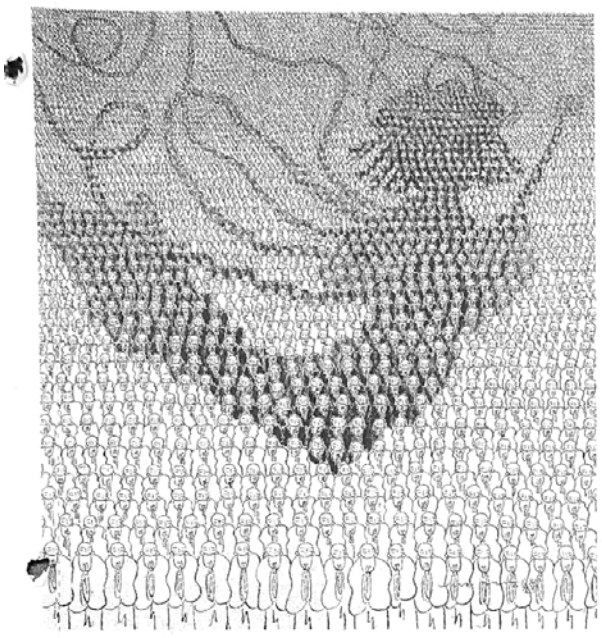
봉축리본



■가격
(大) 100매 ₩30,000
(小) 100매 ₩25,000

■ 1000매 이상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기획제작
三 田 佛 事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9 (한일빌딩 203호 조계사후문)
電話 : (02)732-6095~6
FAX : (02) 735-5293



◇허허당 향훈스님作 '화엄법계도-비천상'.

"선화 통해 오시는 부처님"

'선묵달마전' 등 봉축 전시회 다채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전시회는 선화 위주의 스님들 개인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달마를 즐겨 그려온 범주스님의 선묵달마전이 18일부터 28일까지 대구 소헌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범주스님이 5년여동안 속리산 달마선원에서 칩거하며 그린 달마도 1백여점이 전시된다. 전형적인 달마도와는 달리 '서있는 달마' '행보하는 달마' '흑(黑)달마' 등 현대적인 이미지의 달마를 표현한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 1월 발간한 화집 〈선묵달마〉 출간기념회도 함께 열린다.

독특한 선관화의 세계를 개척해온 통칙스님이 22일부터 5월 6일까지 15일간 마포 서남미술관에서 '한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상이 청정하다'를 주제로 묵관화전을 갖는다. 스님은 선사들의 공안을 상징화한 '이뭣고' 등 불교관화 약 40여점을 선보인다. (02)715-9306

불교관화를 주로 제작해온 3명의 작가가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인사동 단성갤러리에서 '불교관화 3인전'을 갖는다. 한국불교문화원(원장 홍무흠)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서 강행복씨는 '날마다 좋은 날' '나무와 새' 등을, 김영만씨는 '이웃과 민족을 위한 생명의 탑' '목어송' 등을, 정비파씨는 '남산불국토 전도' '운주사 천불천탑'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02)739-8430

허허당 향훈스님(도갑사)이 '우담바라의 꽃은 피고'를 주제로 선화개인전을 서울 부산 광주 등 세곳에서 차례로 갖는다. 4월30일~5월6일 공평아트센터(02-733-9512), 5월8일~14일 부산 국제신문사 부산문화센터(051-500-5386), 5월16일~21일 광주 무등일보사 라인문화회관(062-670-6004)에서 각각 갖는 선화전은 작은 동자들로 이루어진 '화엄법계도'시리즈와 선화 '한마음시리즈' 등 1백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십만동자로 이루어진 '화엄법계도 방광'과 '우담바라의 꽃은 피고'가 눈길을 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고승선서화전 및 우학스님 연꽃사진전을 오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영남불교대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회에는 월하 숭산 석주 일타 성파 지명 수안 일장 설봉 관우 선오 스님 등 원로 중진스님들의 서예와 글씨 등 70여점이 전시된다. 우학스님이 4년동안 찍은 30여점의 연꽃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

이경숙 기자



◇통칙스님 목판화 '이뭣고'.

"사바에 퍼지는 佛音"

초파일 앞두고 봉축음악회 잇달아

수국사합창단 21일 '부처님 오시는 소리'
불교성악회 29일 '음악공양의 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29일 음악회
대구봉축위 5월9일 가족찬불가 경연

가짜와 거짓말과 비리가 판을 치는 이 사회, 경기침체, 한보청문회로 인해 더욱 살맛이 안나는 요즘이지만 찬불가의 향기로운 선율이라면 사바세계의 각박한 심성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주지 않을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축음악회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어 불자들의 발길을 흥겹게 한다.

수국사(주지 자용)찬불합창단은 21일 저녁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부처님 오시는 소리'를 제목으로 연주회를 갖는다. 자문스님의 법고로 시작하는 연주회는 '육신을 접고 오체를 던져' '부처님은 이르시네' 등 찬불가와 가곡 민요 자장가 동요 미국민요 세레나데 가요 등 각 장르의 노래가 다양하게 연주될 예정.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테너 조영수씨가 특별출연해 '염주' '청산에 살리라'를 부르고 소프라노 오승희씨와 이중창으로 오페라 춘향전중 '사랑가'도 공연한다. (02)359-6297

불교성악회(회장 김성국)는 29일 저녁 7시 서초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음악공양의 밤을 개최한다. 유동열씨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시명스님 김성국 전이순씨등 성악가와 합창단이 나와 '반야심경' '진리의 빛' '새야새야 파랑새야' '신아리랑' '그리운 금강산' 등 총 20곡을 선보인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홍윤식)도 같은날인 29일 저녁 6시 앰버서더호텔에서 봉축음악회를 갖는다. 동국불교국악관현악단이 협연해 국악인 안숙선 김영임 김성녀, 사물놀이 김덕수 가수법사 김태곤·김흥국씨 등과 동국불교합창단이 무대에 서며 찬불가와 관소리 등이 공연될 예정이다. (02)269-3606

대구봉축위원회 주최로 제4회 가족찬불가경연대회가 5월 9일 오후 4시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열린다. 가족·단체회원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고 찬불가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번 경연대회의 예선은 5월 3일 오후 4시 대구불교대학. (053)256-3725

이경숙 기자



보명사 봉축음악회 보명사(주지 상원)가 봉축음악회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4월7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내마음 하늘아래' 제목의 봉축음악회에서 보명사 신도회 학생회 어린이합창단 등이 '이밤을 어디서 쉬나' 등 찬불가를 발표, 사부대중 2천여명이 환희심을 가득 안았다. 특히 이번 음악회에는 주한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대사들과 대사관 직원들, 가족들이 특별출연, 자국의 민요를 노래해 더욱 흥을 돋구었다.

불심시심 〈84〉

눈으로 즙는 풍경

空階滴滴落鈴寒 (공계적적낙령한) 빈 뜰엔 주룩주룩 지는 물울 차갑고
濕衲掛枝雨不乾 (습납괘지우불건) 줄에 걸린 젖은 장삼 비에 마르지 않네
好得積雲龍變化 (호득적운룡변화) 좋게도, 쌓였던 구름 용의 변화를 얻어
喜看深霧豹成斑 (희간심무표성반) 반갑구나, 표범무늬 이룬 짙은 안개여
作巢燕子含泥返 (작소연자함니반) 집을 짓는 제비는 진흙 물어 날아오고
採藥仙童洗菜還 (채약선동세채환) 약 캐는 아이는 산채를 씻어 들어오다
眼拾風光心不厭 (안습풍광심불염) 눈으로 경치 주워, 마음에 싫증 없으니
淸吟終日對靑山 (청음종일대청산) 종일토록 읊으며 푸른 산 대하다

역시 송계대사의 시다. '큰 비가 넘쳐 사람도 오지않다(大雨漲溢人不通)'이라 한 시다. 오랜 장마 끝에 비가 멈춘 광경을 썼다. 처마에서 지는 물소리를 방울 소리로 표현하였다. 청각에 호소해야 할 물 소리를 차다는 촉각으로 표현하였으니 일상성을 뛰어넘는 반상(反常)의 수법이다. 젖은 장삼을 가지에 걸었다(掛枝)함도 문학적 미화의 표현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장마철에 나뭇가지에 걸었을 리 없고, 빨랫줄에 걸었을 것이지만, 나뭇가지에 걸었다 해야 시적 정감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안개가 끼면 장마철에도 비가 개인다 한다. 그러기에 짙은 안개를 기쁨으로 보았다 하였다. 구름과 비를 용의 조화로 보는 것은 일반적 일이기는 하나, 여기서는 비 내림이 아닌 비의 개임을 용의 변화로 표현했으니 장마의 지루함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나를 간접적으로 이해시키고 있다. 거기에다 안개를 표범의 얼룩 무늬로 표현하였음은 비교적 산뜻한 감각으로 와 닿는다.

제비 진흙 물어오고 선동이 채소 씻어온다 함도 장마 뒤 산촌의 일상적 풍경이기는 하지만, 서로 독립된 따로따로의 사실을 한 공간으로 모아 시적 구도로 압축하고 보니, 이 역시 새로운 운치를 맛보게 한다. 역시 고즈넉한 산촌의 멋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자연풍경이 아름답다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맞이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름다울 수 없다. 이 시는 그 점을 말하되, 먼저 눈으로 풍광을 살피고 그 살림을 싫어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놓치지 않고 있다.

눈으로 즙는 풍광이라는 표현도 재미있는 수사다. 이런 수사를 구성할 수 있는 작자이기에, 종일 읊으며 청산을 대한다는 결구로 맺었다. 역시 대사로서의 시인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범주·통칙스님등 개인전 눈길

강행복씨 등 3人 '불교판화전'

◇통칙스님 목판화 '이뭣고'.

인간문화재들의 춤사위

한국名舞名人展 22~27일 연강홀

가야금산조 등 전통음악 발표도

인간문화재들이 총 출연하는 '제15회 한국의 명무명인전(名舞名人展)'이 동국예술기획(대표 박동국)주최로 22일부터 27일까지 연강홀(종로5가)에서 열린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 공연에는 승무 춘앵무 바라춤 살풀이춤 태평무 등 한국의 대표적 춤을 강선영 이애주 김천흥 이현자 임이조 정재만 엄옥자씨 등 인간문화재를 비롯한 명인들이 대거 출연해 우리 전통춤의 진수를 선보인다. 또한 가야금산조(이영희) 거문고산조(원광호) 판소리 춘향가(오정숙) 대금산조(이생강) 등 전통음악 발표회도 함께 갖는다.

기라성같은 인간문화재들과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인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는 이번 공연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춘앵무(김천흥) 가야금산조(이영희) 태평무(강선영) 거문고산조(원광호) 진도걸북춤(양태옥) 춘향가中(오정숙) 승무(이애주) △23일=피리정악평조회상(정재국) 살풀이춤(김정녀) 가야금산조(양승희) 도살풀이춤(양길순) 대금산조(이생강) 태평무(이현자) △24일=처용무(김중섭) 정선아리랑, 이별가(이춘희) 태평무(이명자) 바라춤(자은스님외) 춘향가中(신영희) 승무(채상묵) △25일=태평무(조흥동) 살풀이춤(정재만) 승무(임이조) 한량무(이척) 훈령무(송준영) 승무(김진홍) △26일=춘앵무(김희숙) 살풀이춤(서영임) 신칼대신무(김영희) 태평무(고선아) 승전무(검무) 승무(채향순) △27일=춘앵무(허순선) 살풀이춤(정명자) 일무(김영숙) 진쇠무(윤미라) 태평무(임현선) 승무(오은희) 문의 (02)585-7318.



◇'승무'를 추는 인간문화재 이애주씨.

사경솜씨 겨룰 기회

조계종-동방연서회 주최

5월 20~25일 예선

한자한자 불심을 넣어 쓰는 사경이 불자들의 중요한 수행방편이 되어 사경을 가르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매일 정성껏 사경을 하는 불자들도 급증하는 가운데 대규모 사경대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갈고 닦은 사경솜씨를 겨루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방연서회(이사장 김응현)가 조계종 총무원과 함께 공동 주최하는 제1회 불교사경대회는 5월 20일~25일 예선을 거쳐 6월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인제 영시암에서 본선을 갖는다. 승려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실시되며 본선은 현장에서 직접 쓰는 휘호로 해서체가 대상이다. 참가비 3만원. 예선접수 5월 25일까지. (02)733-0131

대구에 불교음반회사 탄생

대구에 불교전문 음반회사 '삼영불교음반(대표 이재근·대구시 중구 봉산동)'이 탄생했다. 지난달 문체부에 등록을 신청하고 삼영빌딩 지하에 사무실을 개설, 본격 활동에 들어간 삼영불교음반은 경전, 큰스님 법문 테이프 등 불교관련 오디오북 상품을 개발,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053)421-3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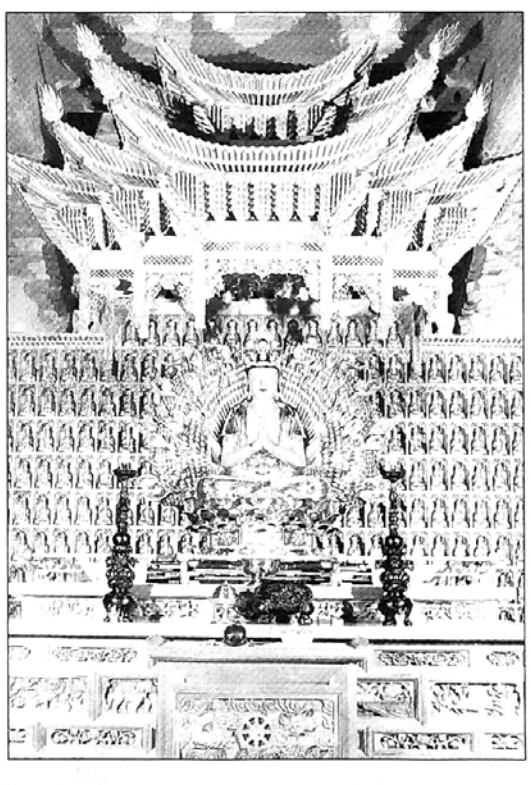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02)738-8447~8 대표 이진형 합장

"불법에 경제침체 해법 있다"

유필화교수 '부처에게서 배우는…' 곧 출간

'8正道' 경영학적 해석 실천덕목 정립

서구식이론 한계 지적 '인간중심' 강조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은 무궁무진한 지혜의 바다입니다.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어느분야에도 적용되며, 기업경영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심각한 경제침체현상도 경전 속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속에서 기업 경영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는 독특한 책이 이달말 출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성균관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유필화교수(43)가 2년여의 각고 끝에 선보일 〈부처에게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한언출판사)〉라는 제목의 경영서가 바로 그것.

'21세기의 새 경영이념은 인간중심의 전통동양정신에서 찾아야 한다'는 최근 경영의 흐름을 간파, 이 책은 서양적인 경영패러다임의 한계에 부딪힌 기업의 새로운 경영모델을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유교수는 "오래전에 〈예수의 오메가 리더쉽-최고 경영자로서의 예수님〉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 불교의 경전에서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경영이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경영적 측면에서 해석한 책을 한권 써야겠다 생각하던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죠"라며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눈을 안으로 돌리자 △경영을 보는 올바른 시각 △좋은 기업문화는 기업의 무한한 활력소 △붓다가 가르치는 경영의 지혜 △사람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 △지혜로운 기업경영에의 길 등 총 7개 부분으로 나눠 각 경전의 주요부분을 인용하며 불교적인 경영이란 어떤 것인가를 밝히고 있다.

유교수는 "양극단을 떠나라는 중도(中道)의 가르침은 기업 또는 경영자가 의사결정시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훌륭한 결정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기업이 '중도의 경영학'을 실천한다면 부실운영이라든가 부도같은 실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 급속하게 성장하고 결국에는 몰락하는 기업의 생리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음과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체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처님이 제시한 여덟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경영학적으로 해석해 놓아 경영자들이 지켜야 하는 실천덕목이라고 소개한다. 유교수는 기업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가치관의 혼란이 극심해질수록 바른 기업경영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경영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제 바깥이 아닌 안으로 눈을 돌려 우리에게 맞는 경영모델을 찾아야 한국기업이 살수 있다"고 강조한 유필화교수는 "불교에서 이상적인 경영을 찾고자 하는 나의 시도가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경영패러다임을 정립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출판소식

작년 국민독서 9·1권

독서새물결운동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77.2%가 1권이상 책을 보았고, 1년 평균 9.1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환산하면 0.8권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은 지난 한해 한달에 한권도 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95년보다 0.5권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성인 1천2백명, 학생 2천7백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국민독서환경 변화 추이와 독서 생활 실태의 문제점을 일고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부산불교 인명록 발간

부산불교계의 모든 정보를 담은 〈부산불교계 인명록(불심홍법원 刊)〉이 발간됐다. 스님과 재가불자, 불교단체현황 등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부산불교계의 사암과 신도단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밖에 전국 종교법인 현황, 불교관련업체, 생활안내 전화번호 등을 부록으로 담아 일상에서 활용하기 쉽게 했다. (051)818-4769

'서평문화' 25집 출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출판문화의 발전과 양서 권장 사업의 일환으로 펴내고 있는 계간지 〈서평문화(제25집)〉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일상인들이 놓치기 쉬운 삶의 추억을 미세한 감성으로 생생히 그린 정채봉씨의 〈좋은 예감(샘터)〉과 김춘수씨의 〈들림, 도스도예프스키(민음사)〉에 대한 서평등 문학, 철학, 교양등 11개 분야 29종에 대한 서평이 수록돼 있다.

또 제 25차 청소년 권장도서 목록을 간략한 내용설명과 함께 부록으로 담았다.

새로나온 책



▲**불교철학입문**=불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불교의 본질을 오늘날의 우리현실에 맞춰 현대적으로 풀이한 입문서. 불교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해설과 더불어 불교의 전체적 조감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술했다. 〈경서원 7천5백원〉

▲**모든 이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책**=불교경전에서 32편의 이야기를 가려뽑아 믿음의 장, 알아가지는 장, 생활로 옮기는 장, 행복을 이루는 장으로 구성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준다. 〈정우 4천원〉

▲**연화의식집**=불교의 모든 의식에 대한 설명과 방법을 담았다. 헌공, 축원, 다비, 시식, 독송, 법어 등을 상세하게 수록해 불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했다. 〈큰수레 1만3천원〉

▲**어린이의 인간학**=교육황폐화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어린이 인간학의 필요성을 모색한 책. 어린이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질과 과제를 재고하려 하는 어린이의 인간학이 필요한 이유를 역사적, 학문적으로 변증하고 있다. 〈아름다운세상,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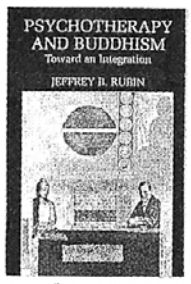
▲**청소년 불교마당**=군종법사를 역임하고 종립 해동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이욱태씨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필했다. 불교의 방대한 경전과 가르침을 쉽게 풀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불심홍법원 비매품〉

▲**삼세인과 그리고 윤회**=〈삼세인과경〉을 비롯해 인과법을 깨달을 수 있는 8편의 글과 법회식순을 함께 실었다. 인과의 근본원리를 깊이 깨달아 지난 과거를 참회하고 하루하루를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자는 지은이 김진택 거사의 서원이 담겨있다. 〈선우 2천5백원〉

명상통한 정신질환 치료 사례

베이직 북

정신요법과 불교



명상과 정신요법을 병행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면 상호보완적 치료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지적한 연구서 〈정신요법과 불교〉(Psychotherapy and Buddhism 프리넘 刊)가 발간돼 주목받고 있다.

심리학자인 제프리 B. 러빈 박사가 펴낸 이 책은 정신질환의 원인과 근원적 치료법을 불교와 정신분석학의 비교를 통해 살피고 있다.

러빈 박사는 "정신질환의 치료는 자아에 대한 이해와 마음의 안정이 선행조건"이라며 "미국 정신의학계는 명상과 정신요법을 실제 치료에 응용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한다.

'http://www.plenum.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불교입문	포 교 원	조계종출판사
3	그까짓 살좀 있으면 어때	학 림	여시아문
4	힘든세상 도나 닦지	효 림	가 서 원
5	나는 누구인가	마하리쉬	청 하
6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7	화엄경 강의	무 비	불 광
8	유식입문	다카사키지키도	시 공 사
9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10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구입문의:(02)737-0695

나와 경전 3

유마경



운 제
〈원효연구원 이사장〉

〈유마경〉은 구체적으로 〈유마힐 소설경〉이라 한다. '유마힐'은 인도사람 이름이고 '소설'은 '말한 것'이란 뜻이고 '경'은 성인의 말씀이란 뜻이다. 나는 몇년전에 〈유마경 강의〉라는 책을 썼고 경전공부모임에서 유마경을 많이 강의하고 있다. 구마라집의 한문본을 제일로 치는데 그것을 저본(底本)으로 했다.

불교의 경전이 대부분 부처님이나 보살의 말인데 이 경은 유마힐 거사 즉 세속에 있는 분이 말한 것이기에 다른 경과는 취향을 달리 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관념으로는 도량 하면 사찰을 말하는데 이 경에서는 '정직한 마음이 도량이요(直心是道場), 자비한 마음이 도량이요(慈悲心是道場), 보리의 마음이 도량(菩提心是道場) 이라 한다. 또한 재가와 출가가 평등하고 진(眞)과 속(俗)이 평등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사상 등 불이사상(不二思想)이 전편을 흐르고 있는 대승경전의 대표적 경전이다.

둘째 단계는 불교가 대승불교로 발전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수도하게 된 동기는 모든 중생의 괴로움인 생 로 병 사를 해결하려는 중생고에 있었다. 그러므로 불교의 근본 사상은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려는 것이지 특수 계층만을 위함은 아니었다.

여기에 부처님이나 보살이 말씀한 것은 물론 속세에 있는 거사의 말까지 경(經)으로 취급한 것이니 이 경은 출가중심의 불교에서 중생중심의 불교, 즉 대승불교의 제창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

그러기에 이 경은 각계 각층에서 다 좋아해서 화엄학에서는 이 경이 화엄학의 사상을 나타냈다 하고 삼론학에서는 삼론의 교리에 가장 맞는다 하고 천태학에서는 천태의 교리에, 선종에서는 선종에 가장 맞는다 하여 어느 종지이든지 자기 파에 맞는다고 선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경과 관련된 두 사람의 얘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유마거사 삶' 중생에겐 실천적 모델

불이평등 실상 연극보듯 쉽게 이해

주인공 유마거사는 우리 중생들과 같은 평범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불이사상의 체현자이고 생활과 불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보살의 화신이다.

특히 문수보살과의 대화중에 "자식이 병들면 부모가 병이 없어도 아프게 되는 것처럼 보살은 병이 없어도 중생이 앓기 때문에 보살도 앓는다"는 경구는 이 경의 상징처럼 되어있는 말이다. 유마거사는 우리 삶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하는 영원한 인격적 사표이고 〈유마경〉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틱한 연극을 보듯이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강의하기도 재미있지만 듣는 사람들도 그 어느 경전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공부하는 것같다.

불교사상이 발전하는 과정은 여러 각도에서 고찰되겠지만 나는 대략 두가지에서 주목한다.

첫째 단계는 불교의 교주(敎主)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생의 괴로움인 생 로 병 사의 해결을 위하여 왕궁을 버리고 설산에 들어가 6년간 고행 수도하신 결과 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다. 그러기에 초기 불교의 교단은 출가한 분이 중심이 되었으니 이는 불교가 말하는 사부대중 가운데에 비구승단이 첫째 계급인 것이 그것이다.

중국 송나라에 장상영이라는 대신이 있었다. 그는 본래 유학자였으나 당시 풍조가 불교를 좋지 못하게 보고 유교를 진흥하려는 때였기 때문에 그는 '무불론(無佛論)'을 지어 불교를 공박하려고 생각해 집에만 가면 책상머리에 앉아 집필에 몰두했다. 이를 본 그의 아내가 무엇을 그리 열심히 쓰느냐고 묻자 장상영은 "요사이 중들이 너무 잘난체 하기에 내가 무불론을 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아내가 "부처가 이미 없다면 구태여 무불론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학자이니 직접 불경을 읽어보고 거기에서 모순된 점을 들어 논리적으로 공박해 보십시오"

이 말을 옳게 여긴 그는 무불론의 원고를 중지하고 불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 〈유마경〉에서 불교의 심오한 뜻에 감명을 받아 무불론을 쓰던 붓을 돌려 '호법론(護法論)'을 썼다고 한다.

또 중국에 왕마힐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마경〉을 보고 너무 감심한 나머지 자기의 이름을 유마힐거사에서 '마힐'을 따 왕마힐이라고 바꾸었다 한다. 이렇게 〈유마경〉을 읽고 감명받은 이야기는 고금을 통해 부지기수다.



"
求道의 길
"

雲水日記는 日本의 한젊은 僧侶가 人生一代의 큰 뜻을 품고 永道의 길을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 修道過程을 그림을 곁들여 가며 재미있게 日記式으로 소개한 것이다.

저자 佐藤 義英
平田 精耕
加藤 隆芳
역자 釋 圓 然

정가 6,000원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8
TEL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생명공학과 부적

생명공학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박지명 엮음/신국판/값 1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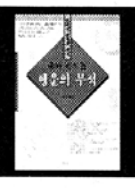


"성공을 위한
소리에너지(주문)와
형상에너지(부적)의
신비한 효험!"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에너지의 선과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정신의 진화의식 상태로 연결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삶의 나쁜 에너지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리와 형상 에너지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신국판/값 12,000원



전국 대형서점 절찬리 판매중!!

깨침의소리
전화:(02)444-3575

기획좌담 -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부처님 가르침 인류공유화 작업"

경전 전산화 21세기 문화창출 핵심
국가경쟁력 강화…범국민 동참을

팔만대장경 전산화작업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의 국보 팔만대장경을 영구히 보존 계승시켜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정보로 만들어가는 민족의 대역사다. 팔만대장경의 전산화 의의는 무엇이고 전산화를 통해 불교계와 우리 사회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본지는 지난 7일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와 공동으로 '팔만대장경에게 새 생명을, 21세기 팔만대장경을 함께 만듭시다'를 주제로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편집자 주〉

(참석자)
종림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장)
김흥규교수(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장)
이종옥교수(동국대 정보관리학과)
현기스님(고려대장경연구소 부소장 · 사회)

◇일시:1997년 4월 7일 오후4시
◇장소:본사 회의실


◇종림스님


◇현기스님


◇김흥규교수


◇이종옥교수

△현기: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범국민모금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17일부터 시작된 '한사람 한경판 만들기운동을 통한 팔간후원인 모집'에는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 많은 분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선 팔만대장경 전산화 의의와 그 역사적 가치부터 짚어봤으면 합니다.

△종림: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한국불교가 자체변혁을 통해 세계불교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로의 빠른 진입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타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김흥규: 진보의 역사가 인간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더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 말씀을 모은 불경의 전산화는 그속에 담긴 지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이종옥: 우리는 이제껏 장경각 원판 그대로 보존만 해 왔습니다. 정보화시대로 진입하려는 이 시점에서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불교사상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현기: 정보화 정보화하는데 과연 정보화시대란 무엇이며, 그속에서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옥: 정보사회는 정보의 가치나 정신이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보검색체계, 예를들면 DB(데이타베이스)나 색인화가 돼 있어 부처님 말씀이나 큰 스님들의 화두를 찾고자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부가적 가치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흥규: 정보화시대에서 인문·사회과학의 비중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속에서 부처님 경전의 대중화는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입니다.

△종림: 지금까지 불경해석은 스님들의 독점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면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불교의 세계가 열릴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급정보, 순수한 인간본성을 지향하는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새로운 인간상, 붓다상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는 일이지요.

△김흥규: 팔만대장경은 경전이면서 또 위대한 문학입니다. 위대한 문학이므로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읽혀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있는 불경의 전산화는 부처님 말씀이 가득한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지도와 배를 만드는 일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기: 그렇다면 정말 현재의 지식이나 기술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종옥: 실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멀티미디어 시대로 문자, 그림, 음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배경음악이나 영상도 곁들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음란이나 외설과 같은 쓸모없는 정보의 범람입니다. 따라서 수천년동안 전해져 온 부처님의 지혜와 선조의 얼이 담긴 대장경을 전산화한다면 그 이상의 고급정보는 없을 것입니다.

△현기: 대부분의 스님들이 20~30년동안 경전을 공부해왔지만 공유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장경이 전산화되면 개개인이 아난이나 가섭과 같은 부처님의 제자가 돼 부처님과 질의 응답을 하는 가상현실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종옥: 실제로 정보를 찾기 위해 허비하는 많은 시간들을 수행정진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보화된다는 것은 일단 평등함이라는 대 원칙하에서 만인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인류평등이 이루어 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어한 사람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김흥규: 그렇습니다. 대장경 전산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보화사회는 문자의 전산화를 중요시하는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동북아시아 한문문화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한자를 포함하고 있는 대장경의 전산화는 지식이나 기술의 개발을 가져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장경 전산화를 이루기 위해 불자들만이 아니라 정부관련기관, 기업, 그밖의 뜻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종림: 고려대장경은 초기경전뿐만 아니라 대승경전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전산화는 매우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승경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몇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만큼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종옥: 대장경의 전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산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자의 표준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한문대장경의 전산화를 통해 표준어를 누구보다 먼저 내놓는다면 기술의 선점은 물론 세계불교문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글대장경의 전산화를 통해 정보의 대중화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종림: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팔만대장경을 '한국의 문화상품'으로 인식한 정부로부터 정보산업 육성책 차원에서 4억원을 지원받아 전산화를 추진해 오고 있지만 매우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는 2000년까지 대장경의 입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교정단계에 있는 이 작업은 98년까지 교정·수정작업을 끝내고 99년 검색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옥: 현재 정부는 너무 기술지향적이라 그 정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에 인문학 전공자들을 대거 참여시켜 그 가치찾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범종단, 범국민 차원에서 이 캠페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가치있는 문화유산의 세계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가 뭐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불교계 사업이 아닌 범국민적 문화사업이라는 인식이 우선돼야 합니다.

△김흥규: 경제실리적으로 봐도 세계각국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전산화할 정도로 문화적 깊이와 폭을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라고 홍보가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기업의 신뢰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또한, 불경의 전산화는 불교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빠른 시일내에 대장경 전산화가 이뤄져 부처님 말씀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옥: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불교변화의 모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 모두가 이에 동참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종림: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물질지향세계의 끝이고 정신세계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2000년이면 '전자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으로 전인류의 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때까지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윤기석 기자



◇지난 7일 조계사에서 열린 '팔만 후원인' 모집을 위한 생방송 현장 캠페인.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불교방송과 함께 지난 7일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3시간동안 서울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등 세 곳에서 '팔만대장경에 새 생명을, 21세기 팔만대장경을 만듭시다' 생방송 현장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삼성출판사 김종규회장, 한진흥업 한갑진회장, 가수 김흥국씨 등 각계 인사들과 초하루 법회 신도 등 3백여명이 동참했다.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교수(이화여대 국문과)는 BBS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 팔만대장경 전산화에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고 격려하는 방송을 40분간 했다. 〈편집자 주〉

이어령교수, BBS '한사람 한경판' 방송 요지



"7백년전 새긴 호국정신 대장경 전산화로 재현 한국문화 세계로 전파"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때 한자 한자 온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출만 하면 하나의 완성된 대장경, 즉 책으로서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예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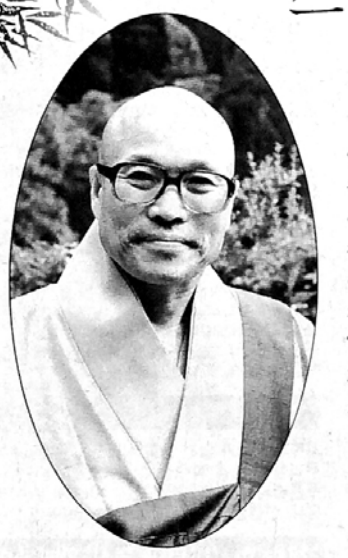
팔만대장경은 경 율 논 삼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불교학연구는 물론 일반문화연구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 상당 부분이 불교에서 온 것으로, 경전을 모르고 우리문화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언어학적으로나 사회문화사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방대한 팔만대장경을 전산화한다는 것은 거기에 포함된 거의 모든 한자를 폰트(font)화하고, 검색화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정보기술의 축적을 통해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범국민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팔만대장경 전산화 동참운동은 온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몽고병화의 어려운 역경을 물리친 과거를 연상케 한다. 우리는 이 불사를 과거 7백년전의 먼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우리가 꼭 해내야할 과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과학기술보다는 문화를 강조하는 사회다. 문화는 나누어줄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므로 불교의 보시하는 마음과 같다고 본다. 팔만대장경 전산화는 가치있는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 앞장서서 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에서 팔만대장경의 전산화는 과거 7백년 전 대장경을 한자한자 파서 만들때의 그 간절하면서도 본래 지니고 있는 뜻을 비로소 오늘에 실현하는 일이라 하겠다.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쉬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B6 / 160면 / 값 3,500원

제1장 〈기도 성취의 지름길〉 제2장 〈생활 속의 기도법〉 제3장 〈특별 기도 성취법〉 제4장 〈영가 천도 기도법〉

생활 속의 기도법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큰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Ⅰ.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Ⅱ.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Ⅲ.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Ⅳ.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Ⅴ.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Ⅵ.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야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애변(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팩스 : (02) 586~9078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硏究所

주·五四三·七三〇六 야·七一一·四三七〇
화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계발 및 집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사찰안내

10여년 정성으로 살아온 도량을 건강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양도하고자 합니다.
표교와 노후를 위해서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연락처 011-279-4600

- 위 치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소재
- 건 평 : 총 756평(건평 108평, 법당 30평)
- 객실 10개, 보일러시설
- 신축 2년 6개월
- 해외이주로 파격적인 가격-1억 5천

연락처 0373)374-7417

포교당 안내

◆ 포 교 당 ◆
●위 치 : 종로구 평창동
●금 액 : 전세 2,000 (월세 20)
연락처 02)379-8335

위 치 : 서울 도봉구
보증금 : 천만원, 월세 24만원
시설비 : 500만원
연락처 02) 900-2905
015-230-4168

위 치 : 부산 동상동 시장통 사거리
평 수 : 24평
보증금 : 1500만원 월세15만원
시설비 : 가격절충
연락처 051)531-0313
011-851-8224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모심
954-1474
955-7234
995-9080
도봉구 도봉동 549
천 축 사

기타정보

천부경

81권의 화엄경을
81자의 천부경에

도서출판 보문
☎597-2460
<법문 테잎도 나와있습니다>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단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각 복전함
- 음성(심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미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단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단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단집경탁경상
- 서울(화엄사)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越古工 합장

귀의 삼보하옵고
하이얀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제작한 불교그림동화(한책) 「깨달음의 세계」 (6버짜 밉) 및 단행본 「부처님일대기」가 재판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 (소설, 시, 수필) 및 사찰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등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보시를 권해주십시 참여하여 드립니다
하나원 TEL.(02)932-6327, 937-5759

탈종공고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 보문사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산42
주 지 : 엄춘자(창건주)
상기 사찰과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7년 4월 4일
보문사 주지 합장

염불 전용 녹음실
●세계 최첨단 디지털 녹음 장비 (주지스님 염불소리, 신도님들 신심나래)
●염불진용 전통40평 법당완비
●사찰전용 앰프사용법 무료지도
●염불,법문(테이프 카세트)포교에 필요하며 사찰전용(앰프사용법)아셔야만 됩니다.
포교의산실 30년간 대법음사 노심초사 창덕 합장
타종교를 보십시요. 부끄럽습니다. 나라를 살립시다. 불교를 살립시다.
녹음실 문의처 0417)551-156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682-4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02)242-0331 · 242-0255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천태 산중 사람들을 위하여 흑염지(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술이 맑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한국전통사찰음식연구소

개원5주년 - 끊임없는 전통음식문화의 발굴 · 계승

연구소 개원5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순회 무료공개 강좌에 성원을 보내주심은 물론, 물품구매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께 인사올립니다.
한 나라의 전통음식은 그 국민의 건강은 물론이려니와 그 민족 특유의 정서와 심성을 고이 간직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공조미료, 인공청량음료, 그외 허다한 인스턴트식품은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거칠고 참을성 없는 성격을 지니게 합니다.
중·장년층 또한 정도 이상의 육식과 극적 불명의 음식 섭취로 말미암아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우리조상의 지혜가 온전히 살아있는 우리 전통음식문화의 발굴·계승작업은 한시도 늦출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공기좋고 물맑은 심산유곡에서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의 정진음식은 오늘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는 훌륭한 건강식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종교,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국 모든 분들의 기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더 열심히 연구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2-245-0904)

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읍 (대구근교)
- 건물 신축주택 30평 1동 창고 36평 1동
- 대지 : 210평
- 특징 : 교통편리, 산수수려, 100m암반수 인접, 농지 확장가능, 스님 토굴 및 별장들의 용도

연락처 0542-71-0847

행동하는불교 실천하는 불교
해동불교산악회 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해동불교산악회 합장
연락처 (02)903-8976
375-2254

학생모집
▶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역학지도
▶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생활미술
▶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생활상담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 (포교사, 법사, 유아지도자, 상담사, 역학사) 취득가능
2. 소형버스 통학가능
3. 충북괴산에서 월 2회~4회 강의
연락처 (02)931-6075~6
(0582)535-1987
(교육청 인가 57호)
만대교학대학원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책방 여시아문 특별 판매전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리는 마음으로 불서를 포함한 문학, 인문, 교양 서적 등 총 150여 종의 책에 대해 특별 판매를 실시합니다. 특별 판매 기간의 구매 고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없는 양서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십시오.

교양(인문, 사회, 자연, 건강, 취미)

21세기 인간과 공학/김태유 외 16인/7,000원/고려원
잘못 알려진 건강 상식/인도주의 실천 의사 협의회/4,000원/한울
사람됨의 뜻/이규호/3,500원/제일출판사
말의 힘/이규호/4,000원/제일출판사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손보기 외 17인/6,000원/뿌리깊은나무
김치 한국인의 먹거리/지영하/5,500원/공간
인간은 만물의 척도인가/루번 아벨/9,000원/고려원
세계 환경 정치/개러드 포터/5,500원/돌베개
몬드라곤에서 배우자/일리암/6,800원/나라사랑
사후생/엘리자베스 퀴블/4,500원/대화출판사
인류의 기원/리처드 리키/6,800원/동아출판사
우주의 기원/존 배로우/6,800원/동아출판사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베르나르베르베/6,500원/열린책들
조선 호랑이 이야기/이가원/5,500원/학민사
한자 똥침 놓기 1·2/감정로/각5,500원/서울문화사
전파로 본 우주/모리토모 마사키/5,000원/전파과학사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유시주/6,000원/푸른나무
천연의 고독 티베트/박귀훈/6,500원/글나무
과학과 사상(계간)/각권 4,500, 5,500, 6,500원
역사비평(계간)/각권 4,000, 5,400, 6,500원
대우 학술 총서/민음사
세계 사상 시리즈/삼성출판사
인간과 철학 시리즈/예하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윌리엄 마블사하/6,000원/문예출판사
세속적 인간과 비세속적 인간/라인홀드 니버/4,500원/문예출판사
모국어와 정신 형성/ L.바이스 게르버/11,000원/문예출판사
지구는 우리의 조국/에드가 모랭/6,000원/문예출판사
우리의 학맥과 학풍/이한우/8,000원/문예출판사
탁월한 지혜/카프라/4,500원/범양사출판부
가이아/러브록/3,500원/범양사출판부
가이아의 시대/러브록/5,600원/범양사출판부
현대 물리학과 동양사상/카프라/6,000원/범양사출판부
카오스에서 인공 생명으로/미셸 웰드롭/12,000원/범양사출판부
재미 세계 여행/베르트 휘도블러/18,000원/범양사출판부
사랑의 학교(상·하)/이원복/각5,000원/사랑의학교
빛깔과 향기가 있는 인간형을 찾아서/이원복/5,000원/사랑의학교
세계 문학 속의 동양사상/김헌창/13,000원/서울대출판부
역사의 재조명/한림과학원/9,500원/소화
인도 독립 투쟁/나이르/3,500원/일월서각
한국인의 윤리 의식 연구/정신문화연구원/4,100원
평생 교육 체계와 사회교육/정신문화연구원/4,200원
개인과 국가/정신문화연구원/3,500원
전통적 생활 양식의 연구/정신문화연구원/3,400원

문화·종교

한국인과 일본인1~4/김용운/각6,500원/한길사
작은 인간/김찬호/9,500원/민음사
문학과 종교의 만남/김영호 외/7,500원/동인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 구조/김용운/5,000원/한길사
한국인의 가정 교육/박필수/9,300원/문음사
한국인의 한/최길성/7,000원/예전사
한국인의 사상/고익진/7,000원/열음사
중국 문화의 이해/이수웅 외/10,000원/대한교과서
한국의 조상 숭배/최길성/7,000원/예전사
문화란 무엇인가/크리스 젠크스/7,500원/현대미학사
한국의 나무 문화/송홍선/10,000원/문예산책
한국의 풀 문화/송홍선/10,000원/문예산책
당신을 도구로 써 주소서/문일석/5,500원/신라원
전세계 가정에서/요한 바오로 2세/5,500원/장락
참으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김수환/5,000원/사람과사람
중국 종교와 그리스도교/클리아칭/7,000원/분도
종교와 상징/이은봉/5,000원/세계일보
인간과 신앙/유원열/6,000원/교육과학사
종교와 이데올로기/김성건/5,000원/민영사
열린 종교를 위한 단상/오강남/5,500원/열린책들
기적의 역사/신호범/6,500원/살과꿈
실학과 그리스도교의 만남/김환철/10,000원/나단
한국의 시원사상/박동숙/8,000원/문예출판사
동양의 명상과 서양의 심리학/존 웰우드/4,500/범양사출판부
주역과 한국 역학/한국주역학회/13,000원/범양사출판부
일본의 불교/김진만/4,200원/소화
일본 문화의 숨은 형/김진만/3,800원/소화
다도와 일본의 미/구마무라 이사오/3,800원/소화
불교와 중국 지성사/아서F. 라이트/4,200원/예문지
플라톤과 우파니샤드/바실리스/3,000원/문예출판사
과학과 불교의 실제 인식/엘런 윌리스/4,000원/범양사출판부
종교 문화의 인식과 해석/정진홍/13,000원/서울대출판부
강좌 인도 철학/마이소르/4,800원/예문서원
철학적 신앙/칼 야스퍼스/3,400원/이대출판부
종교 사회학/토마스/5,000원/이대출판부
종교 철학/브루스 라이헨박/12,000원/이대출판부
종교와 인간/서광선/5,000원/이대출판부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임마뉴엘 칸트/10,000원/이대출판부
신비주의와 종교/로버트 열우드/8,500원/이대출판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제임스 벤틀리/5,000원/일월서각
사회주의적 종교 비전/김쾌상/5,000원/일월서각
영겁의 인연/이신재/3,000원/일월서각
선과 아미타경/현재훈/2,200원/일월서각
실천 불교 3, 4/윤호진 외/3,800, 4,000원/일월서각
불교에의 길/현재훈/3,000원/일월서각
유교 정치와 불교/한우근/15,000원/일조각
신라사상사 연구/이기백/12,000원/일조각
고려 후기 불교사 연구/채상식/8,000원/일조각
융 심리학과 동양 종교/융/8,000원/일조각
한국 선사상 연구/한기두/18,000원/일지사
카필라의 아침/크리넌드 헤롤드/2,000원/일지사
조선조 종교 사회사 연구/황선명/9,000원/일지사
한사상과 민족 종교/한기두 외/5,800원/일지사

한국 문화론(현대편, 상고편)/전경수/10,000원 8,000원/일지사
지눌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정신문화연구원/6,000원
율곡의 사상과 그 현대적 의미/정신문화연구원/9,500원
종교의 철학적 이해/김형석/5,000원/철학과현실사
새로운 불교의 해석/김진/5,000원/철학과현실사

재미있게 읽는 역사

한국사 시민 강좌/각4,000원/일조각
아, 고구려 1/조선일보출판국/6,000원/조선일보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이이화/8,500/여강
한국사 기행/심경호/6,000원/범우사
삼국유사의 현장 기행/이하석/6,000원/문예산책
이야기 중국사/김학영/6,000원/청아
일연의 꿈, 삼국유사/조성기/5,500원/민음사
환단고기/계연수/6,000원/한뿌리
신단민사/고동영/6,000원/한뿌리
한국 상고 군사사/고동영/6,000원/한뿌리
단군을 찾아서/이형구/5,000원/살림터
단기고사/고동영/6,000원/한뿌리
단군 조선 47대사/고동영/6,000원/한뿌리
규원사화/고동영/6,000원/한뿌리
나라 역사 육천년/안호상/6,000원/한뿌리
신단실기/김교헌/6,000원/한뿌리
이야기 미국사/청솔역사교육원/6,000원/청솔
이야기 인물 한국사/이현희/7,000원/청아
이야기 세계사2/구학서/6,000원/청아
단군/윤이흠 외/15,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의 신화/김남규/6,000원/일조각
삼국사기 연구/12,000원/일조각
한국 설화의 유형/조희웅/15,000원/일조각
우리 역사의 여러 모습/이기백/9,000원/일조각

문화 유산의 해 특선

한국의 암각화/한국민속역사학회/15,000원/한길사
한국의 불상/황수영/15,000원/문예출판사
한국의 도자기/정양모/25,000원/문예출판사
한국의 전통 건축/장경호/35,000원/문예출판사
한국 도자기사 연구/윤용이/25,000원/문예출판사
한국 회화의 전통/안휘준/21,000원/문예출판사
한국의 석조 미술/25,000원/문예출판사
북한 사찰 연구/한국불교종단협의회/10,000원/사찰문화연구원
한국 고미술의 이해/김원용/3,5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의 종/염병하/25,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 가면극/이두현/20,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 미술사/김원용 외/28,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 불교 음악 연구/한민영/10,000원/서울대출판부
한국의 건축/윤장섭/36,000원/서울대출판부
석불사(토함산의 중각 석굴)/남천우/6,000원/일조각
한국 고대 불교 조각사 연구/2,000원/일조각

한국 미술사 연구/김원룡/2,000원/일지사
한국 미술사 자료집성 1,2,3/각 25,000원/일지사
한국 고고학 개설/김원룡/7,000원/일지사
한국 미술사 연표/진홍섭/12,000원/일지사
한국 회화사/안휘준/12,000원/일지사
한국 전통 목조건축 도집/2,000원/일지사
한국의 불상/진홍섭/10,000원/일지사
서역 불교 조각사/임영애/14,000원/일지사
금강산도 연구/박은순/20,000원/일지사
한국 불탑 100선/6,300원/일지사
한국 백자 도요지/7,000원/일지사
불국사(한국의 사찰1)/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석굴암(한국의 사찰2)/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신라의 폐사 I (한국의 사찰3)/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통도사(한국의 사찰4)/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법주사(한국의 사찰5)/한국불교연구원/2,000원/일지사
송광사(한국의 사찰6)/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해인사(한국의 사찰7)/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화엄사(한국의 사찰8)/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부석사(한국의 사찰9)/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금산사(한국의 사찰11)/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신라의 폐사 II (한국의 사찰12)/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월정사(한국의 사찰13)/한국불교연구원/2,000원/일지사
낙산사(한국의 사찰14)/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전등사(한국의 사찰15)/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신륵사(한국의 사찰16)/한국불교연구원/2,000원/일지사
북한의 사찰(한국의 사찰17)/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범어사(한국의 사찰18)/한국불교연구원/2,500원/일지사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은정희/12,000원/일지사
강릉 단오굿(한국의 굿19)/김선풍/4,000원/열화당
강사리 범굿(한국의 굿11)/하효길 외/3,500원/열화당
거제도 별신굿(한국의 굿16)/황루시/5,000원/열화당
경기도 도당굿(한국의 굿2)/황루시 외/4,000원/열화당
경복궁/이기웅/4,000원/열화당
경주 남산/강운구/12,000원/열화당
경주 남산의 탑골/윤경렬/3,000원/열화당
고려 불화/문명대/3,500원/열화당
광언(화락의 연구)/김학현/5,500원/열화당
꼭두각시놀이/서연천/4,500원/열화당
덕수궁/이기웅/3,000원/열화당
동양 미술의 감상/문명대 외/5,500원/열화당
동양 미학/토머스 먼로/4,000원/열화당
동양화 일천년/하영환/5,500원/열화당
만다라/김용환/6,000원/열화당
불교 미술/디트리히헥켈/8,000원/열화당
석굴암/황수영/4,500원/열화당
장승/이종철/3,000원/열화당
종묘/이기웅/3,000원/열화당
창경궁/이기웅/3,000원/열화당
창덕궁/이기웅/3,000원/열화당
탑/김희경/5,500/열화당

한국 문양사/황호근/5,500/열화당
한국의 목공예(상)/이종석/3,000원/열화당
한국의 나무탈/심이석/7,000원/열화당
한국의 목공예(하)/이종석/3,000원/열화당
한국의 불화/문명대/5,000원/열화당
한국의 장승/이상일/7,500원/열화당
한국 조각사/문명대/3,000원/열화당

문학(시, 대하·역사 소설)

백두산/고은/4,500원/창비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조태일/창비
바다의 눈/김명수/3,500원/창비
다시 그리움으로/박재삼/4,000원/실천문학
늙은 산/장용철/4,500원/실천문학
소설 남/김지하/각4,500원/솔
토지/박경리/각7,000원/솔
대한제국침략사/고원정/각2,500원/현암사
임꺽정/홍명희/각4,500원/사계절
우암 송시열/홍경호/각5,000원/신구미디어
한국지/김정산/각 6,000원/민예당
백두산/최병락/각4,800원/두로
정관정요/나채훈/각5,000원/한림원
황제내경/장영수/각5,000원/명성원
흔불/최명희/각6,000원/한길사
삼국지/나관중/각 5,500원/민음사
아리랑/조정래/각6,300원/한길사
소설 천자문/박소천/각5,000원/현일사
대원군/유주현/각4,500원/신원문화사
퇴마록/이우혁/각5,500원/들녘
소설 고구려/교양역사소설편집위/4,500원/참빛
조선왕조(상)/교양역사소설편집위/4,500원/참빛
수호지/이문열/각5,500원/민음사

어린이

사랑과 지혜가 담긴 동화 시리즈/정성구/3,800원/서광사
우리들의 환경 파수꾼/김용근/4,800원/푸른나무
푸른별의 환경 파수꾼/문명식 외/4,200원/푸른나무
명태 선생님의 환경 교실/김용근/4,200원/푸른나무

책방 여시아문의 통신 판매 서비스

책방 여시아문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통신 판매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라도 즉시 보내 드립니다.
(무료로 책방 부댐)
전화 (02) 737-0695, 732-1521 팩스 (02) 737-0696
온라인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6-21-0569-439 예금주 조등규
서울은행 15504-3385504 예금주 조등규
농 협 053-01-226498 예금주 조등규

"집에서 산사의 봄미각을…"

◇ 이여영 소장은 "사찰음식이 가정식 단으로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손님 접대 음식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



산사의 음식처럼 오신채(파 마늘 부추 생각 흥거)와 육류를 전혀쓰지 않고 식단을 꾸미는 가정이 있다. 불교학자인 심재열소장(원효사상연구소)댁.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심소장의 부인 이여영씨(한국사찰음식연구소장)가 소개하는 사찰음식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돋궈보는 것은 어떨까. 이소장이 만드는 사찰음식은 싱싱한 봄야채와 버섯을 주재료로 하고 있으며, 조리방법이 간단해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다. 또 조미료를 일체 쓰지않아 야채와 버섯의 향미가 그대로 살아나 별미다.

이여영씨가 권하는 사찰음식 6選

산채모듬밥 표고·송이·팽이버섯, 취나물, 두릅 등 봄나물의 향미를 그대로 맛 볼 수 있는 모듬 음식으로, 사찰음식으로는 처음 개발돼 선보이는 것. 맛이 깔끔하고 풍부한 비타민과 칼슘으로 춘곤증을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

▷재료: 생표고·송이버섯·팽이버섯/취나물/죽순통조림/다시마/두릅/미나리/더덕/김

▷만드는법: 1. 표고버섯은 꼭지를 떼 데친 후 어슷하게 썬다. 양송이버섯은 끓는 물에 데쳐서 반으로 자른다. 팽이버섯은 밑둥을 잘라 씻어 물기를 뺀다. 더덕은 칼등으로 두들겨 알맞게 뜯다. 두릅은 소금물에 삶는다. 취나물은 잎만 다듬어 소금물에 데쳐 놓는다. 죽순은 빗살무늬로 썬다. 2. 찹쌀과 멥쌀을 반씩 섞은 솥에 소금 청주 설탕을 넣은 밥물을 붓는다. 3. 다시마를 쌀위에 덮고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는다. 4. 밥과 참기름 통깨 흑임자를 고루 잘 버무려 식힌다. 5. 한입크기로 밥모양을 만들어 준비된 재료로 하나씩 싼 후 버섯은 김띠를, 더덕 두릅 죽순 취나물은 미나리로 묶는다. 6. 색을 맞춰 모양있게 담고 겨자간장을 곁들여낸다.

돌미나리찜 비타민이 풍부하고 칼슘 등 무기질이 많은 알칼리성 식품 미나리를 주재료로 한 요리. 독특한 향미와 청량미가 있어 일품이다. 해열 혈압강하 등 약용효과가 있다.

▷재료: 두부/붉은고추/돌미나리/된장/고추장/찹쌀가루/녹말가루/간장/잣가루/후추/깨소금/참기름/식초

▷만드는법: 1. 두부는 으깨서 물기를 짠다. 2. 미나리는 씻어 1㎝ 길이로 썬다. 3. 붉은고추는 씨를 빼 다진다. 4. 그릇에 녹말·찹쌀가루 미나리 된장 고추장 붉은고추 참기름 후추를 넣고 버무린다. 5. 4를 둥글납작하게 만들어 녹말가루에 무친 후 찜통에 찐다. 6. 간장과 식초, 잣가루를 섞은 양념장을 곁들인다.

녹차잎 호박 밀전병 녹차를 우려낸 녹차잎을 다시한번 식용할 수 있도록 개발 조리한 요리. 녹차잎의 향기와 호박의 단맛이 잘 어우러졌다.

▷재료: 우려먹은 녹차잎(말려놓은 것)/애호박/부침가루/찹쌀가루/소금

▷만드는법: 1. 불린 녹차잎과 채썰어 소금에 절인 호박을 찹쌀·부침가루에 넣고 반죽한다. 2. 후라이팬에 전을 지져낸 뒤 김밥말듯이 둥글게 싸 썬다. 3. 초간장소스를 곁들인다. (진간장, 식초, 통깨, 설탕)

쑥 취나물 두부완자탕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면서 소화율이 95%나 되는 우수한 단백질 식품인 두부와 봄나물을 주재료로 한 요리. 특히 식욕부진 소화불량 월경불순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은 메뉴다.

▷재료(3인분): 두부/마른 표고버섯/취나물/쑥/찹쌀·녹말가루/잣/다마, 표고버섯으로 모양을 낸다.

탕수채 버섯은 향암물질이 풍부할뿐 아니라 정력, 미용 등 건강식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여영씨의 탕수채는 녹원스님(직지사 주지) 칠순법회에 참석한 1천여명의 대중들로부터 그 진가를 인정받은 바 있다.

▷재료: 마른표고·송이·팽이·목이버섯/죽순통조림/애호박/피망/당근/녹말가루/참기름/소금/식용류

▷만드는법: 1.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건져놓는다. 2. 팬에 표고·송이·목이버섯 죽순 호박 순으로 넣어 볶다가 채선 피망을 넣고 좀더 볶는다. 3. 재료들이 익었을때 팽이버섯을 넣고 한번더 볶는다. 4. 표고버섯을 불린 물에 소금, 녹말가루를 섞고 볶아진 재료에 붓는다. 5. 참기름을 넣어 버무린 후 내놓는다.

양배추김치 ▷재료: 양배추/깻잎/소금/식초/설탕

▷만드는법: 1. 양배추는 밑둥에 홈을 파 통째로 5시간동안, 깻잎은 5분동안 소금물에 절인다. 2. 양배추과 깻잎을 하나씩 포갠 후 5㎝의 높이가 되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실로 묶는다. 3. 물 1ℓ에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식초 설탕을 넣어 맛을 내고, 양배추에 부어 시원하게 해 먹는다.

도필선 기자

"야채·버섯등 제맛 살리는 요리"

돌미나리찜 독특한 향·청량미 '일품'

쑥취나물… 식욕부진·소화불량에 좋아

건강과 식품 〈3〉

김치

김치는 침가 재료와 숙성시기, 담는 용기, 물, 저장조건 등에 따라 비타민C 함량의 큰 차이를 보인다. 김치는 조리가 되면서 이미 신선한 채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몸에 중요한 비타민C를 다량 함량하고 있어 한겨울에도 비타민C 공급원이 되는 저장식품이다. 김치속의 비타민C는 숙성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일단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되어 간다.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고 담근지 오래 된 김치는 비타민C 파괴가 심하게 진행돼 미량만이 남게 된다. 즉, 비타민의 합성과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한다. 비타민 합성이 파괴속도보다 활발한 초기에는 채소가 보유한 비타민의 총 함량을 능가하여 현저하게 증가하나 산화파괴가 지속되면서 결국 비타민C 함량은 점차 감소되는 것이다.

비타민이 감소되는 속도는 기온의 상승, 공기와의 접촉에 따라 심해지며 공기존재 하에 접촉하고 있는 용기의 기벽에서 활발하게 파괴된다. 특히 극미량의 금속 불순물이 있을때 산화파괴 촉



비타민C 다량함유
건치·상처재생 효과
숙성될수록 영양 감소

매작용이 두드러져 비타민 파괴는 급속히 진행된다.

비타민C는 활성산소, 자유라디칼 등의 과량 생성을 막는 비타민E(토코페롤), 카로틴과 함께 산화방지 작용을 하는 한편 치아, 뼈의 세포간 물질인 콜란젠 같은 단백질 합성에 긴요한 작용을 하는 비타민이다. 또 건강한 치아, 골격형성, 상처조직의 재생과 치유를 촉진한다.

활성산소와 자유라디칼은 노화나 암 등을 유도하는 유독물질. 스트레스를 받거나 햇빛에 과다하게 노출될때 생긴다. 또 음식이나 호흡을 통해서도 생성된다. 그러나 활성산소나 자유라디칼은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으로, 적당량의 생성은 오히려 우리몸의 면역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화학〉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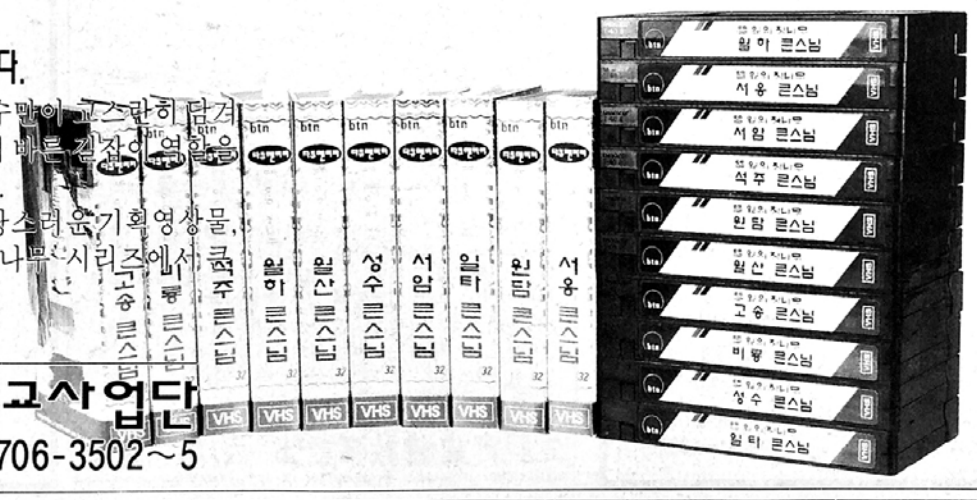
격조높은 작품·감동적인 영상 — 불교TV 영상물

불교TV 영상물은 한 잔의 맑은 차처럼 山寺의 향음이 그윽합니다.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불교TV 영상물에는
역사의 깊이가 녹아 있습니다.
고승대덕의 법문이 살아 숨쉽니다.
부처님의 숨결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불교TV 영상물에는 한국문화의 정수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불자들을 위한 수행정진의 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하도록 기획·제작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어느 순간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기획영상물, 불교TV 특집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에서 큰스님의 숨결을 함께 느껴 보십시오.



지혜의 빛·자비의 샘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706-3502~5

불교TV 특집 다큐멘터리 '뜰 앞의 잣나무' 시리즈 1집

① 서옹 큰스님 (고불총림 방장)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이 은사스님의 치열한 구도정신을 가르침 받는 성찰의 소리

② 서암 큰스님 (전 조계종 종정)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불자가 큰스님의 고고한 자태와 함께 청량한 삶을 조명

③ 월하 큰스님 (조계종 종정)
탤런트 고두심 불자가 통도사를 배경으로 큰스님께 청해 듣는 이시대 깨침의 말씀

④ 석주 큰스님 (칠보사 조실)
동화작가 정채봉 불자가 큰스님의 구도정신을 탐색하는 감동의 영상

⑤ 월산 큰스님 (불국선원 조실)
영남대 김성규교수가 자연속에 동화되어 생활이 곧 선이 되어 버린 큰스님의 삶을 취재

⑥ 성수 큰스님 (법수선원 조실)
숭가대 송찬우교수와의 대담으로 큰스님의 독특한 수행과정이 전개되는 감동적 영상

⑦ 고송 큰스님 (파계사 조실)
수행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지 탤런트 엄앵란 불자에게 설파

⑧ 비룡 큰스님 (월정사 조실)
관음보살같은 자비스런 깨달음의 말씀을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대담

⑨ 원담 큰스님 (덕숭총림 방장)
관화가 황남채 불자가 속세의 발길이 닿지 않는 큰스님의 산중련지를 전함

⑩ 일타 큰스님 (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대인의 가슴에 속속한 봄비같은 청량감을 주는 말씀을 연화장세계 임기준 대표가 진행

※ 위 차례는 방송된 순서임

비디오 테잎·10개 1세트 / 구매가 : 170,000원

구입문의 : 불교TV영상포교사업단 (02)3272-0781~5/(02)706-3502~5

종단소식

조계종

서산대사 탄신기념법회

해남 대둔사(주지 천운)는 18일 서산대사 탄신 기념법회 및 제3회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를 개최한다. 글짓기 대회에는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참가부분은 운문부(시 시조) 산문부 등이다. 이에앞서 17일에는 대웅전에서 보살계수계식을 봉행한다.

21세기 불교중흥 발심법회

공주 마곡사(주지 철웅)는 16일 오후 2시 대전 시민회관에서 '21세기 불교중흥을 위한 발심대법회'를 봉행.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실시되는 이번 법회는 1부 발심대법회에 이어 2부행사로 승무, 태평무(이애주 서울대교수)등을 비롯 불자가수 김태곤씨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태고종

수계산림 행자 등록

총무원과 각 지방교구 종무원은 오는 5월 24일까지 제21회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할 행자등록을 받는다.

오는 10월말경 열리는 이번 합동득도수계산림에 참가하려는 행자는 태고총림 선암사 정수원이나 종단이 인정한 행자교육기관에서 3개월간의 기초행자교육을 마친 후 행자소양시험을 거쳐야 한다.

만화·백운스님 종무원장

서울남부종무원, 강원종무원은 18일 종무원장 취임식을 거행한다.

서울남부종무원은 오후 2시 동작구 상도1동 미타사에서 총무원장 인곡 스님을 비롯한 종단 간부스님과 남부종무원 산하 각 사암주지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만화스님(미타사 주지) 종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한다. 강원종무원도 오전 11시 춘천 석왕사에서 백운스님(석왕사 주지·강원불교대학장) 종무원장 취임식을 갖는다.

선봉사 춘계 법보제

북한산 선봉사(주지 우담)는 7월 17일까지를 기한으로 9일부터 '춘계 법보제'에 들어갔다.

법보제는 90년부터 선봉사에 미륵부처님을 봉안한 것을 계기로 매년 봄과 가을 일년에 두차례씩 국태민안과 신도들의 안녕, 부모형제의 명복을 기원하는 정진기도로 1백일간 봉행된다.

안산 정법사 이전개원

안산 정법사(주지 법기)는 5일 안산시 부곡동에서 당산동으로 법당을 이전 개원하고 대웅전 낙성 및 아미타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법당이전과 함께 아미타부처님이 조성 봉안됨으로써 정법사는 안산지역의 미타도량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태종

학생회교사 단합 법회

총무원(원장 운덕)은 1박2일간 일정으로 '학생회 지도교사 단합법회'와 '어린이 지도교사 단합법회'를 5일과 12일 각각 개최했다.

구인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학생회 지도교사 단합법회는 지도교사 및 학생회 임원 1백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의식과 경전 등 불교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국 어린이 지도교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대성사에서 열린 어린이 지도교사 단합법회는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친목 도모 및 어린이 포교에 대한 주제토론 등이 이어졌다.

총지종

정각사 신축 헌공불사

부산 정각사(주교 정심)는 17일 오후2시 정각사 3층 서원당에서 종단 스승 및 각 사암 주교, 지역 기관장 및 지역민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헌공불사를 봉행한다.

이번에 완공된 정각사 신축건물은 연건평 4백8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이며, 연건평 5백40평의 지하2층 지상4층의 부속건물을 갖추고 있다.

본원종

충주댐서 방생법회

총무원(원장 대화)은 9일 서울 및 지방 4개 사찰 신도 4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주댐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02)737-0698

"좋은일에 쓰니 아깝지 않아요"



윤공덕화 보살 평생모은 10억 쾌척

동사무소·파출소 신축기금

포목·달걀·떡 장수하며

청각장애 남편·세딸 부양

"좋은 일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저 죽기전에 내 평생 모아온 것을 사회에 잘 되돌리고 싶을 뿐이지요"

평생 모은 재산 10억원을 자신이 70년 가까이 살아온 해운대구 우1동 동사무소와 파출소를 짓는데 선뜻 내놓은 윤분애(84·불명 공덕화)보살의 얼굴에는 그가 평생을 믿어온 부처님의 자비스러움이 가득하다.

윤보살은 평소 원을 세웠던 초등학교 건립의 꿈이 여러가지로 어려워지자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찾던중 이번에 실현한 것이다.

그가 내놓은 10억원은 달걀장사 포목장사 떡장사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 옷 한벌 제대로 사지않고 모아온 재산이다. 더구나 18세에 청각장애인인 남편과 결혼해 남편은 물론 세딸을 부양해왔던 것이다.

그는 억척스럽게 일하고 절에 가는 것이 생활의 전부였다.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선암사를 다니면서 불법을 만났습니다. 여행이라고 다닌 곳은 기도도량일 뿐이지요."

현재 그가 기거하는 경덕사(주지 원인)도 창건해 스님께 시주했다. 또 부산 북구 백운사도 지어 시주했으며 10년전에는 경덕사 안에 유치원과 노인대학을 세웠다. 좌천동 노인대학 설립 불우학생에 장학금지원 등 남몰래 불사와 보살행을 해왔다.

"사람은 마음을 잘써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자식을 길러도 사회와 나라를 위한 큰 마음을 쓰도록 가르쳐야하지요."

매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염하며 8백배가 넘는 절을 하고있는 윤보살은 "마지막 염원은 모든 것을 잘 회향하고 밝은 부처님 세계에 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서울불자 2년새 절반으로

'전법의 해' 조직위 분석 96년이후 다시 증가세

서울지역의 사찰수는 증가했으나 신도수는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조계종 전법의 해 조직위가 '96 서울통계연보'를 기초로 작성한 '사회통계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93년 서울지역의 사찰수는 1천37개에서 95년 1천7백26개로 늘어났으나, 불교인구는 1백61만여명에서 81만여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95년 개신교 신도수는 2백82만여명, 천주교는 7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97년 1월 현재 서울지역 불교인구는 91만8천여명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포교원은 통계방법상의 오류일 수도 있으나 서울지역 불교인구의 감소추세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포교전략 부재는 교세의 약화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불교인구는 전체인구의 23.2%인 1천30여만명으로 집계돼 개신교 천주교보다 더 큰 교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정기적인 종교행사 참여율은 다른 종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비정기적 신행층 및 심정적 불자층의 조직화가 포교의 새로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법의 해 조직위는 '사회통계 조사분석보고서'에서 월1회 이상 종교행사 참여율은 불교가 21.0%, 개신교 84.6%, 천주교 73.0%, 원불교 57.1%로 나타났다. 전체불자 가운데 월1회 이상의 정기적 신행층은 2백18만명에 그치고 있다. 1년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는 비율도 불교가 17.5%로 가장 높았다.



◇원행스님을 비롯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착공에 앞서 고불식을 거행하고 있다.

삼화사 대웅전 복원불사 착공

석회석채취 지반침하…3층석탑 이전도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삼화사(주지 원행)는 7일 장인규 신도회장과 김인기 동해시장 등 3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웅전 해체복원 및 3층석탑 이전불사를 착공했다. 대웅전은 인근의 쌍용양회 석회석채취 발파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에 따른 것이다.

삼화사는 5월 7일까지 3층석탑 이전불사를 마무리짓고 도량을 정비할 예정이다. 삼화사는 그동안 석회석 채취를 하고 있는 쌍용양회 측에 훼손된 대웅전과 3층석탑 원상복구를 요청해 왔었다.

대구 초파일행사 확정

5월 1일 봉축탑점등식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위원장 김무공 동화사 주지)는 3일 대구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봉축행사일정을 확정했다.

봉축행사는 5월 1일 오후7시 시청앞광장 분수대에서 봉축탑점등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계속된다. 봉축대법회는 5월 14일 오후6시부터 두류축구장에서 봉행되며 이어 연등축제가 시내일원에서 펼쳐진다.

해동고 61돌 연주회

종립학교 해동고(교장 양원식)는 7일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교 61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가졌다.

이사장 성파스님을 비롯 재학생 및 졸업생 1천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생과 재학생이 어우러진 관악합주단은 찬불가와 '오! 상제리제'등을 연주,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다.

'직지' 원본 국내 있을까

청주지역 고소사건계기 주목

최병학씨 "빌려준 책 직지" 주장 소송

대검 재수사 지시…학계도 존재확신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 과연 국내에도 존재할까.

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에만 소장된 것으로 알려진 직지원본 찾기운동이 청주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지난 3월21일 청주지검이 무혐의 처리한 '직지원본 횡령고소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 직지의 국내존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최병학씨(46·충북 청원군 북이면)가 93년 12월초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고문서 3권을 고종사촌 이윤상씨(44)에게 빌려준데서 비롯됐다. 뒤늦게 TV방송을 통해 빌려준 책 중의 하나가 국보급인 직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최씨는 이씨에게 반환을 요구, 가까스로 돌려받기는 했으나 책자는 이미 이씨의 동서 안문학씨(41·고서수집상)를 거쳐 뒤바뀌었다는 것. 이에 최씨는 자기가 빌려준 책이 아니라며 증인과 증거물 5건을 첨부해 안씨와 이씨 등 2명을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책갈피에 축문을 끼워놓고 제사때마다 열어보던 책이라 맨 뒤장의 '청주목외흥덕사 주자인시(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라는 글귀를 똑똑히 기억한다"며 그 책자가 직지라고 주장했다.

청주지검과 대전고검은 1·2심에서 모두 "빌려간 책이 직지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고, 고소내용을 증명해줄 자료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불복, 청주시장 시의회 대학교수 등의 서명을 받아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직지는 금속활자본으로 인쇄하면서 수백권을 제작 배포했을 것으로 추정돼 국내 어딘가에 한 권이상 남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직지원본찾기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윤기석 기자

마음 외부 탓이 아니다

언짢은 일, 괴로운 일이 닥쳤거나 혹은 닥쳐올 것이다 했을 때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근본을 찾아 안으로 굴려 놓는게 중요하다.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기복으로 나가거나 외부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안으로 놓고 나아가노라면 생수가 터져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안 출판기념법회 내

"요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禪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서적명 : 현대인이 만난 부처의 마음

■ 지은이 : 혜원(慧圓)스님
· 現 : 한국참선체조 구도회 원장
· 1991년 : 「선체조 108」(가람기획)펴냄

■ 펴낸곳 : 도서출판 「가람기획」

■ 초청법사님 : 구담(九潭)선사

■ 법회장소 : 한국참선체조 구도회선원
(서울 강남 개포동 5단지
상가 2-1호 신일빌딩 內)

■ 때 : 1997년 4월 20일(일요일)
오전 10시30분

전화 : 02)445-6188 · 226-5962

전국사찰음식 판매점 안내

서 울: 조계사-봉향각: 738-9466 관음손: 720-1147
베스토아 방배 2점: 535-7725
봉은사 매점: 516-6610 진여의 벗: 736-2921
법련사 불일서점: 733-5388
SM채식뷔페: 576-9637 잠실 불광사: 413-6060
경 기: 목아불교 박물관식당: 0377-85-9875
강남포교원: 539-2631
전남·광주: 한국전통의학연구소: 062-361-3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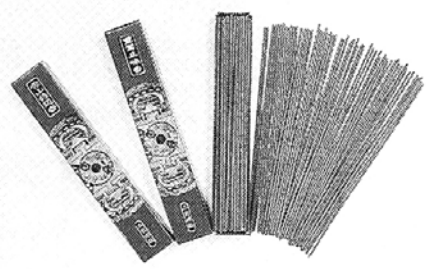
대리점 및 위탁 판매점 계속 접수중에 있습니다.
(불교용품 판매점 대환영)
담 당 자 : 기획실 주임 임 홍 희

● 금년 부처님 오신날 전국사찰 寺中 信徒會 불사기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되실 '사찰음식 위탁판매' 접수중입니다. 주지스님 및 신도회에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판매 부녀사원 모집 中
(불심 돈독하신 분 대환영)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서울 동대문구 장안4동 543(광장B/D 305호)
전화 (02)245-0904, 248-0479 FAX 246-6857

二軾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간상인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 연수 대학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 기 간 : 8박 9일

■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등의 침치료, 기공등

■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도修 證明書)

■ 인 원 : 10명 선착순

■ 출 발 일 : 1997년 5월 22일

■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 전 화 : (02)511/2026-8

"육신 불편해도 마음만은…"

'장애인의 날'에 만난 남강스님

장학회·유치원 설립 '새싹포교'
고아원·양로원·교도소 등 매달 방문

"부처님 인연으로 웃고 사는만큼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른팔과 왼쪽다리가 불편한 남강스님(59세)은 사제 성종(지체장애) 우종(시각장애) 무종(지체장애·입적)스님 등과 83년 정읍시에 법인사를 창건했다. 스님들은 "장애인스님인 만큼 더욱 노력하고 모든 사찰수입을 사회에 환원하자"고 결의, 불편한 몸과 맨주먹으로 직접 벽돌을 쌓고 나무를 다듬어 절을 짓고 14년동안 자비행을 실천해왔다.

'한달에 한가지 이상 선행을 하자'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스님들이 매달 반드시 찾는 곳이 있다. 고아원 양로원 군법당 교도소. 또 장기수 6명과 자매결연하여 영치금과 용돈을 매달 지급하고 있고, 2명의 대학생과 고교생을 기르고 있다. 남강스님은 직접 자전거를 타고 매달 정읍시내 각 동사무소와 파출소 40개소에 월간잡지를 넣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창 자룡중대에 군법당을 건립하기도 했다.

85년 법인장학회를 설립한 남강스님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읍관내 9개학교에 장학금을 지급, 지금까지 3백15명이 6천8백20만원을 혜택받았다.

스님은 또 90년 건평 1백20평 2층규모의 법인유치원을 설립했다. 유치원은 매년 1백여명이 수료하고 있고 매주 어린이법회와 봄·가을 불교학교도 성황이다.

"받는 종교가 아니라 주는 종교가 돼야죠. 부처님 일은 사심없이 행하다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남강스님은 정읍 내장사에서 유독 장애인상좌를 뒀던 세정스님을 은사로 사제들과 함께 득도했다. 〈정읍=김원우 기자〉



◇정읍 법인사 남강스님은 오른팔과 왼쪽 다리가 불편함에도 끝간데 없는 자비행을 펼쳐오고 있다. 사진은 법인사 어린이 아외법회 장면.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개원

습의-어산 3년 과정…5월중 개강

의식집전의 내적 통일과 불교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조계종 특수교육기관 '불교어산작법학교'가 문을 열었다.

교육원과 중앙승가대는 9일 중앙승가대에서 어산작법학교 개교 및 현판식을 갖고 이달말까지 신입생을 모집, 5월중 개강한다.

어산작법학교(교장 인묵스님·중앙승가대 강사)는 습의과(기초반) 어산과(전문반)를 두고 △전통 불교의식 어산작법을 집전할 수 있는 승려 양성 △어산작법을 교육할 수 있는 교역자 양성 △전통불교의식 어산작법 전반에 대한 연구 및 계승 발전방향 모색 등의 활동을 펼친다.

정원은 어산과의 경우 15명, 습의과의 경우 50명 이내로 하며, 수업연한은 어산과가 2년(4학기), 습의과는 1년(2학기)이다. 어산과에는 신중작법, 시련, 대령, 관욕, 상주권공 등이, 습의과에는 일용의식(도량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대령, 관욕, 시다림, 방생) 등의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으며, 의식과 불교사상, 불교와 문화예술, 비종교의식, 평생의례 등의 특강이 마련된다.

문화사랑본부 발족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부산종교인평화회의(공동대표 정각스님)는 16일 오전 11시 시립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우리문화사랑운동본부 발족을 위한 모임을 갖는다.

본부발족을 계기로 인간성회복과 도덕성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대대적인 운동을 불교, 가톨릭, 개신교, 유교 등 종교계와 문화민속단체, 학술계에서 함께 참여하여 펼치게 된다.

우리문화사랑운동은 크게 전통문화예절 바로알기, 향토사랑, 청소년 정서함양 등으로 나뉘어 △향토문화대학과 청소년전통 문화교실 개설 △전통문화 자료제작 △부산지역 문화예술인과 우리민요연구회 등이 참여하는 수영야류 동래야류 강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조계종은 팔당호에서 9일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굶주리는 동포살리기 나서자"

조계종 '한민족공동체 방생' 5천여신도 동참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9일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호에서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사, 도선사 등 서울·경기지역 사찰신도 5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방생법회는 괘불이운식, 영산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번 방생법회는 물고기를 살리는데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아사위기에 처한 북한동포를 살리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굶주린 북한동포, 국내 절대빈곤층, 중국 교포를 돕는데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회장에는 북한동포돕기 모금함을 설치해 성금을 모았다.

인천청교련 '청소년쉼터' 개원

비행예방·취업알선…24시간 전화상담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가 9일 YMCA, 청소년연맹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청소년쉼터를 개원했다. 인천시 중구 송학동 2가 1번지에 단독주택 형식을 갖추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된다.

청교련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 및 취업알선 △정서교육 △청소년비행예방교육 △봉사활동 등을 지도하는 청소년전문 선도상담시설로 운영된다. 이에따라 청교련 인천지부는 5명의 실무위원과 15명의 운영위원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인천시 경찰서 및 학교 등에서 위임받은 가출청소년 선도사업에 들어갔다.

청소년쉼터는 또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통해 가출청소년들을 교화할뿐 아니라 해당지역 사찰과 연계해 불교인성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일스님은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편하게 쉴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가출청소년들의 보모역할에서부터 재활, 취업까지 도와주는 청소년선도전문상담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명대사 호국선양회
15일 표충사서 창립

(가칭)사명대사호국선양회(준비위원장 신허스님)가 15일 밀양 표충사 의중당(설법전)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제507회 사명대사 춘계향사일에 맞춰 열린 이날 법회는 향사(享祀), 서산 사명 기허 3대선사 추모법회, 창립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표충사 주지 신허스님은 이날 창립취지문을 통해 "온 국민이 사명대사의 불가사의한 법력을 받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조국을 통일시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누리에 가득차게 하자"고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도피안사 일대 관광코스 개발

도피안사 화엄사 등 주요 전통사찰이 강원도에 의해 관광코스로 개발된다.

강원도는 비무장지대를 일주하는 '통일안보 관광코스'를 개발, 본격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되는 관광코스는 철원 양구 화천 인제 고성 등 강원도내 휴전선 인접 5개군의 비무장지대 2백25㎞로 △도피안사~통일전망대 △철원 철의 삼각지대 등 4개권역으로 당일 또는 1박2일 코스다.

IPU총회서 성가곡 합창 '물의'

정각회 강력 대응키로

지난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차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개막식 행사에서 특정종교의 성가곡이 연주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 선명회합창단은 '사랑의 평화'란 기독교 성가곡을 축가로 불렀다. 국회의전과의 의뢰에 의해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벤트월드측은 "멜로디만 듣고 이 곡을 선곡했다"며 "'사랑의 평화'가 성가곡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국회 정각회측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특정종교의 성가곡이 연주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탁소리

실속없는 방생법회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이렇줄 알았으면 안왔지요. 뜻있는 방생법회라고 해서 왔는데 실망했습니다." 방생대법회에 참여한 불자들은 발길을 돌리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조계사 용주사 봉선사 공동주관으로 8일 열린 '한민족 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의 준비과정은 거창해 불자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막상 행사장에 참여한 불자들은 이내 실망하고 말았다. 사찰들도 '눈도장만 찍고(?)가자'는 식으로 눈치를 살폈고 심지어 일찍부터 발길을 돌리는 사찰들이 눈에 띄었다. 이처럼 이번 방생법회가 불자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리한 인원동원을 본말사스님들에게 요청, 불만이 컸다는 점이다. 둘째 실속없는 행사진행이다. 방생법회의 참뜻을 살린다며 신도들에게 물고기 방생을 자제토록 했으나 그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당초 계획했던 '1만불자 통일발원 쌀탑쌓기' '팔당호 살리기 수중대청소'마저 취소돼 형식적인 행사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같은 주최측의 무성의로 인해 신도들은 방생법회인지 야유회인지 갈피를 못잡는다는 표정들이었다. 소문많은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속담을 연상케 했다. 조계종이 추구하는 것처럼 진정 한민족 한생명을 위한 방생법회라면 먼저 불자들이 방생법회에 참뜻을 제대로 느끼게 하는 것이 주최측의 의무라는 지적이다.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방생대법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법회인지 자못 궁금하다.

현불뉴스

선암사 관음전 전소

선암사(주지 혜민)의 관음전이 4일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전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화재는 4일 오후 7시경 발견되어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거센 불길로 근접이 어려워 다음날 새벽 2시경 전소되었다. 선암사측은 화재발생 당시 비가 계속 왔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선암사는 관음전이 주택공사에 의해 강제수용된 토지의 중간에 자리해 철거를 두고 주택공사측과 계속 마찰을 빚어왔고 3월 16일에도 쇄불사건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주공측에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재불련 23일 임시총회

한국재가불자연합(상임공동대표 안동일)은 23일 오후7시 서울 송현클럽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재가불자연합은 이날 총회에서 범종단적 재가운동단체로의 위상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이종구씨(전 국방장관)와 박정희씨(관악뉴코아 대표) 등 2인을 공동대표로 추가 영입할 예정이다.

조계종 봉축책자 보급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불기 2541년 초파일 봉축책자 〈우리들의 부처님〉을 제작, 11일부터 보급했다.

봉축책자는 32쪽 분량의 칼라화보로 제작했으며, 초파일의 의미와 중생들에게 다가와 아픔을 어루만지는 부처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 또 전법의 해를 맞아 자비의 탁발, 깨달음의 사회화운동 등 새롭게 변모하는 불교의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꾸몄다. 1부당 가격은 7백원이며, 2백부 단위로 포교원(02-720-7060~4)에 주문하면 된다.

울산 한방병원 건립 추진

불교한방병원과 불교대학 교육관 건립을 위한 관세음보살 점안식이 14일 울산불교한방병원 건립법당(주지 동하)에서 열렸다.

올 가을에 공사를 시작, 98년말께 완공되는 불교한방병원은 총 40억원이 소요되는 대작불사.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의 이 병원에는 병실과 물리치료실외에 만불전(1만 관음전), 대법당, 요사채, 불교단체 사무실 등을 갖추게 된다.

東大 시간제학생 경쟁 치열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 '97학년도 제1학기 시간제등록 학생 선발결과 입학생 72명중 30~40대 직장인의 호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중순 시간제 학생을 선발한 동국대에는 모두 4백70여명이 응시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합격자 72명의 직업별, 연령별 분포는 취업자 69명, 주부 3명으로 30대가 41.7%, 40대 이상이 34.7%, 20대가 23.6%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원자의 98.6%가 졸업후 5년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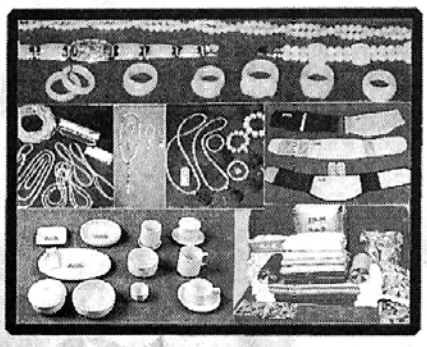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춘천옥산가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 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SOD 청혈작용 때문에)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때문에)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찻빙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장다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잘혀 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듭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씹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포도자기 玉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건욕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분호 승우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어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발원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관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 고급 한지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인 사용하여 조성
규격 (가로)63㎝×(세로) 160㎝

스님들께는 : 스님용책자와 신도용책자를 무료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스님용책자내용
1. 본회의 금강경 신탑다라니에서 계속적으로 광출된 신비스러운 기를 이용하여 인간의 운세와 길흉화복을 80%이상 적중시킬수 있는 기(氣)테스트 방법 수록.
2.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 소원이 성취되는 불탑다라니 사용방법과 상세한 처방전.
3.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 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4. 수자영가를 각각 불명을 지어 확실하게 천도시켜 주는 방법.
5. 불탑다라니로서 조상님의 산소를 후손이 발복하는 명당자리로 만들어 주는 방법.
6. 이름없는 영가의 분명짓는 방법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불탑다라니는 로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소원을 성취시키고 재앙과 재난을 예전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등을 제시해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 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온누리 꽃향기 佛心도 피네"

꽃 절 길 길

…/삼각산에 봄 빠꾸기 울더니/꽃이 피었다//그것도 관음하신 비구니/손끝에 향내 묻어 피어난/붉은꽃 노란꽃 연분홍도 빠질세라/곱게곱게 단장하고 피었어라//이 길로 이 길로 가노라면/엷두 고개 스무고개 백팔고개 넘어/꽃이 피고 꽃이 피고//삼각산만이 아니라/한반도 건너 사바세계가/불국화 이루겠네//

〈해관스님의 시 '불국화' 중에서〉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는 봄꽃이 만개하는 계절. 사찰로 가는 길이 온통 꽃향기에 뒤덮여 불심이 더욱 향기롭다. 벚꽃 철쭉 동백 산수유 등 유명 꽃잔치가 열리는 꽃길 절갑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하동 쌍계사 가는 길 10리가 만개한 벚꽃으로 꽃터널을 이루고 있다.

봄의 여왕 벚꽃

쌍계사 화개 장터를 지나 쌍계사 쪽으로 들어가는 10리길이 벚꽃천지. 쌍계사를 지나 800고지 범왕리로 20여분 들어가면 김수로왕 7왕자가 성불했다는 칠불사가 나온다. 벚꽃과 그윽한 산사의 정취에 흠뻑 젖을 수 있는 곳. (0595)80-2544

동학사 동학사봄꽃축제가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박정자삼거리에서 동학사에 이르는 3㎞의 벚꽃터널은 꿈길이다. 벚꽃감상과 함께 산행을 즐기고 오는 길에 유성온천에 몸을 담그면 춘곤증도 싹 가신다. (0416)53-0101

송광사 전주시에서 무주로 가는 4차선 26번 국도를 타다 상양면 이정표를 보고 우회전하면 자그마한 산마을. 여기서부터 송광사까지 3.5㎞의 벚꽃길도 장관이다. 뒤편 외길을 따라 조금 더 가면 위봉사. 고개를 하나 더 넘으면 나차 9m의 2단으로 떨어지는 위봉폭포가 나타난다. (0652)241- 7811

탑사 홍곳 세운 말의 두 귀처럼 덩치 큰 바위가 기이한 전북 진안 마이산. 이산묘부터 돌을 쌓아 탑군을 이룬 탑사까지 3㎞가 벚꽃으로 은은하게 물든다. 19일 오전 11시에 전통궁중무용인 금청무 공연이 있고, 곧바로 벚꽃길을 걸으며 보물찾기 행사도 예정돼 있다. 참가비 무료. 20일에는 마이산을 오르는 산악마라톤대회가 열린다. (0655)30-2224

고고한 정열 동백꽃

향일암 전남 여수시 앞바다 향일암에서는 매일 아침 해돋이를 볼 수 있다. 4월말~5월초 만개하는 이곳 동백꽃은 향일암으로 올라가는 가파른 등산로 주변과 해안가 절벽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산을 오르다 문득 뒤돌아 보면 저멀리 바다위에 수만송이 동백꽃이 두둥실 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빨간 동백꽃과 더불어 노란 장다리꽃도 일품이다. (0662)44-4742

선운사 선운사 동백이 워낙 유명하지만 4월15일 이전엔 활짝 봉오리를 틔우지 않는다. 4월25일부터 5월10일까지가 절정. 대웅전 왼쪽 꽃밭에 수백송이가 살포시 꽃망울을 과우는 이슬머금은 수선화 무리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0677)61-1422

백련사 전남 강진에 위치한 백련사 동백꽃은 4월말이 절정이다. 강진 남쪽 20리에 위치한 해발 409m의 만덕산. 이 산 남쪽 기슭의 백련사는 강진만이 정겹게 바라보이고 주변은 붉은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151호)이 에워싸고 있다. (0638)32-0637

산등성 불태우는 철쭉

실상사 전북 남원시 운봉면 일대에는 백장암과 약사암 등의 문화재를 포함해 단일 사찰로는 가장 많은 문화재를 지닌 실상사가 있다. 백장암에서 남원시쪽으로 위치한 바래봉은 지리산이 품고 있는 수많은 1천m급 봉우리중 하나. 인적드문 산등성이 초원에서 곱게 단장한 철쭉이 휴식년제가 풀리는 올해 더욱 화사하고 상그러울 듯하다. 만개 예상시기는 5월 초순경이나 5월말까지 감상할 수 있다. (0671)34-3031

고향내음 살구꽃 · 산수유

향림사 순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1㎞쯤 가면 도선국사가 지었다는 향림사가 있다. 향림사에 들러 참배하고 우리나라에서 초가집이 가장 많은 낙안읍성으로 가면 살구꽃거리를 구경할 수 있다. 북문이나 동문 밖에 수십평씩 무리지어 살구꽃이 피어있다. (0661)52-6380

화엄사 구례군 산동면 일대, 화엄사 입구 황전리 일대는 산수유가 만발하는 곳. 어느 곳보다 옛스러움을 간직한 토담집이 많아 산수유에 걸맞는 분위기가 물씬하다. 이곳에서는 19일부터 21일까지 향토음식대축제도 열린다. (0664)782-7600



◇선운사 대웅전 앞에 피어있는 수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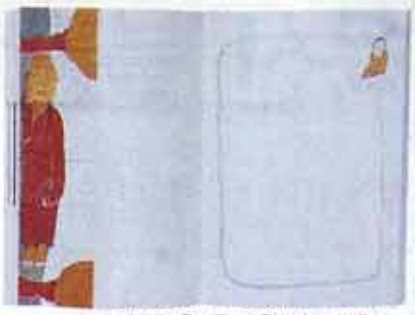
◇4월말부터 5월말까지 만개하는 지리산 철쭉.

쌍계사 바람에 날리는 벚꽃물결 10리

백련사 4월말 천연기념물 동백 일품

실상사 5월초 지리산 철쭉 절정

강지연 기자



◇여백은 우리들 마음자리… 성륜스님이 펴낸 명상노트.

불교 팬시용품 제작 성륜스님





빨간 기사를 두른 부처님이 엷반에 들어 편안하게 누워있다. 알록달록하게 그림처럼 색을 입어 보기만 해도 즐거운 반야심경과 예불문 경구, 와불과 경전구절이 아름답게 배치된 명상노트에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를 쓰거나 시를 쓴다면….

성륜스님이 주제가 있는 명상노트 제Ⅰ권 '와불 일어나시다'를 펴 냈다(시절인연 刊). 지난 95년 명상노트 Ⅰ권 '물고기의 합창'에 이은 이 노트에는 성륜스님이 그린 '와불 일어나시다' 시리즈의 그림이 매장마다 실려있다. 첫보기에 예쁘고 세련된 감각이 느껴진다.

EQ용 일기장 '와불…' 출간
노트·카드·메모지등도 준비

"요즘처럼 각박하고 심성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단 몇분이라도 이 노트를 펴 자신의 본성을 찾는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어있는 여백은 우리들 마음자리라 여겨도 좋지요. 여백을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여유와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님이 그림과 경구로 구도행을 녹여 만든 이 명상노트는 그대로 자신의 수행을 그려넣을 수 있는 빈 마음자리다. 잠자기전 노트를 펴놓고 일기를 쓰거나 친구나 연인에게 또 스승, 부모에게 보내는 다정한 편지를 쓰는 편지지나, 시나 단상을 적어놓는 시집으로도 활용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가교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요즘 붐을 일으키고 있는 EQ 교육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일기장이나 메모지로 사용된다면 그들의 심성에 불상을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 있는 매개체도 될 수 있다.

"불교계에는 보기에 좋을뿐더러 생각하게 하는 괜시용품을 찾기 힘듭니다. 내세울만한 문화상품이 없는 것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보기에 깜찍할 뿐더러 질좋은 노트, 카드, 관지지, 메모지 등 격이 높은 괜시용품을 차례로 내고자 하는 것이 성륜스님의 계획이다. 이달말쯤 연꽃을 소재로 한 세번째 명상노트를 펴내고 계속해 시와 그림이 있는 명상노트, 법구경 등 경구가 들어간 명상노트를 펴 낼 예정이다.

초파일을 맞아 친구나 도반, 자녀에게 주는 선물로도 손색없을듯(값 5천원). (02)817-6030

이경숙 기자

'97 문화 유산의 해 기념!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축소모형) 보급

'97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동미륵 보살반가사유상을 소장용으로 축소 보급합니다.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반가사유상은 흔히 "미륵보살사유상"혹은 "태자사유상"이라 하는데 이는 후세에 출현할 미륵보살이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고 깊이 고민하는 모습과, 출가 전 부처님께서 '生老病死'의 의미를 사유하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문화재 중 여러점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작품은 국보 제 78호와 제83호의 금동미륵보살반가상입니다. 전면의 단아한 모습과 더불어 아래로 길게 늘어진 천의 주름이 아름다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고전미와 현대미를 가미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였습니다.

제 품 사 양

품명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재질 : 청동
가격 :

형 태 / 규격(폭×높이)	골동품형, 코팅형
11㎝ × 26.5㎝	230,000원
16㎝ × 40.5㎝	350,000원

※ 개금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골동품형



코팅형(브론즈착색)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指定文化財 彫刻技能 제680호 佛敎彫刻院 이진형 院長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 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수 있습니다.



이 진 형
LEE JIN HYUNG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93~'94 (사)문화재 기능인 협회 회원전 2회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0호

현재: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제 작 : 불교조각원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2-1522, 737-8881
팩 스 : (02)737-0697